

세무사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
AIFA Business Academy

Contents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무사 합격수기 Best모음

- 최연소(99년생) 합격, 현장강의의 장점-이주용(58회) _ 04
- 회계학1부 100점! 공부방법과 마음가짐-우지인(58회) _ 07
- 비전공, 실무경험 無, 최종합격-임소민(58회) _ 11
- 공인중개사 취득 후 세무사 합격까지! 40대 비전공자-이수진(58회) _ 14
- 직장인 합격, AICPA취득& 세무사 합격까지-강덕구(58회) _ 18
- 30대 비전공 직장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최종합격-손동진(58회) _ 22
- 직장인의 신분에서 전업수험생으로 도전기-김희수(58회) _ 27
- 온라인 학습으로 최종합격, 50대 후반(64년생) 직장인-백영현(58회) _ 35
- 50대 직장인, 법무사+세무사 합격신화-김기조(58회) _ 41
- 당신도 할 수 있다! 직장인 50대 합격신화-성광호(58회) _ 51
- 세무사 사무실 실무자의 합격 스토리-김보람(57회) _ 54
- 직장을 병행한다면 주말 현장 수업으로-박지영(57회) _ 58
- 비전공자 직장인도 할 수 있다! 현장수업으로 합격-손영식(56회) _ 60
- 예체능 전공자 세무사 합격 도전기-심재용(56회) _ 69
- 중장년 직장인의 세무사 합격 스토리-옥0용(56회) _ 75
- 직장인들도 할 수 있다. 화이팅!-강다정(55회) _ 84
-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된다-박예란(55회) _ 91
-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세무사 합격까지-유재희(55회) _ 100

Contents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무사 합격수기 Best모음

- 54회 세무사 시험 동차 합격 수기-이기홍(54회) _ 106
- 두 번의 실패 이후 세 번째 도전만에 이룬 2차 합격-문효승(53회) _ 113
- 1년의 철저한 계획과 노력으로 이룬 동차합격-강성은(52회) _ 122
- 세무사 수험생활 보고서-이동현(52회) _ 129
- 직장과 수험생활 사이의 짜릿한 줄타기-강석구(50회) _ 134
- 신혼생활과 맞바꾼 합격의 기쁨-김선희(50회) _ 141
- 노력하면 결실을 볼 수 있는 정직한 시험-유기성(50회) _ 149
- 38세 늦각이 삼수생의 합격수기-장종진(49회) _ 159
- 최연소(19세) 세무사 동차 합격신화-윤누리(49회) _ 164
- 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박중영(48회) _ 168
- 포기 하지 않으면 합격-정명권(48회) _ 172
- 새로운 공부에 대한 열망이 동차 합격으로-문찬영(48회) _ 177
- 세무사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황연익(47회) _ 183
- Now, It's time to start-장윤덕(46회) _ 189
- 제약 영업에서 세무사 합격까지-연재명(45회) _ 194
- 직장인도 생동차 합격할 수 있다!!-양문정(45회) _ 199
- 세상에 공짜는 없다!!-황장원(45회) _ 204
- 직장생활보다는 쉽고 편하다는 마음으로-장일환(45회) _ 216

We make your success!

최연소(99년생) 합격, 현장강의의 장점

이 주 용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연소 합격(99년생)

■ 자기소개 및 준비 동기

현재 2021년 58회 세무사 시험(2차 유예)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을 한 20대 대학생(99년생)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세무사 시험 과목을 공부하였습니다만, 점점 세무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합격수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 주요 학습방법

• 회계학 1부

주로 학원의 강의를 통해서 기본을 정리하고, 이후에 연습서를 풀면서 회계학 1부를 준비하였습니다. 처음 연습서를 접할 때에는 모르는 문제들이 많았으며, 풀이에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교수님들의 수업을 통해서 이론과 문제 풀이 방식을 숙지하고, 이를 실제 풀이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숙달된 이후에는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별도로 정리함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1순환 당시에 교수님들이 수업에서 회계학 지식을 간결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이후의 문제 풀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회계학 2부

장민 교수님의 강의는 1차 시험의 내용을 숙지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기에 사람마다 달리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는 간결하게 핵심만을 다루기 때문에 세무회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 질문하는 경우에는 상세히 답해주시

기에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습과정에서도 다양한 책 보다는 2~3권의 책을 2차 시험 준비 기간 동안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는 3순환 시기에는 실전과 같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시험 감각을 충분히 익힐 수 있었습니다.

• 세법학

세법학은 준비하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더욱이 열심히 준비해도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은 좌절감을 느끼게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재상 교수님께서서는 수업 중에 시험과 관련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이는 세법학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순환 당시에는 암기보다는 주로 세법학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하였습니다. 2순환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숙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완전히 암기하는 것은 어려웠기에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덕분에 생소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 합격 핵심 노하우

세무사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는 공부의 양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범위가 넓은 시험의 특성상 아무리 숙지를 하더라도 휘발성이 강하기에 방심하면 다시 시작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전체적인 공부량은 적더라도 규칙적으로 과목을 번갈아가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합격의 핵심은 기억의 휘발성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학원 수강이 좋았던 점, 추천 이유

제 경우는 실시간 강의(현장강의)로 들었기에 교수님들과 의미가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것에 관한 질문을 교수님께 들으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법학의 경우 답안지에 관한 첨삭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셨기에 좋았습니다.

■ 응원 메시지

세무사 시험 공부 방법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공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문제 유형 등에 의한 운과 관련된 요소도 합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준비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서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수험생 분들이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회계학1부 100점! 공부방법과 마음가짐

우 지 인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안녕하세요. 저는 제 5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우지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또 도전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합격 수기가 새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다시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부 방법과 마음가짐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1. 마음가짐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마음가짐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1차 시험과 동차 시험을 공부하면서도는 조금 안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적은 시간 공부해도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동차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얼마나 제가 겸손하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에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전효진 변호사님의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시험에서 붙느냐 떨어지느냐 오직 숫자의 차이다. 즉, 공부 시간의 차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매일 매일을 시험 전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시험 전날에 하지 않을 일이라면 오늘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최소 10시간 이상 최선을 다해 공부한다면 누구든지 합격의 기쁨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공부 방법

(1) 회계학 1부(100점)

회계학 1부는 1차 시험에서는 과락율과 난이도가 높은 과목에 속하지만 2차로 넘어가면 가장 쉬운 과목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90점을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하면 6시간 정도는 회계학 1부에 투자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되 처음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풀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서를 읽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서를 먼저 읽고 문제를 풀면 풀이 방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면서 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문제 풀이를 노트에 따로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답안지에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문제 풀이 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회독을 할 때마다 틀을 기억해 내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노트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풀이 방법을 적어 놓는 것은 기억을 회복하는 시간을 줄여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 회계학 2부 (47점)

저는 동차 시험 기간에 회계학 2부 공부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유예 기간에는 시간을 조금 투자하였지만 회계학 2부도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학 2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법 개론과 2차 연습서에 나와 있는 정리도 좋지만 시험 직전 일주일간 전과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자신만의 정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민 회계사님이 판서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알게되는 내용들을 덧붙여서 이론을 단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계학 1부와 마찬가지로 문제 풀이 틀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노트에 풀이 틀을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 직전 쉬는 시간에 본 문제 풀이 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계학 2부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여 풀어보는 것이 실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세법학 1부 (41점)

세법학 1부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법 조항과 관련된 판례를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학은 처음에는 임팩트로 공부하다가 시험 2달 전쯤 코어에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세법학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책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봤을 때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법령의 위치까지 통째로 외우는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형광펜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유튜브에서 이윤규 변호사의 '책을 통째로 외우는 방법'을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정리를 한 뒤에는 책을 10번 읽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3번 정도는 그냥 읽어 보았고, 그 이후에는 암기를 시도했습니다. 적으면서 외우면 가장 완벽하게 외워지겠지만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제 하나를 읽은 뒤 손으로 가리고 떠올려 보는 방식으로 암기했습니다.

또한, 판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코어에 없는 판례를 적어 놓기도 하고 판례 옆에는 포스트잇을 붙여놓았습니다. 포스트잇에는 그 판례가 시험에 나올 경우에 답안지에 적을 내용을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책을 그냥 읽으면서도 시험에 이 판례가 나오면 어떻게 쓸지를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4) 세법학 2부 (55점)

세법학 2부는 1부 보다는 판례의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일부 세목은 세법학 1부처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학 2부의 단순 암기는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는 혼자만의 싸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법학 2부도 10번 읽는 것을 목표로 했고 단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으면서 읽은 부분을 손으로 가리고 말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세법은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나는 혹시 바보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전에 본건데 오후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번 외운 것도 잊어버리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지만 망각이라는 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인정하면서 참고 계속 공부하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 공부는 빛이 보일 때까지 혼자 긴 터널을 걸어가는 것처럼 외롭고 긴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합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전공, 실무경험 無. 효율적인 수강으로 최종합격

임 소 민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공부는 어렵고 하지 싫은 것 인줄만 알았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세무사 시험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고통스러운 만큼 실력은 쌓이고 합격에 다가 쉽니다. 그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사항>

1. 비전공 및 실무 경험 무
2. 1차, 2차 각각 1년씩 목표하여 합격
3. 아이파 전체 교육과정 (1차 종합반 => 유예1,2,3기) 온라인으로만 학습

* 마음가짐

1차 법 (민법/상법/행소법) 과목 선택을 위한 민일 선생님의 Pre 특강으로 법 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었지만 학원가에 오래 계신 선배로서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으로 시험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정립하여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공부 습관, 시간이 안되더라도 단 30분이라도 공부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 1차

모든 과목이 체계는 처음인지라 얼마나 강의를 따라 갈 수 있을 지를 몰라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강의 (무료강의 포함) 는 모두 들었습니다.

특히 재정학은 처음 들어본 학문인지라 재정학의 사전학습으로 미시경제학을 3회독이나 하였습니다. 황정빈 선생님의 열의와 정성스런 강의를 믿고 따라간 결과 두려움은 극복되고 재정학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차 시험에서 잊을 수 없는 노희양 선생님의 세법개론은 정신 없이 헤매고 있던 세법에 대해 기초를 다지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절한 비유,

상황극 거기에 선생님의 위트가 더해져 개념을 이해하기 좋은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이는 단지 1차 시험에 국한되지 않고 2차 세법학의 암기나 논술을 전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노희양 선생님의 세법개론 수업 꼭 추천 드립니다.

* 2차 (유예)

-재무회계 : 가장 취약한 과목이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기에 시험장 들어 가면서 긴장했던 과목입니다. 회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외워 회독을 늘리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김강호 선생님과 원광진 선생님의 강의 조합이 다각도로 문제를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문제 다른 접근법이 있으면 그 차이를 좋이에 그려가며 비교해 보세요. 같은 원리에 맞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올라가고 새로운 문제를 접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원가회계 : 1차때 이남재 선생님 수업으로 이미 원가 회계에 흥미를 붙였고 2차때 최경민 선생님 수업으로 자신감으로 더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최경민 선생님에 대해 “뽕뽕이 스머프”라는 별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원리를 얼마나 뽕뽕하게 에너지 넘치게 잘 설명하는지, 본인이 몰랐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채워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무회계 : 2차를 준비하면서 어느 과목 하나 만만하지 않지만 세무회계는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장민 선생님의 교재가 과하지 않게 기본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정답 풀이 과정이 간단 명료해서 좋았습니다. 유예 1,2,3기의 모의고사는 기본에서 살을 붙여 실력을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신 없이 시간에 쫓기며 힘들게 혼자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과정을 이겨내고 시험장 들어 갔더니 이 과목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법학 1,2부 : 다들 그러하듯이 “세법학 공부 어찌 해야 하나?”

- 첫째, 암기하세요. 특히 선생님이 시키는 것 더 암기하세요. 전 학교 다닐 때

암기 과목 너무 싫었습니다. 외우고 뒤돌아 서서 잊어버리더라도 외우시고 한 줄이라도 더 외우세요. 처음에 시작 할 때는 입으로 외우고 조금이라도 머리에 남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글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글로 써봐야 막히는 부분, 틀린 부분,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고 분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 둘째, 틀(취지, 관련규정, 필자의 견해, 결어 등등)을 주제별로 잘 이해하여 그 틀을 채우려고 노력하세요. 나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들어 갈 때 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셋째, 김재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효율적입니다. 모의고사에서 나온 주제들을 모두 소화 한다면 세법학 1,2부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마지막으로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가정으로 논리를 전개하시면 크지 않아도 소중한 점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을 마무리 하면서**

온라인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 학원 직원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절은 기본, 학원 운영시간 언제든 전화를 해도 응대가 즉각적이고 필요한 부분 빠르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좋은 강사진, 효율적인 운영진, 한번도 뺏지는 못했지만 영리가 전부가 아닌 따뜻한 경영 철학을 갖춘 원장님 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목표한 기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취득 후 세무사 합격까지! 40대 비전공자

이 수 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다가 30대 후반에 과연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건강도 많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었고, 성격상 편안하게 쉴 수만은 없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 업무를 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공부하다가 아이파경영아카데미 학원 강의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단지 제가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기왕 강의 듣기 시작한 거 세무사에도 한 번 시작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차 시험은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해서인지, 일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1차 시험 준비하면서 세법학 강종철 교수님과 상법 민일 교수님의 강의를 참 좋았습니다.

강종철 교수님은 강의를 하면서, 암기가 쉽도록,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설명해줍니다. 강종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세법이 참 재미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겁도 없이 세무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비전공자라던가,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 세무사라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강종철 교수님의 위트 있는 강의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하지 않더라도 민일 교수님의 수업을 열심히 듣기만 하더라도 상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최고의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민일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멘탈 관리에 도움 되는 말씀들 해주실 때 참 좋았습니다. 제 방 벽에는 힘든 수험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좋은 문장들을 써서 붙여두었는데, 그 중에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말씀주신 문장도 있습니다. “시험에는 운이 작용한다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운이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점수가 영향받는 걸 최소화하려면 평소 공부를 꾸준히 해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험생활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인데, 힘들 때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해주신 좋은 말씀들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은 일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아주 아슬아슬한 성적으로 운이 좋게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2차 동차때는 당연히 실력 부족으로 불합격했습니다.

저는 3차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작년 2차 유예 때 불합격하는 바람에 올해 토익시험부터 1차, 2차 시험을 다시 다 봤습니다. 제가 3차 준비를 하면서, 2차 유예 때 불합격했던 원인을 분석해보니,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강박적 사고에 기한 불안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1,2차 동차보다는 2차 유예 때 합격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동차 때 불합격한 것은 “그래,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유예때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겠지”하고 쿨하게 인정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많이 불안하게 됩니다. 이때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파경영아카데미 학원의 장점은 시간이 많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각 시험에서 중요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훑는 정도로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2차 유예가 되면 교수님께서 그렇게 가볍게 지나간 것도 정독하며 반복해서 공부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만약 시간이 많은 분이라면, 더 넓은 범위를 공부하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차 유예를 준비하던 때는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시험이 4개월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괜한 불안감에 시험에 만나올 법한 것들도 혼자서 공부하는 바람에 이도저도 안되었거든요.

세무회계 장민 교수님께서서는 각 항목들의 세무조정에 대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매번 풀이하는 문제는 다르지만,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계산방법으로 푸는 것이므로,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1차 공부할 때는 강종철 교수님에게서 듣고, 2차 공부 때부터 장민 교수님에게서 듣다 보니, 처음에는 장민 교수님의 풀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빨리 이해해야겠다는 욕심을 좀 버리고 편안하게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풀면 속도가 빨라져서, 세무회계 시험 볼 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법학 김재상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의하시는 내용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고개를 가웃거리며, “시험에 만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눈도장은 찍고 가세요.”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훑어는 보고 가세요. 저는 2차 시험을 3번 보면서 매번 시험 때마다 김재상 교수님께서 참 족집게구나,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세법학은 나중에 합격하고 필드에서 일을 하다보면, 세법학 공부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수습으로 일을 하면서 교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모의고사 답안지에 있는 관련 판례들을 잘 정리해주세요. 시험 뿐만 아니라 합격 이후에도 나만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세무사 합격수기

저는 어느새 40대 중반을 향해 갑니다. 예전 직장 다니면서 세무 관련 업무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수습처를 구했고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세무사 합격해도 당장 수습처를 구할 수 있을까, 수습 끝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을까 등등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다 기우입니다. 너무 늦은 때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무사학원 교수님을 믿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직장인 합격수기, AICPA취득 & 세무사합격까지

강 덕 구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안녕하십니까. 제 5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19년 5월께부터 시작한 세무사 시험준비를 직장인의 신분으로 주중/주말에 별다른 휴식없이 계속 공부하는 것에 지쳐가기도 했고, 22년에는 첫 아기도 태어날 예정이라 이번에 떨어진다면 1차부터 다시 준비하는 것은 아내와 태어날 아이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하였는데, 이렇게 합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아이파경영아카데미와 함께 세무사에 도전하실 수험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합격수기를 남깁니다.

1. 세무사 시험의 시작

저는 대학 졸업 후 10여년간 대기업 재무팀에서 근무하였고, 또 동 기간동안 직장을 4-5번 이직하였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동안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닌 이유는 이직 당시에는 급여, 복지, 사람등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돌이켜 보면 그런 외부적인 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주도적으로 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회사를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하여도 회사의 소속된 사람으로써 그런 목표를 이루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 갔고, 더 늦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과 연관되어 있는 세무사 자격증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동차 실패

세무사 시험을 시작하기 전 회사에 재직하면서 AICPA 자격증을 취득하였던 경험이 있어서 재무회계/원가회계등에서는 나름 기본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관련 자격증을 이미 취득해본 터라 회사에 다니면서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

올적 공부에 대한 자만심은 1차합격 및 2차동차를 준비하면서 공부할 양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더 짊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 동차기 때문에 전부다 할 순 없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핑계로 2차 시험을 앞두고 재무회계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챗터는 과감히(?) 버렸고, 조특법 같은 경우에도 주요주제 10개정도만 외우고 2차시험을 치르는 요행을 바란 결과, 과락은 없었지만 골고루 낮은 점수를 받는 성적으로 동차 시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3. 유예시작

유예는 버리는게 없어야 한다는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선생님들의 말씀을 기본으로, 주중에는 4~5시간 / 주말에는 10시간은 무조건 공부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2차시험 전까지 재무/원가회계 10회독, 세무회계 20회독, 세법학 10회독을 한다는 목표를 세워 하루에 해야할 양을 역산하여 반드시 그 양을 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채워 나갔습니다. 전업수험생과 비교하여 시간이 부족하지만, 세무사 시험이 만점을 요구하는 시험은 아니고 과락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습에서도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기에, 동차에서 넘지 못한 그 임계점을 유예에서는 넘을 수 있도록 양을 설정하고 하루하루 체크했던 것이 직장공부와 병행할 수 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4. 과목별 공부방법

* 회계학1부

7회독까지는 이론 Summary를 보고, 기본서/연습서 문제를 푸는 순서대로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론을 먼저 보고, 해당 이론이 어떻게 문제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많이 연습했었고, 나머지 3회독은 이론없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풀리지 않거나 애매한 부분들은 다시 이론을 보고 문제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어떤걸 내가 오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반복 공부를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김강호 선생님/ 최경민 선생님이 자세히 풀어주시는 풀이 방법등을 별도로 정리해 놓고, 문제를 풀 때 풀이방법을 다시 정리해보는 방법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회계학 2부

직장인들에게는 장민선생님의 강의가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고 자부합니다. 핵심주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강의 초반에는 따라가기 버거운 점도 있었으나 강의 후 해당 문제를 제 나름대로 다시 여러 번 풀어보고 장민선생님의 강의를 다시 들으면 무언가 복잡했던 체계가 머릿속에 정립이 딱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세무회계는 선생님 강의가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여러 번 반복하여 숙달하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법학 1,2부

회독을 하면서 일단 목차를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무작정 읽다보면 너무나 세세한 내용에 방향을 잃게 마련인데, 목차를 외워 세법 체계정립 및 어느것이 중요한 주제인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김재상 선생님께서 주요 논점등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고 주요 판례에 대해서도 머리에 잘 들어올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 강의해 주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라는데로만 따라가면 방대한 세법학 공부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3) 세법학1부(62점)

세법학1부는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로 나뉘는데, 2부에 비해서 공부하기 수월했습니다. 상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을 1차에서 공부한 덕분에 꽤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는 세무회계에서도 다루지므로 저는 국세기본법과 상증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기본서를 보지 않고 학원교재인 세법학M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 책을 학원에서 한 복습까지 포함해 약 10회독 하였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다보니 나중에 한 세목당 3시간 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상증세 생소하여 학원 강의를 듣고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법학 1,2부 모두 7월이 되기 전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GS세법학모의고사집을 사서 모범답안을 보고, 학원에서 답안 쓰는 요령을 배워서, 6월말부터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물론 시

간을 정확히 재고 풀었고, 무조건 10페이지 이상은 채웠습니다.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답안지 쓰는 요령도 점점 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항상 실전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시험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4) 세법학2부(47점)

세법학2부는 부가가치세, 지방세,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다 2차에서 처음 접하는 세목들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차에서 많이 준비한 것도 있어서 많이 하지는 않고 개정된 것과 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증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지방세와 개별소비세는 양이 적어서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전부암기하려 노력했고 지방세는 암기와 함께 학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판례를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조특법은 계속 공부안하다가 시험 2주전부터 봤습니다. 조특법이 많이 걱정되지만 그 많은 양을 공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나머지 부가가치세, 지방세, 개별소비세를 확실하게 공부하였습니다. 조특법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짚어준 문제만 완벽하게 습득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훑어보고 바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시험문제에서는 조특법이 25점 배점에, 전혀 모르는 것이 나와 당황했지만, 저는 그래도 답을 2쪽 이상 썼습니다. 그냥 문제 자체를 제 식대로 풀어쓰고, 생각나는 것을 막 적었는데, 운 좋게 과락을 넘긴 것을 보면, 조특법이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5. 마치며

여러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 수험생으로써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즉 간절함일 것 같습니다. 간절하지 않다면 2-3년의 수험기간을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유지하기란 절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하고 나서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 이후 간절함을 가지고 아이파경영아카데미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0대 비전공 직장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최종 합격까지(2년6개월)

손 동 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1. 세무사 시험준비에 들어가며

현재 저는 30대 중후반 8년차 직장인으로 2021년 58회 세무사 시험(2차 유예)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사실 직장인으로서 시험을 도전하는 결심을 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둘 있는데 당분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든 점, 시험을 준비 했을 때 '과연 합격 할 수 있을까'하는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선뜻 시험에 뛰어들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러다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무사 시험 설명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9년 3월 아이파에서 처음 세무사 시험 설명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저 같은 직장인에게 아이파 학원의 커리큘럼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강의 듣는 시간을 내 공부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하면서 자기 공부시간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같이 설명회를 들은 아내도 저에게 한번 도전 해보자고 용기를 주었고 19년 4월 부터 시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2. 2020년 1차 & 2차 동차 시험

저는 세무회계 관련 비전공자(공학계열 전공)로서 1차 시험준비 시작 당시 회계에서 '차변/대변'이라는 용어 조차도 모르는 상태인 말 그대로 백지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1차 시험 강의 일정은 학원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선행과목인 '회계원리'와 '미시 경제학'부터 온라인으로 강의를 차례차례 수강하였습니다.

실감이 아닌 온라인 강의를 택한 이유는 원하는 시간에 수강이 가능하고, 재생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이동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기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으로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든 과목은 '강의 종료 직후 1회 복습, 1주일 내 3회 복습을 하자'라는 기계적인 원칙을 세워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이해하기 힘들거나 어려웠던 부분은 따로 복습 회수를 중간중간 더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눈과 손에 익숙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회독을 할 때 시간을 상당히 절약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세법의 경우 2차를 대비하는 목적과 1차 합격의 안정적 점수 확보를 목적으로

장민 선생님의 세무회계연습 법인세편에 대한 전년도 동차강의를 따로 수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세무회계연습 법인세편을 1차 준비 시 진행한다면 1차 시험은 여유롭게 합격 할 가능성이 높고 2차 동차 준비시에도 굉장히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20년 시험은 1,2차 시험이 4개월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1차 시험이 연기되기 전에 테스트 하였던 모의고사로 현재 수준으로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시험 연기 공지가 내려오자마자 작년(19년) 2차 동차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연기된 1차 시험 10일 전까지 2차 동차강의 수강을 완료한 뒤, 남은 10일 동안 1차 시험을 최종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차 시험 직후 진행 된 20년 2차 동차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19년 2차 동차 강의를 선행으로 진행하였기에 복습에 좀 더 중점을 두고 2차 동차 기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2차 동차 시험은 평균과락으로 떨어졌지만 2차 동차 기간을 동차로 합격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보냈기에 이후 유예기간을 보내는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2021년 2차 유예 시험

코로나로 연기된 2차 동차 시험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유예반이 바로 진행이 되어 특별한 공백 기간 없이 2차 유예 모드로 바로 전환하였습니다. 아무래도 2차 유예반은 시험+강평으로 강의가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듣는 것 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시험을 보고 강평을 듣는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온라인 강의가 아닌 실강을 택했습니다.

(1) 회계(김강호/원광진 선생님)

2차 유예기간 동안 회계과목의 공부 목표는 정답률을 높여 2차 평균점수를 끌어 올리는 전략 과목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습서를 계속적으로 회독하는 것을 기초로 김강호/원광진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모의 시험을 통해 저의 문제 해결능력 수준을 파악 하였습니다. 연습서는 지속적인 반복 숙달로 인해 연습서만으로 문제해결 능력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내주신 모의 시험 문제들은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 어떤 부분은 꼭 고려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선생님들만의 노하우와 고민이 담겨져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자신이 있는 챗터라 하더라도 꼭 틀리는 부분이 나왔고 그런 부분을 통해 제 자신이 기본서를 너무 대충 이해하고 있었다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의 시험 오답 노트와 기본서의 개념들을 매칭해서 해당 부분의 기본서, 모의 시험, 연습서를 다시 반복하는 방식으로 유예기간을 보냈고 그 덕분에 2차 시험일이 다가 올 수록 '회계는 전략과목이다' 라는 확신을 제 자신에게 더 확고하게 심어 줄 수 있었습니다.

(2) 원가회계(최경민 선생님)

2차 유예기간 동안 원가회계의 공부 목표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평균점수를 끌어 올리는 전략 과목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 했습니다. 최경민 선생님께서는 항상 원가회계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정리가 핵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자료 정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도와 주셨습니다. 기존에 기계적으로 반복하던 연습서의 문제들을 최경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다시 회독을 하는 방식으로 연습서를 반복 숙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 시험을 통해 기존에 연습서에서 접해 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의 범위를 점점 넓혀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가회계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실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전략과목이 되었습니다.

(3) 세무회계(장민 선생님)

개인적으로 세무회계란 과목은 문제 풀이과정이 재미 있었고 큰 사이즈의 문제를 풀었을 때 성취감 같은 것들이 있어 저의 도전 의식을 고취 시키기에 2차 시험 대상 과목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학 1부 만큼 점수가 나오지는 않는 과목이었기에 유예기간 동안 세무회계 점수를 끌어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장민 선생님은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들을 정확히 캐치 할 수 있는 눈을 길러 주셨고 문제 풀이 방식을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본인 만의 노하우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세무회계연습 1,2권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문제풀이 감을 계속 끌어 올리는 동시에 모의 시험에서 어렵거나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문제들과 반복적으로 실수 하는 부분을 모아 다시 반복 숙달 하는 방식으로 유예기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계학 1부 보다는 적은 점수를 얻었지만 실전에 임할 때 만큼은 회계학 1부 못지 않게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4) 세법학(김재상 선생님)

세법학은 2차 유예기간 동안 '과연 내가 세무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제 스스로 반복하게 한 과목으로 저에게는 높은 벽 같은 과목이었습니다. 답안지 작성이 상당히 중요한 세법학은 저에게 굉장히 불리 했는데 그 이유는 제 필기속도가 상당히 느림과 동시에 굉장한 악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악필은 단기간에 교정하기도 쉽지 않고 정성들여 쓰다가도 시간이 부족해지면 다시 글씨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험 기간동안 악필을 교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김재상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답안 작성 포맷을 항상 염두해 두고 채점자의 가독성을 최대한 높이는데 집중함과 동시에 세법학 기본서 회독을 최대한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재상 선생님께서는 모의 시험 이후에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답안지 내용과 형식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주셨고 그런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저는 매번의 모의 시험에 개선점들을 연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복 과정으로 GS 3순환이 모두 끝나고 두번의 모의 고사를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실전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5. 정리

저는 직장인으로서 2019년 4월 수험생활을 시작하여 2021년 9월 2차 유예 시험까지 약 2년 6개월 수험 기간을 통해 세무사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수험기간 전에 즐겼던 취미, 각종 모임 등은 수험기간 동안 모두 뒤로 미루어 놓고 오직 합격을 위해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불평과 자책을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절박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직장인으로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 최대한 적응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의 공부를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선물처럼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합격수기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다른 직장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의 신분에서 전업수험생으로 도전기!

김희수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안녕하세요.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무사 유예반 합격자 김희수입니다. 직장인 신분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도전하였고, 될 때까지 도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여 마침내 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2월 1일 합격소식을 큐넷에서 확인하고, 사실 될 게 되었다는 생각이었지만 채점결과에 논란이 있는 시험이라 씁쓸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 논란의 피해자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되어서이지요. 하지만, 이제 수습처에서 실무수습을 받으며 거래처 영업도 하고 있는 지금, 불합리한 점들은 이제 잊고 전문가격사로서 직장인 신분의 족쇄를 끊은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쓰는 이 글이, 직장인 신분으로 이 시험에 도전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어느 방향으로라도 지침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른 합격자분들의 합격수기에서 공통된 과목별 공부노하우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언급해 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합격자 신분이 될 수 있었는가 위주로 내용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1. 시험준비와 관련된 기간

실질적인 준비기간: 2017년 5월 ~ 2021년 8월

근로자 신분으로서 준비기간: 2017년 5월 ~ 2020년 9월

최초 1차 합격연도: 2019년

2차시험 실제 응시횟수: 2회

2. 간단한 이력

전공: 국어국문/컴퓨터 (부전공 경영)

2003년 8월부터 근로자 신분으로 사회생활 시작

경험업무: 기획, 재무, 해외영업, 경영혁신 등

3. 왜 직장인 상태에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가

- I. 직장인으로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책임전가하며 살아남는 상사들을 보며 저것이 결국 미래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 II. 사내정치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잔여 근무연한이 정해진다는 사실에 직장인 상태로는 꾸준한 현금유입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였습니다.
- III. 오너와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오너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세금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의사결정을 조언하거나 최말단에 있는 세무사의 삶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접점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인생 2막으로 세무사라는 직업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 세무사 시험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는가

- I. 가장 가치있고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이것을 믿고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보내는 시간은 내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수없이 되뇌이며 책을 펴고 공부했습니다.
- II. 내 자신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끝까지 펜을 놓지 않고 도전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유명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될 수 없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5. 공부량 관련

I. 직장인 신분으로서 공부량

① 평일 공부량

평일에는 점심시간 1시간을 동영상강의 시청에 썼으며, 6시반 퇴근 이후 근무지 인근 도서관에서 7시~10시까지 공부하였고 집에 11시반에 도착하면 30분~1시간 마무리 공부를 하거나 동영상 진도를 나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식은 아예 안 나갔습니다. 사실 불러주지도 않았다는 것이 더 맞는 부분일지도 모르겠군요. 다만, 주종을 불문하고 한잔 마시면 하루

공부량을, 한병 마시면 일주일 공부량을, 술자리 파하고 일어나면 한달 공부량을 되돌리는 수준의 피해가 있음을 경험상 체득하였기 때문에 술자리는 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② 주말 공부량

학원 강의가 있을 때에는 주말에 강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집합교육이 불가한 기간 동안 동영상 강의로 대체된 때에는 1.2배속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복습 위주로 공부스케줄을 잡았습니다. 토, 일 최소 8시간은 한 것 같네요.

③ 기타

피로감이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에는 커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마실 때에는 부지불식간에 아메리카노 20잔 마신 적도 있었네요. 그런 날은 잠을 잘 수 없어서 엄청 고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것을 견디다 못해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런닝머신 30분 정도 13 ~ 15km를 뛰어 지구력을 늘리고 윗몸일으키기와 누워다리를 50회씩 하여 허리힘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영양제는 따로 챙기지 않는았는데, 비타민 D는 꼬박꼬박 챙겼네요. 이거는 먹고 안먹고가 차이가 참 큽니다.

II. 퇴직 후 공부량

쉬는 날 없이 12시간씩 했습니다. 돌아볼 것도 없고,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지요. 요즘같이 공부하기 힘든 시절에도 어떻게든 책을 펴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실하니까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말에 학원 강의 수강하는 시간에 나 조금씩 쉬는 기분으로 휴식량 채운 것 같습니다.

III. 회독수?

제 회독수는 언젠가부터 세지 않았습니다. 의미도 없고, 회독수 채우는 데 급급하여 주말간산격으로 넘기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구요.

다만, 시험 전 1주일 동안 전체 범위를 한 번 이상 정리할 수 있다면 합격권에 있다는 김재상선생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백워드 스케줄링으로 대략적인 공부일정을 잡았습니다.

IV. 직장인 하루 공부량?

국가자격시험은 평균적인 직장인 수준에서 열심히 했다고 따로 뽑아 주지 않습니다. 이 한 마디를 이해 못하시면 아마 영원히 합격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사시겠지요. 올해의 논란은 논외로 합시다.

다만, 하루 네시간도 공부하지 않으면 그날은 공부 안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V. 스터디 관련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초시 1차 때 스터디 인원 모두 불합격했고, 저 말고 모두 포기했으니까요.

6. 1차 시험 관련

- I. 혹시 전업으로 하시려고 해도, 1차 시험은 합격 후 전업수험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 II. 선택법은 달달 암기하고 있어야 하고, 재정학은 계산문제에 매달리지 마세요. 나머지는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제발.
- III. 공부한 부분 중 시험 전에 버릴 부분은 시험 한달 전에 골라내야 합니다. 자꾸 어딜 버려야 하나 문의하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버리면 버릴수록 합격자 명단에서 내 수험번호도 버려지게 됩니다.”
- IV. 어설픈 1차 합격(4488전략 같은)은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또는 가다 포기하지요. 최종합격하지 못하면, 결국 세법지식이 휘발되기 때문에 그동안 투여한 시간은 매몰비용이 됩니다.
- V. 모의고사는 제한시간 내 내가 얼마나 알고 답 쓰는지 감 잡는 외 의미두시면 안돼요.

7. 2차 시험 관련

- I. 문제는 순서대로 풀어 나가시는 게 안전해요. 모르는 문제는 답 쓸만큼 띄어 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문제풀이 순서가 바뀌면 점수가 아예 안 들어가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시험에 제가 그랬어요.
- II. 회계학 1부에서 점수 얻지 못하면 점수를 얻을 과목은 없는 거 같네요. 올해도 조작시험이라고 말 많지만, 회계학 1부는 과락률이 제일 낮았지요.

- III. 회계학 2부는 법인세에서 점수 딸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야 합니다. 회계학 2부야말로 제일 정직한 과목이지요.
- IV. 세법학은, 그냥 기도합니다. 팔이 빠지도록 쓰고 외워야 합니다. 조특법 버리면 안됩니다. 조특법을 버리고 합격한 합격수기 연도를 확인하시면, 지금에도 저게 들어맞는 내용인지 합리적 의심을 한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하네요. 김재상선생님 말씀하시는 답안작성요령 꼭 익히세요. 유예 2순환 넘겨 작성요령 연습하려 덤벼들면 안 됩니다.
- V. 학원의 2차 강의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차생이라면, 조특법 버리지 말고 유예강의에서 필수암기리스트는 눈도장이라도 찍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8.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 I. 선생님을 믿고 따라라
 학원에 오신 이유가 이것 아닐까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는 하고 왈가왈부 합시다.
- II. 절실하게 달라붙어라
 김재상선생님께서 2차 수업때 하신 말씀 중에 이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최소한 이 시험에서 절실함만이라도 700등 안에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든 수를 낼 것이다.”
- III. 회독수에 강의시수를 포함하면 안됨
 강의시간에 진도 나가는 것은 회독수에 포함하면 안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펜을 잡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내 공부량에 포함된다면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네요.
- IV. 관리회계 외에는 암기가 왕도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재무회계도 말문제, 외꾸는 암기가 되어야 하죠. 세무회계도 결국에는 과세표준 산출식 암기, 세액공제 암기, 세무조정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일 뿐입니다. 암기하면 이 해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줄은 몰랐네요.

V. 책을 펴라, 네시간 채워라

어떤 상황에서도 책을 펴고 하루 공부량 네시간 이상 채워야 합니다. 강의 시간은 제외하세요.

이정도 상황에서도 이만큼 했으니 나를 칭찬해 / 오늘은 다른 일로 힘들었으니 나를 위로해야 되겠어 / 졸려서 못하겠으니 내일을 위하여 책은 잠시 미루자 이러시는 분들은 “합격자명단도 나에게 수고한 만큼은 칭찬해주고 올해는 위로를 하지만 내년을 기약하라고 알려주게 됨을 명심하세요.”

VI. 2차 유예때에는 무조건 답안지를 들고 나가서 선생님과 친해져라

답안지 확인 받으세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수정사항을 꼭 반영하려고 노력하세요. 자기 고집대로 답안지 쓰면 합격자 명단도 합격자 명단 고집대로 그 안에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수강하셨다면 선생님과 친해지세요. 선생님들도 다 같이 이 어려운 과정 거치셨기 때문에, 잔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려모로 선생님께 의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무회계와 세법학은 선생님과 친해지시는 것이 여러 모로 성적향상에 도움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VII. 똥동차는 있기는 있다. 하지만...

본인이 이전에 세무사 관련 공부를 깊게 했거나, 소주 한 병 이상 들이키는 회식 이후에도 공부가 가능할 정도로 우수한 암기력을 가졌거나,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근무시간에 공부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직장인 신분으로 상상할 수 범위에 있는 공부량으로는 똥동차는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각고의 노력 “이성”으로 노력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면, 기대하지 맙시다.

9. 제 나름대로 간략한 2차 강의 총평

I. 재무회계

김강호선생님은 아이파의 영원한 재무회계 기둥이십니다. 분명히 직장인 강의 1타이실 텐데, 전업수험생들 머릿수가 워낙 많으니 명성이 드러나기 어려우신 게 아닌지. 원광진선생님 강의는 그동안 재무회계의 연결고리가 부실했던 부분을 꼭꼭 채워주시고, 이해 안되는 분께까지 다 챙겨주셔서 그

덕분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 수업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분 상성이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II. 관리회계

최경민선생님 믿고 갑시다. 선생님은 의심할 여지없이 어느 곳에서도 1타 이십니다.

III. 세무회계

장민선생님 정리해주는 것이 시험범위입니다. 왜 판 데 기웃거리다 자 멸하시나요?

세무회계 과목 특성상 자꾸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장민선생님 강의는 필요한 부분만 엄선하여 다듬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소득세 문제는 장민선생님 유예 2기 GS 4회차 소득세 문제에서 이미 경험 해 본 문제이지요.

장민선생님의 가이드라인 부분 이상 세무회계를 하느니 조특법을 외우는 것이 합격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특법은 무슨 배짱 으로들 안 외우시나요?

다만, 시험 전 5년간의 기출문제는 별도로 풀어보면서 시험장에서 보이면 버릴 부분을 따로 정리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IV. 세법학

김재상선생님은 이제 작두를 타셔도 될 듯.

조특법만 해도 2019년 농지대토와 대토보상, 2020년 법인전환, 2021년 창업증여/가업증여 모두 필수암기리스트에 있었습니다.

국기법도 올해는 세무조사 쪽이 나오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집중적으로 암기했지요.

그 외에도, 이진 폭 좀 보고 가자 한 주제는 거의 다 시험지에서 본 거 같습니다.

덕분에 이 논란 많은 시험에서, 세법학에서 여유 있는 점수를 받아 합격하였습니다.

10. 하고 싶은 말들

- I. 이 시험, 끝까지 가기에는 너무 외롭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이라면 선생님과 꼭 친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스터디하신다면, 동료 수강생보다는 선생님과 스터디 한다는 기분으로 수업시간을 채우시는 게 어떨까요.
- II. 퇴직 후 전업으로 매진하는 수험기간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지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축 열심히 하시고 전업수험생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이 있다가 없어진다면 그 자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계좌에서 생활비 빠져나가는 것이 월급받는 때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업수험생이 되기 전에 1차 합격이 필수요건인가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본인의 정신력이 강하지 않다 생각되면 필수요건이라 보시는 게 좋겠네요. 말인즉슨, 1차 통과하고 전업수험생으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 III. 자격증 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기 나름입니다. 수습세무사인 저도 벌써 간이과세자 거래처 하나 뚫었으니까요.
- IV. 포기하지 않고 저 관문을 통과하여 필드에서 웃으며 만날 수 있는 동료 세무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하고 서로 의지가 됩시다.

건승을 빕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최종 합격, 50대 후반(64년생) 직장인

백영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 Intro

내 삶의 1부는 썩 만족스럽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새로운 도전은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게 아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문제는 용기다."

하지만 막상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1부를 접고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굳게 맘을 먹어도 선택지는 의외로 적다. 삶의 1부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2부란 공허하기 마련이다. 적어도 나에게 새로운 시도란 과거에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일, 그나마 내가 가장 자신 있었던 부분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회계학을 전공했고, 회계학에 상당히 익숙했던 이력과 함께 평생 공부에 매달렸던 과거 그리고 50대 중반이라는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세무사시험에 도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처음 시작할 때 회계학은 장차 전략과목이 될 거라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 56회 1차 시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2018년 6월쯤 난생 처음 토익시험을 치렀다. RC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한 달 정도 LC에 집중하고 860점대 중반을 받아 어렵지 않게 1차 관문은 통과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세무사강의 전문 학원을 물색했다. 2018년 7월 경 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500일 합격보장 종합강의로 결정했다. 한 때 서초동에서 살았던 점, 가격, 그리고 브랜드네임 등이 결정의 배경이었다.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100% 온라인에 의존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과목들은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세법개론은 충격이었다. 논리와는 거리가 멀었고, 거의 모든 것이 암기해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함과 동시에 과연 세법을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었다. 계속 읽고

쓰다 보면 익숙해져서 어려움이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과거의 경험에 기대는 수밖에 없었다.

모든 과목을 세 번 이상 동영상 강의를 듣고, 세법개론은 아마도 5번 이상 들었던 것 같다. 물론 기본서도 여러 차례 숙독했다.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평균 평일은 적어도 6시간 주말은 10시간 이상 듣고 읽고 풀기를 반복했다.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전자계산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흔히 독수리타법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다 보니 계산이 조금만 복잡해도 제대로 두드렸는지 항상 불안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58회 2차 유예 시험을 보는 순간까지도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2019년 56회 1차 시험이 가까워지자 세법개론에서 계산문제는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기타 암기 세목에 집중했다. 전략은 주요했다. 가장 어렵게 느꼈던 세법개론은 과락을 면했다. 복병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회계학이었다. 시간 배분에 완벽하게 실패했다. 절반도 풀지 못한 상태에서 5분 남겨 놓고 나머지를 모두 찍었다. 결과는 보나마나 불합격이었다.

• 57회 1차 시험

57회 1차 시험 준비는 56회 1차 시험 치른 다음 날부터 시작했다. 500일 합격 보장 종합강의 덕분에 선택의 불확실성은 없었다. 나에게 코로나 유행은 문제가 아니었다. 다시 듣고 읽고 풀고 하는 과정을 더 가열차게 반복했다. 1년 정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이 남아 있다는 생각에 가장 어렵다는 세무회계도 틈이 들어 다보았다. 미래의 2차 시험 과목 중에 가장 어렵다는 세무회계를 예습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위안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어렵고 생소했던 세법개론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세법개론이 익숙해지자 57회 1차는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조금씩 늘어갔다. 하지만 전자계산기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시험이 가까워지자 또 다시 전략적으로 기타 세목에 집중했다.

57회 1차 시험, 1교시 재정학과 세법개론은 성공적이었다. 가장 두려웠던 세법개론은 후반에 기타 세목에 집중했던 전략 덕분에 계산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

를 제법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계산 문제도 몇 문제 건졌다. 세법개론에서 '말문제'가 당락을 가른다는 세간의 소문은 내 경험상 사실이었다. 2교시 회계학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비록 56회 1차 시험에서는 실패했지만 시간 안배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57회 시험에서도 도저히 시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행정소송법을 25분 만에 해결하고 55분의 시간을 남겨두고 회계학을 풀기 시작했지만 5분 남겨두고 무려 13~14문제 정도를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었다. 할 수 없이 모두 3번을 찍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 세무사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답안을 확인했다. 천운이었다. 무작정 3번으로 찍은 문제 중 4문제를 건졌다. 그 덕분에 과락을 겨우 2문제 차이로 넘겼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험기간 동안 최대의 고비가 되는 순간이었다.

• 57회 2차 (동차) 시험

2차 동차 시험은 한 번 경험해본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 합격하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차 시험도 역시 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동차 온라인 강의를 선택했다. 세무회계와 세법학 1, 2부는 동차 기간 내에 일정한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다. 반복해서 듣고 읽고 푸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반면에 회계학 1부는 문항 수가 줄기 때문에 시간 안배에 따른 대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솔직하게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의 포기했다. 아무리 준비해도 운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오래 공부한 사람이나 단 시간에 몇 테마를 뽑아서 극히 선택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나 점수 차가 별로 없다는 소문에 위안을 삼았다. 그럼에도 그 짧은 시간에 세법학 1, 2부 동영상 강의는 10회 이상 들었다. 물론 기본서도 최소 3회 이상 숙독했다.

57회 2차 동차 시험.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다. 2차 시험 회계학 1부는 더 악몽이었다. 여전히 시간 안배 문제에서 헤어날 못했다. 세무회계도 예상했던 것처럼 절반 이상을 풀지 못했다. 세법학 1, 2부는 도대체 어떤 내용의 답을 썼는지 시험 끝난 직후에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다. 당연히 불합격이었다.

회계학 1부 19점, 회계학 2부 39점, 세법학 1부 40점, 세법학 2부 43점. 과연 내가 회계학 1, 2부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을까? 세법학 1, 2부는 의외였다. 과락을

면한 것 자체가 기적 같았다. 세법학 1, 2부는 누구도 점수를 예상하기 어려울 것만 같았다.

• 58회 2차 (유예) 시험

58회 2차 유예 시험 준비는 57회 2차 동차 시험을 마친 다음 날부터 시작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58회 2차 유예 시험을 실패하면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다시 도전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58회 2차 유예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57회 동차 강의 중 세법학 1, 2부 동영상 강의만 연장하였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기본서 중심으로 최대한 많이 읽고 푸는 방법을 택했다. 57회 2차 동차 시험에서 얻은 교훈은 실제 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의고사를 몇 차례 치러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여건상 그럴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 한 가지 특별히 준비한 것은 회계학 2부와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구하는 상세한 절차를 직접 녹음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좀 더 일찍 더 많은 테마를 직접 녹음해서 반복해서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번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의 포기했다. 아무리 시간을 투입해도 그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았고 그 시간을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했다. 시험 30일 전 25점 배점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너무 불안했다. 고민 끝에 김재상 세무사님에게 출제 예상 문제 리스트를 뽑아주십사 메일을 보냈다. 다행스럽게 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마지막 동영상 강의를 열어주었다. 모든 주제들을 A, B, C, D, E 등의 등급으로 분류해주는 강의였다. 막상 리스트를 정리해보니 A, B 등급만으로 한정해도 내용이 너무 많았다. 그 중 10여 개 주제를 감각적으로 짚어 집중적으로 외었다.

운명의 58회 2차 유예 시험. 회계학 1부는 예상 외로 순조로웠다. 시간 안배에 실패할 만한 함정이 전혀 없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전자계산기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은 문제들이었다.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었다. 물론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소 80점 이상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들었고, 이번 시험의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어섰다고 확신했다. 회계학 2부도 큰 문제가 없었다.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었다. 물론 자신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모든 문제를 풀었다는 점

에서 적어도 60점 가량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 2교시를 마친 직후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3교시 세법학 1부는 고통스러웠다. 과연 과락을 면할 수 있을까? 1, 2교시 평균 점수가 아무리 높은들 세법학 1부에서 과락이 나오면 끝인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세법학 2부 시간이 되었다. 가장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을 보았다. 천운이랄까. 내가 외웠던 10여 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적중했다. 기억을 최대한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운 주제를 써 내려갔다. 10점을 확보했다. 그 순간 이토록 운이 겹치는데 어쩌면 합격할 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전혀 자신감이 없이 지면을 매웠다.

시험을 마친 직후 느낌은 한 마디로 "확실한 과락은 없으니, 어쩌면 합격할 수도 있다. 이토록 운이 겹치는데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다. 그 뒤로 발표하기 전날까지 세법학 1부에서 과락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떨치기 힘들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걱정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더 이상의 시험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으로 전전긍긍했다.

2021년 12월 1일 오전 8시 55분. 시험 기간 내내 과락을 함께 했던 핸드폰을 열고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담배를 입에 물고 초조함에 몸을 사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각 9시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클릭을 하자 수많은 응시자들이 동시에 접속하는 통에 바로 화면이 바뀌지 않고 상단에 녹색 표시줄이 조금씩 좌에서 우로 이동했다. 그 시간은 1초도 안되겠지만 아주 길게 느껴졌다. 그 시간이 마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인 것 같았다.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화면이 뜨는 순간 그 기쁨이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세무사시험 합격이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2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의 장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축복이었다.

회계학 1부 80점, 회계학 2부 70점, 세법학 1부 44점, 세법학 2부 46점. 평균 60점. 평균으로만 보면 준수한 결과였지만, 세법학 1부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와도 같은 점수였고, 세법학 2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선택한 주제에서 오는 10점의 행운이 없었다면 과락을 면하기 어려운 점수였다.

• 모든 '세준생'을 위하여

세무사시험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상당한 자유가 있지만 이제 50대 후반에 접어든 직장인으로서, 계산속도, 전자계산기 두드리는 속도, 암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본인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3년 이상 수업 듣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시험은 아니다. 시간 안배, 전략적 선택, 3년 이상의 끊임없는 준비. 이 모든 것들이 합해지고 여기에 '행운'이 더해져야 통과하는 문이다.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행운은 없다.

"Luck is what happens when preparation meets opportunity."

50대 직장인, 법무사+세무사 합격신화

김 기 조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1. AIFA아이파경영아카데미는 직장인 수험생에게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직장인 수험생이라는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과정설계와 운영을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2. 일단, AIFA아이파경영아카데미를 선택했다면 끝까지 믿고 강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반드시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야 하듯이, 수험생이라면 더구나 저처럼 회계, 세법 비진공, 직장병행,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앞뒤엎을 돌아보지도 말고 강사님들을 믿고 강사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끝까지 완주하시면 시행착오를 줄여 합격의 기쁨을 훨씬 더 빨리 맛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 절대로 중도에 이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진공자로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15년이 넘는 오랜 기간을 법무사, 세무사 취득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고 마침내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중간에 포기하지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때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합격한다는 신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직장인 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세무사 시험준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절대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직장인 이어서 합격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업으로 할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직장인에게 맞는 학원과 공부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합격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요

■ 이야기를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 AIFA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 개최한 세무사 종합반 설명회 참석을 시작으로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여 1번의 1차시험 실패(2018년 제55회)와 2번의 2차시험 실패(2019년 제56회 동차, 2020년 제57회 유예)를 거쳐 2021년 제58회 시험에서 재동차(3차)로 합격한 김기조입니다.

저는 1968년생으로 대학교(86학번)에서 회계, 세법과는 관련없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금융회사(2년) → K통신회사(18년) → 현재는 K통신회사에서 분사한 K그룹 부동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생활 29년차 5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본격적인 세무사 도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하여 조금 더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세무사는 2번째로 취득한 전문자격사입니다. 앞서 저는 비법학도로 30대 후반부터 법무사 시험준비를 시작하여 10여년에 걸쳐 4번의 2차시험 도전 끝에 2015년에 법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니, 회사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려는 저에게는 법무사 보다는 오히려 세무사가 더 낫겠다는 결심을 하고 세무사 자격증 취득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무사 10년, 세무사 5년 도합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제가 목표로 했던 꿈을 이루었기에, 지금도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세무사 수험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은 자극이 되고 또 동기부여와 희망을 드리 고자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쓰오니, 오해나 편견 없이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 세무사 도전에서 최종 합격하기 까지의 이야기

• 1차 준비, 도전 그리고 실패(2017년 ~ 2018년)

세무사종합반 일요일반에 등록하여 기본과정, 심화과정까지는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으며 선택과목은 민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객관식 과정은 온라인으로 준비하여 2018년 1차 시험을 봤는데, 회계학 과락으로 실패하였습니다.

☞ 돌이켜 보니, 1차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학습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파경영아카데미는 만학도 직장인인 저에게는 최적의 솔루션이었으며, 커리큘럼도 딱 저와 같은 직장인에게 맞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화과정 후반에 오프라인 수업 대신 온라인으로 바꾸고 객관식도 온라인으로 변경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학원의 오프라인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다면 아마도 실패하지는 않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차 재도전, 마침내 합격(2019년)

2018년 1차시험에서 떨어진 후 연말까지 휴식 및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 2019년 1월부터 온라인 객관식 종합반에 등록하여 주로 주말/공휴일, 연차휴가를 적절히 사용하여 최대한 공부시간을 확보하여 동영상 강의를 반복 학습하는 방법으로 마침내 1차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 2차 동차반 등록, 그러나 동차 포기(2019년)

1차 합격을 확신하고 바로 2차 동차반에 등록하여 최대한 학원수업을 따라가려고 했으나,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온라인 수업으로 바꿔 끝까지 수강은 했지만 도저히 2차시험을 볼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2차시험 응시를 포기하였습니다.

☞ 실력이 많이 모자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업을 끝까지 따라갔다면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시험은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던 칼이라도

도 나를 열심히 같았다면 그래도 한번은 찌르고 휘둘러 봐야 했는데……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2차 세법학 강사님이신 김재상 세무사님 말씀이 생각 나네요)

• 2차 유예 시작, 코로나19로 시험연기,
유예 2차 도전 그리고 참담한 실패(2020년)

동차포기 후 3개월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나서 2차 유예반에 등록하여 1순환 과정을 오프라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학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였고 틈틈이 배운 내용을 동영상으로 복습하였습니다. 그렇게 1순환을 따라가던 중 코로나19 라는 돌발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또다시 오프라인 → 온라인 수강으로 변경하는 우를 범하였고 게다가 학원의 2순환 과정을 건너뛰고 혼자 공부하기로 하고, 3순환은 온라인 수강으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로 2차시험이 당초 8월 → 12월로 연기가 되었고, 학원의 잘 짜여진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이탈하여 독학으로 하게 되니 그나마 유지하던 학습리듬도 깨어지고 중간중간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연기로 준비시간이 늘어난 게 저에게는 별 도움이 안되었고, 결국 유예로 본 2차시험은 회계학1부 과락, 전체과목 평락이라는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 그간의 1차시험에서 범했던 실수를 유예에서도 그대로 반복했던 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같습니다. 학원의 커리큘럼과 강사님을 믿고 중도 이탈없이 끝까지 완주하고 과목별 강사님들의 수험TIP을 잘 따랐다면 합격은 아니어도 이렇게 참담한 실패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토익부터 다시 시작, 마침내 재동차(3차)로 최종 합격(2021년)

2차유예 실패의 충격은 컸지만, 꼼꼼히 생각해 보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우를 절대 범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처음 세무사 준비를 했던 2016년 12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토익부터 다시 준비했습니다. 2021년 3월에 토익점수를 취득하였고, 1월 부터 온라인 객관식 종합반에 등록하여 2019년 1차 합격시 수강했던 그 강사님들의 강의를 동일하게 선택하여 온라인의 장점인 모르는 부분은 반복재생/멈춤기능 활용, 아는 부분

은 빠른 배속으로 듣거나 건너뛰기 등 속도와 시간을 조절하며 최대한 효과적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계학(원가회계)이 역대급으로 어려워 2020년 대비 합격자수가 급감하고 저와 같은 3차생 불합격자도 속출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무사히 1차 합격하였습니다.

재동차는 가능하면 오프라인 수강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일관되게 하기로 하고 바로 온라인 동차반에 등록하여 재동차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동차는 2년전 동차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쓰러린 실패를 경험했지만, 2019년 동차 때 비록 시험은 포기했지만 수업은 끝까지 반복해서 들었으며, 2020년 유예 때도 2순환을 빼고 다 수강했고, 3순환은 온라인으로 했지만 학원에서 준 모의고사 문제는 혼자서 반복해서 풀어봤기 때문에 재동차 강의는 한결 따라가지 수월했고 나름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차반 수업과 함께 유예때의 모의고사 자료도 같이 풀어 보면서 재동차도 동차인 만큼 이번에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좀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즉, 재동차생이 아닌 생동차생이라 생각하고 강사님들의 TIP을 최대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과감하게 제껴야 할 부분은 제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Part 위주로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혹시라도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면 최대한 면과락 방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동차생의 장점인 선택과 집중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이에 따르는 리스크는 지난 2년간 공부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최소한 과락은 면하여야겠다는 전략으로 준비했습니다. 회계학 1, 2부는 강사님들의 풀이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최대한 암기하려고 하였고 세법학 1, 2부는 목차구성으로 답안의 틀을 잡고 빈칸은 절대로 안되며, 분량은 최대한 많이 채운다는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차 회계학에 이어서 2차에서도 역대급으로 세법학1에서 과락자(과락률 82%)가 속출하는 전례없는 시험이었지만, 행운도 따라주면서 재동차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 과목별 공부방법 Summary

• [1차]

- 재무회계(강사 : 김강호 세무사님 / 교재는 모두 학원선택 교재, 이하 동일)
 -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Part를 중심으로 실전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SKIP해야 할 문제를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하였고, 25문제 중 15개를 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Part별로 강약을 조절하며 선택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 원가회계(강사 : 최경민 회계사님)
 - 저의 경우 처음에는 원가가 재무회계보다 쉽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원가가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재무회계가 더 어렵다는 사람이 많은것 같은데, 저에게는 원가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습니다.
 - 그래서 15문제 중 7문제를 목표로 하여 전체적으로 공부는 하되 난이도 중, 하 급의 문제를 찾아서 최대한 맞춘다는 전략으로 했습니다.
 - 참고로 최경민 회계사님은 제가 한번도 질문을 드리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적이 없지만, 강의도 수강생 눈높이에 맞춰 잘 하시지만 중간 중간에 경험담 등을 들려주시면서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 때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세법학개론(강사 : 장민 회계사님)
 - 솔직히 세법학은 장민 회계사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고, 그냥 합격이 목표였기 때문에 장민 회계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법인세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강의해 주신 부분은 빠지 않고 공부하였고, 소득세, 부가세는 전 범위를 가져가되, 말문제를 먼저 풀고 계산문제는 맨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면 한줄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세법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최소한 12문제중 7문제는 맞춘다는 전

략으로 하되, 기타세법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고 어려워도 법.소.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재정학(강사 : 황정빈 교수님)

- 1차에서 회계.세법 못지않게 어려웠던 과목이 재정학이었습니다. 황정빈 교수의 객관식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요약집으로 정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 목표는 70점이었기 때문에 말문제를 빨리 풀고, 계산문제는 문제가 길지 않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있으면 풀고 나머지는 모두 찍었습니다.
- 재정학이 처음에는 회계.세법 보다도 어렵게 느껴졌는데 황정빈 교수님께서 직장인 수강생들의 needs에 적합한 맞춤형 수업방식과 열정적인 강의로 잘 이끌어 주시어 무난히 목표점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황정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민법(강사 : 민일 교수님)

-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앞서 법무사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목이 겹치는 민법을 선택하였고, 덕분에 타 과목에 비해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목표로 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기본서는 따로 보지 않았고 객관식 문제집을 온라인으로 따라하면서 틀리거나 모호한 문제가 있으면 체크해 뒀다가 나중에 정리할 때는 그 부분만 보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 [2차]

○ 재무회계(강사 : 김강호 세무사님 / 교재는 모두 학원선택 교재, 이하 동일)

- 1차와 마찬가지로 강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사님의 문제풀이를 모두 노트에 베껴 적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하권 중심으로 공부했고 강사님이 최소한 가져가야 한다고 하신 부분은 방어라도 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 열정적으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가회계(강사 : 최경민 회계사님, 이남재 회계사님)

- 2020년 유예때는 최경민 회계사님, 2019년 동차와 2021년 재동차때는 이남재 회계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 재무회계와 마찬가지로 강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려고 노력하였고, 제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어서 40점 중 25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는 원가회계가 가장 어렵다고 느꼈지만 원가관리회계 중에서도 오히려 관리회계가 좀 더 나았고 원가회계가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 재무회계와 마찬가지로 강사님들의 풀이방식을 그대로 암기하고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도록 연습하고 노력했습니다.
- 제게는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었지만 최경민 회계사님, 이남재 회계사님의 강의를 통해 무난히 합격할 수 있게 되어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세무회계(강사 : 장민 회계사님)

- 철저하게 장민 회계사님이 하라고 하신대로 했습니다. 직장인 수험생에게 특화된 장민 회계사님의 “핵심베스트 세무회계연습 I, II” 는 저에게는 말 그대로 최적의 맞춤형 수험서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계사님께서 찍어주신 Part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법인세 > 소득세 > 부가세 순으로 법인세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였습니다.
- 장민 회계사님이 알려주신 포맷(와꾸) 대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였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풀이과정은 최대한 생략하고 정답만 맞춘다는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회계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해주신 부분을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 개인적으로 회계학 못지않게 어려웠던, 특히 1차에서 법인세를 등한시하여 많이 어려웠던 또 하나의 관문인 세무회계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장민 회계사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세법학1부(강사 : 김재상 세무사님)

- 법인세, 소득세는 1차 때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세무회계와 병행하여 강사님

수업을 따라 가면서 준비했으며, 국기법이나 상증세, 특히 상증세는 법무사 공부 때 접했던 민법 등 관련 과목과의 연관성이 많아 다른 분들과 달리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 갈 수 있었습니다.

- 아마도 법과목이라서 상대적으로 회계학 1, 2부 보다는 나름 자신이 있었고, 고득점은 힘들어도 적어도 과락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세법학1은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되어(특히 법인세), 저도 법인세에서 결론을 두개나 틀렸지만 국기, 소득, 상증에서 최대한 보충하여 가까스로 과락을 면하였습니다.
- 김재상 세무사님은 강의도 잘 하시지만 강의 외적으로 중간중간에 수험생들에게 따끔한 충고와 위로의 말씀으로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밀당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서 완주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든든한 버팀목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상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 세법학2부(강사 : 김재상 세무사님, 노희양 세무사님)

- 2020년 동차와 유예때는 김재상 세무사님, 2021년 재동차때는 노희양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 세법학 2부는 부가세 외에는 모두 생소한 과목이고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해서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퇴했는지 암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방세는 예전 법무사 공부때 했던 법 과목들과 연관성이 좀 있어서 괜찮았지만, 개소세는 분량은 적어도 너무 생소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특법은 강사님이 짚어주신 것 중 20개 정도 암기했는데, 휘발성이 강해 시험 당일 점심시간에 다시 5개 정도 짚어서 잠깐 봤는데, 운 좋게도 그 중에서 문제가 나와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 노희양 세무사님은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최대한 자세하게, 쉽게 알려주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중간 보충자료를 제공해 보완해 주시고 매 꼭지 꼭지 마다 out line을 먼저 그려주시고 맥을 잡아 주셨습니다. 생소한 세법학 2부의 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게 해 주신 노희양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긴 이야기를 마무리 하면서

제가 합격수기라는 것을 난생 처음 쓰고 또 글재주가 워낙 없다 보니 너무 장황하게 두서없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단 한분이라도 이 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수험준비는 결국엔 수험생 각자가 하는 것이고 수험방법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합격수기를 읽어도 그것은 합격하신 분의 공부방법일뿐 자신의 방법은 아니므로 취사 선택 하시어 자기만의 공부방법을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드리오며, 무엇보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옵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루빨리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직장다니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다”_50대 중년

성 광 호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안녕하세요. 58기 세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성광호입니다.

저는 현재 외국계금융기관에 다니고 있는 50대 중반의 수험생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4번의 2차 시험을 봤고, 약 4년간의 긴 수험생활 끝에 드디어 올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 1차시험 준비반을 듣고 강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공부해서 50대 초반인 2018년 5월경에 1차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당시 25년차 금융업계 직장인이었고, 현재도 외국계금융기관에서 내부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다 1차를 계속 합격하지 못해서 졸업할 때 포기하고 시중은행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IMF때 다니던 금융회사의 부도로 실업자가 되어 다시 한번 공인회계사시험에 도전했으나 실패하고 우연히 도전한 세무사 1차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금융기관에 다시 취직하게 되면서 세무사 2차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약 16~18년 정도가 흐른 2018년에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생각하에 아이파경영아카데미 학원의 문을 두드렸고 체계화된 아이파학원의 도움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2018년에 세무사 1차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이후 2차 시험 4번째인 올해에 합격했습니다.

■ 1차시험

-재정학과 선택과목(행정소송법)에서 70~80점을 목표로 했고 실제로 그 정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이파의 민일 강사님과 황정빈 강사님의 문제집을 1권씩 외었습니다. 같은 책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50대의 나이에 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세법학은 장민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소부) 및 국제기본법 등에 집중해서 약 55~65점을 목표로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세법학의 모든 과목을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회계학은 40~45점을 목표로 했습니다. 회계학의 많은 문제를 푸는게 아니라 원가회계중 약 9~10개를 정확히 풀고, 재무회계는 말문제가 아닌 쉬운 계산 문제를 선택해서 4~5개정도를 정확히 풀려고 했습니다. 사실 나머지 문제는 거의 풀시간도 없습니다.

■ 2차시험

• 세법학1부 및 2부

- 유은중 강사의 2018년 Core책을 2021년까지 4년내내 사용했습니다. 다른 세법학 책들은 내용도 페이지도 많아서 직장생활을 하는 저는 도저히 볼 시간도 외울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얇은 Core책 하나만 제대로 외울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책을 4년간 약 70~80번 본 건 같습니다. 그래서 Core책은 거의 낱아서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세법학은 매번 외워도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년 수정되는 부분은 제가 Core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세법학 답안지는 김재상 강사님이 수업중에 가르쳐주신 방법과 틀대로 쓰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목차를 암기하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다른 수험생도 모를 거라고 하면서 긴장하지 말고 최대한 아는 만큼 답안지를 열심히 채우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김재상 강사님의 열정적인 가르침과 저의 노력들이 4년간 쌓여서 이번에 세법학 1부와 2부시험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 회계학 1부와 2부

- 회계학 1부의 재무회계는 2017년에 제작했던 페이지도 얼마 안되는 Summary를 주교재로 해서 암기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너무 두꺼운 책은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원가회계는 최경민 강사님의 2차유예문제집을 개인적으로 철을 해서 2021년까지 사용했습니다. 다른 수험생처럼 두꺼운 원가회계문제집을 풀 엄두도 시간도 없었기에 유예 모의고사 문제

집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전 원가 회계 2문제중 1문제만이라도 완벽하게 푸는 게 목표였습니다.

- 회계학2부는 장민 강사님의 2019년 2차유예 모의고사 문제집을 제가 개인적으로 철을 해서 2021년까지 사용했습니다. 다른 수험생처럼 두꺼운 세무회계 문제집을 풀 엄두도 시간도 없었기에 중요문제들을 포함한 장민 강사님의 2차유예 모의고사 문제집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4년만에 세무사시험에 최종합격하고 나니 장민 강사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합격한다는 말이 새삼 기억납니다.

세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해서 좋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한달간 휴가내고 스테디 카페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진정한 휴가를 갈 수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노후를 좀 더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인 제 친구들과 50대에 들어가는 40대 후반의 후배가 이젠 세무사시험을 합격한 저에게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지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장다니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다고”.

세무사 사무실 실무자의 합격 스토리

김 보 람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57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 수기를 씁니다. 제 글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세무사 설명회

저는 세무회계 전공자가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전공을 살려 일을 시작하였지만 계속하여 전공을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 세무사 시험에 도전해보라는 대표 세무사님의 말 한마디로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우연한 기회로 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세무사 설명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3. 세무사 1차

2017년 12월 중순부터 아이파의 커리큘럼에 맞춰 세무사 종합반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고 직장을 다니면서 2019년에 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1) 세법학개론

강사 - 노희양 교수님

노희양 교수님은 세법을 도식화하여 강의하셨고 법을 처음 접해 어려웠음에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강의하셨습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을 참고로 실무에서 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법령을 찾아보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세법의 양이 방대함을 알게 해주셨고 지금도 실무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회계학개론

강사 - 재무회계 : 김강호 교수님/원가회계 : 이남재 교수님

김강호 교수님 수업은 이론과 함께 그 파트의 객관식 문제를 미리 접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종합반 과정에서 미리 접함으로 객관식 과정에서 문제에 좀 더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남재 교수님은 중요 포인트를 차분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공부량이 방대하고 직장과 병행하여 공부하는 저에게 이남재 교수님의 수업은 중요 포인트를 바탕으로 수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었습니다.

3) 재정학

강사 - 황정빈 교수님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할 수 있는 상법과 세법과는 달리 이해가 많이 필요한 과목으로 1차 과목 중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 재정학이었습니다. 그래프 보는 법, 계산 문제 풀이 시 필요한 미분을 손쉽게 설명해주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최소한의 암기로 재정학에서 85점이라는 고득점을 취득했습니다.

4) 상법

강사 - 민일 교수님

아이과경영아카데미에서는 상법과 민법, 행정소송법 중 어느 과목을 선택할지 프리 강의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세무사가 되어 법인을 담당하게 되면 상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상법을 선택하였고 민 일 교수님의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상법에서 87.5점이라는 고득점을 취득했습니다.

4. 세무사 2차

동차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결과가 보이는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차 때 포기하면 유예 때 합격할 수 없다는 김재상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1차와는 다르게 광범위한 공부량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차 때까지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했고 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유예 수업 시작에 맞춰 전업으로 전향했습니다.

1) 세법학

강사 - 김재상 교수님

세법학 강의에서 제일 좋았던 점은 답안지 첨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김재상 교수님의 첨삭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답안지가 점점 형식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알찬 판례 강의와 단순히 각 세목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여러 세목을 연결하여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실무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2) 원가회계

강사 - 최경민 교수님

원가회계는 개인적으로 기본기가 많이 약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최경민 교수님은 2차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강의해주셨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도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질문한 것보다 더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교수님이 수험 시절 공부했던 방법도 알려주시고 문제를 풀고 질문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강의를 통해 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원가회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세무회계

강사 - 장민 교수님

장민 교수님은 직장인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해주셨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시간 내에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한 풀이 방법을 보여주시고 수업 시간 이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매번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5. 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모의고사

1차와 2차 본 시험 응시 전에 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 본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시간을 안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주었고 모의고사를 본 후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6. 마치며

세무사 시험을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닐까 공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세무사라는 직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았지만 교수님들의 응원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병행한다면 주말 현장 수업으로

박 지 영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직장을 병행하면서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합격 수기를 작성합니다. 저는 직장을 병행하며 1차에 합격하였고, 유예 기간 중 퇴사하여 57기 세무사에 유예 합격했습니다. 직장인 수험생분들께 아이파경영아카데미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프라인 주말 종합반

주말 하루 동안 밀도 높은 강의를 통해 주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강의보다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때 더욱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없는 직장인분들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주말 종합반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2. 뛰어난 교수님들

1) 원가회계

강사 - 이남재 교수님, 최경민 교수님

저는 1차 때는 이남재 교수님, 2차 때는 최경민 교수님께서 담당하여 가르쳐 주셨는데요, 두 분 모두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시고, 적응률 높은 문제 풀이에 강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회계학 시험을 볼 때 원가회계를 먼저 빠르게 풀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재무회계 문제 풀이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회계학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세무회계

강사 - 장민 교수님

장민 교수님께서서는 교수님만의 풀이법을 통해 세무회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법의 이론을 고스란히 담았지만 간결한 풀이법을 익숙해지다 보면 세무회계 답안지가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저서의 문제들은 핵심문제들을 골라 답으셔서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문제 풀이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장민 교수님 저서의 해설은 교수님의 간결한 풀이법 때문에 단순하게 작성된 편입니다. 반드시! 강의를 함께 수강해주셔야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3) 세법학

강사 - 김재상 교수님

강의 때 다양한 판례와 재밌는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딱딱한 세법학을 조금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친절하게 받아 주시고, 특히 2차 강의 시에는 모의고사 답안지를 보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김재상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다 보면 세법학과 친해지실 수 있습니다.

4) 선택과목(상법)

강사 - 민일 교수님

민일 교수님께서서는 법령 간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엮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강의해 주십니다. 직접 저술하신 교재에는 상법의 법조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따로 법령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없었고, 법조문 밑에 해설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상법은 지문과 답이 법조문이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고 어색하더라도 법조문을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일 교수님 덕분에 상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선택과목에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제 합격 수기를 보시는 모든 분께서 이른 시일 안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공자 직장인도 할 수 있다! 현장수업으로 합격의 결실 맺다

손영식
제 56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 56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손영식입니다.

이제 막 수험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수험생활의 어려움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세무사 자격시험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들, 고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모든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순 없겠지만 제가 겪었던 수험생활에 대한 경험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합격수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배경을 말씀 드리면, 일단 회계학 전공자가 아니었고,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해본 경험도 없었으며, 지방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 이었습니다. 직장에서 8년간 근무를 하면서 반복되는 직장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30대가 지나기 전에 무언가 이루고 싶다는 열망으로 목표를 찾던 중 세무사 자격시험을 알게되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5세에 세무사 자격시험에 도전을 시작하여 4년만인 39세에 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수험생활은 주말에는 아이파 학원 실강을 듣고, 주중에는 철저하게 복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대전에서 버스로 통학을 하였고, 새벽에 첫타를 타고 올라와서 막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왜 힘들게 인강을 듣지 않고, 실강을 듣느냐는 주의의 말도 많았지만 실강을 고집한 이유로 첫째는 인강에 익숙하지 않아 집중하

기 힘들었고, 둘째는 실감을 들으며 주위 수험 분위기를 느끼고, 선생님의 조언 및 격려를 받고자 하였으며, 셋째는 한번도 수업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수험생활을 이어 나가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리라는 신념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려 실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컴퓨터전공으로 IT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도전함에 있어서 절대 불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객관식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전공/비전공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얼마나 더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노력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1차 시험 준비

1) 재무회 회계

강사 : 김승철 선생님, 교재 : 김영덕 저서

처음 아이파 종합반을 수강한 시점이 5월에 시작하는 1차 종합반이었습니다. 물론 회계의 기본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e-아이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김승철 선생님의 회계원리 동영상 강의 먼저 수강을 했습니다. 비전공자라면 회계원리 강의 중에 가장 짧은 강의를 선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험기간 내내 제가 제일 어려움을 느꼈던 과목이었습니다. 분량이 많을 뿐 아니라 내용도 매년 개정이 되었고, 결정적으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풀이하는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차 준비기간에는 최대한 재무회계 상권파트에 대하여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권파트를 아예 포기하진 말고 개념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2차를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 1차 시험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풀 수 있는 파트를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원가회계

강사 : 장홍석 선생님, 교재 : 임세진 저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았던 과목이었습니다. 개념도 어려울 뿐 아니라, 문제 풀이도 까다로워서 처음에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1차 및 2차 준비의 갭이 제일 적고, 제대로 이해가 된 경우에는 내용 변경이 거의 없는 과목이다 보니 나중에는 제일 부담이 적었던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1차 회계과목에서는 재무 보다는 원가문제를 먼저 풀어서 기본점수는 맞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접근했습니다.

3) 세법개론

강사 : 장민 선생님, 교재 : 이철재 저서

1차 시험에서 준비해야할 양이 정말 많은 과목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아예 포기하고 준비하는 수험생도 많았지만, 결국 이 시험은 2차를 통과해야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정해주신 부분만큼은 가져가서 2차 준비에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민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수업시간에 말씀해주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고, 계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셔서 2차 준비까지 연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 재정학

강사 : 황정빈 선생님, 교재 : 정병열 저서(기본서), 황정빈 저서(객관식)

본격적인 재정학 수업에 앞서 황정빈 선생님 미시경제학 동영상 강의의 반드시 수강하고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될 수 있었지만 선생님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할 수 있다는 분위기 조성, 수업시간 시작과 함께 지난 강의 키워드 복습 까지 진행하면서 저절로 점수가 올라갔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

하게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버리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풀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5) 선택과목(민법)

강사 : 민일 선생님, 교재 : 민일 저서

평일에 수업을 진행한 터라, 수험기간 내내 얼굴 한번 뺏지 못하고 동영상 강의로만 수강을 하였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듣더라도 빨리듣기는 하지 않고 정속으로 최대한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수강했고, 다시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빨리듣기를 해서 자칫 잘 못하면 이해가 안되서 여러번 듣다보면 오히려 시간이 늦어질 수 있고, 이해도도 떨어질 수 있어서 최대한 집중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워낙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가 쉬웠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준비하면 고득점 획득이 가능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6) 1차 시험 준비과정

1차종합반 과정은 주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에 강의를 진행이 됩니다. 저는 토요일 진행되는 강의를 선택하여, 수업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토요일 강의에 대해서 빠르게 복습하고, 평일에는 그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누적해서 복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시간은 평일 20시 ~ 01시 또는 21시 ~ 02시(5시간), 주말 10시 ~ 22시(10시간)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1차 시험 및 2차시험 기간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하다보니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수영으로 체력을 관리를 해왔던 터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기간 중에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아침에 수영을 하면서 체력관리를 했습니다.

세무사 1차시험은 비전공자도 포기하지 않고 학원강의 수강과 복습을 철저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도

달하지 못할 목표도 아닙니다. 같은 강의를 듣는 누구보다 강의실에 일찍 도착하고, 가장 늦게 퇴실하고자 했습니다.

3. 2차 시험 준비

1) 회계학 1부(재무)

강사 : 김강호 선생님, 김승철 선생님, 교재 : 김영덕 저서

1차 시험 합격후 4번의 2차 시험을 볼 때 까지 저를 제일 괴롭혔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추세는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해야 풀 수 있도록 여러 문제로 구성되다 보니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 위주 보다는 단원별로 대표 문제를 시간내에 정확하게 반복하며 풀어해 보고, 포기하는 단원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회계학 1부(원가)

강사 : 최경민 선생님

수험기간이 지날수록 2차 시험에서 부담이 적어지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준비의 갭이 크지 않아서 2차 시험이 출제되는 대표적인 단원에서 유형별로 몇 문제를 추려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시험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재무 문제는 제쳐두고, 원가회계 문제를 먼저 풀고 재무 문제를 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훑어보고 어떤 문제를 자신있게 풀 수 있는지를 정하고 풀이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합격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3) 회계학 2부

강사 : 장민 선생님, 교재 : 장민 저서

세무회계는 장민 선생님 연습서에서 주요문제를 추려서 빠르게 회독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정해주신 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정해진 시간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고, 이 연습서는 이와 같이 반복하기에 최적의 교재였던거 같습니다. 또한 법인세 2번 문제를 포기하지 말고 정해주신 몇가지만 반복하라고 말씀해주셔서, 회계학 2부가 제일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학 문제를 풀이할 때 계산과정을 정확히 다 써야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문제 양이 많아지고 칼채점을 하기 때문에 풀이과정 보다는 답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풀이과정을 과감히 최소한으로 생략해서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훑어보고,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선택해서 먼저 풀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나중에 푸는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4) 세법학 1부

강사 : 김재상 선생님, 교재 : 정연대 저서

세법학 1부의 경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과생이었던 저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쟁점을 도출하고 관련규정을 명시하여, 사례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부분이 글솜씨가 없었던 저에게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쓸말을 준비하지는 마음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던지 적을 수 있는 관련규정 또는 국기법 내용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고득점을 얻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하였고, GS 2, 3순환에서 풀이했던 사례는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세법학은 암기과목이라는 생각으로 암기해야할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서 최소한 과락은 면하고자 노력하였고, 4번의 2차시험을 치르다 보면서 느끼지만 세법학 1부 과목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파트는 과감히 버리는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세법학 2부

강사 : 김재상 선생님, 교재 : 정연대 저서

세법학 2부 과목은 선생님 말씀대로 전범위를 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 세법학을 암기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따로 암기노트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처음 2차 준비할 때부터 보았던 M교재 위주로, 교재에 암기할 부분을 표시 하면서 자주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권의 책을 보시거나, 암기노트를 따로 구매해서 보는건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1권의 책을 자주 보아서 어디에 어느 문구가 있는지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특법의 경우 시험보기 3개월 전부터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목차 형태로 준비하여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준비한대로 적고자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짚어주시는 B등급까지는 최대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 2차시험 준비과정

2차 과정 부터는 학원 수업이 토, 일 모두 있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수업시간 이후에 학원에 남아서 그날 했던 수업내용 또는 GS문제를 복습하고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2차 교재를 시험 일정에 따라서 정해진 회독수를 채우기 위해서 풀이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평일에 5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고, 격일로 회계학 1부 + 세법학 / 회계학 2부 + 세법학을 번갈아 가면서 학습하였습니다.

회계학 1,2부는 선생님이 짚어준 문제 위주로 반복하였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버리고 전체 범위에 대한 감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법학은 M교재 하나만으로 준비하였고,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쓸 수 있게 하자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2차 시험을 볼 때까지 계속 직장을 다니는 중이어서, 시험보기 전 5일동안 휴가를 내어 이전 주말 포함하여 5일 동안 1순환, 직전 2일동안 최종 1순환을 했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려고 노력하였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당일 공부해야할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시간과 쉬는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2차시험은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갖고 맑은 공기를 쐬고, 스트레칭을 하여 주위를 환기한 후 다시 공부를 하는 것이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직장인으로서 4년간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던 지난날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없는 글숨씨에 합격수기를 남겨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정리해 보면 아래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직장인도 합격할 수 있다.

- 단, 피나는 노력 필요합니다. 절대 두 번 시험공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력하신다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배수의 진을 쳐라.

- 직장인으로서 수험생활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안일한 마음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수험기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 기간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포기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도 4번의 2차 시험을 보고나서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다시는 시험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아이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3) 문제는 펜이 푸는 거다.

- 결국에는 얼마나 많이 풀어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눈으로만 대충

보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손으로 풀어보고, 나만의 풀이과정을 2차 답안지에 써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4) 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험을 보자.

- 수험생활을 길어지게 한 주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학 1,2 부에서 한 문제에 집착해서 시간을 잡아먹고 시간관리를 못해서 다른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시험문제를 볼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4년간의 수험생활로 혼자서 아들 2명 독박육아를 하면서 뒷바라지 해준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학원 선생님들 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럽지만 합격의 기쁨을 맞이했던 순간의 합격자 발표 확인 내용과 2차 시험 점수 남겨드립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빠른 시간내에 찾아오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체능 전공자 세무사 합격 도전기

심재웅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6회 세무사시험 합격자 심재웅입니다.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글을 통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비전공자의 시험 도전

저는 비전공자입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예체능(음악)전공으로 회계, 세무분야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시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졸업 후 지인과 작은 사무실을 열어 창업하게 되었는데 이때 우연히 세무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별 고민 없이 가볍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공부량이 이렇게 많을 줄은.

2. 수차례 시험 탈락, 그리고 최종합격

첫 1차 시험은 전 과목 평락에 회계는 과락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1차 시험은 1문제 모자란 탈락이었고요. 3번째 시험은 평균 66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1차 시험은 1문제 차이로 낙방하여 상실감이 컸는데, 이렇게 아쉽게 시험에 낙방하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꽤 많은 수험생이 이렇게 합격 합격선 부근에서 많이들 떨어지곤 하는데 이때 빠르게 잘 추스르셔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첫 2차 시험은 평균 7점 부족하여 낙방, 유예 시험은 총점 7점 부족하여 낙방, 그리고 올해 1차 평균 75점, 2차 평균 65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3. 수험생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저의 수험생활은 짧다고 볼 수 없고, 저의 공부방법 또한 빠른 합격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공부방법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깨달았거나 느낀 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꾸준한 공부

저는 수차례의 1차, 2차를 거치는 동안 꾸준히 점수가 향상되었는데, 세무사가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 중간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한동안 공부를 못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상황이 되는 대로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여 손 놓아 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꾸준히 해나갔던 것이 시험점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 다니시는 분 중 상당수가 직장과 수험생활을 병행하실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아예 손 놓지 마시고 가능한 시간을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이어나가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시험이 임박할수록 집중

공부량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이만하면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차 시험도 마찬가지이고 2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만족하고 안주하는 경우 시험점수가 합격선 근처에서 맴돌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 위험합니다. 저처럼 1차 시험을 1문제 차이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필요하게 되며, 시험에 떨어진 후 받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은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계속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합니다. 합격선 부근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많지만 붙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는 곧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였느냐' 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3) 선생님과의 관계

저는 집이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주말 새벽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모든 수업에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하였으며,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1순위로 놓고 공부하였고, 나중에는 선생님들께 죄송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학원 유예반 운영이 소수 정예였기 때문에 반 분위기도 좋았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 한 명 한 명 맞춤형

도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과 우리와의 관계도 점차 돈독해지고 더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정말 알찬 유예 생활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험생분들 중 간혹 선생님이나 학원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여 자주 옮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각자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므로 존중하여야 하지만, 저는 공부가 잘 안될 때는 먼저 제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잦은 이동은 수험생활에 있어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신중하게 학원 또는 선생님을 선택하고 일단 시작되면 커리큘럼 끝까지 가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4) 기본에 충실

합격 수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며 단순한 말이지만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기본서를 다독하고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마다 존재하는 기본서들은 과목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당한 두께를 자랑합니다. 그 때문에 기본서 내용을 모두 다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위주로 학습하게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읽어보지 않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입니다. 세법의 경우 말할 것도 없지만, 재무회계, 세무회계의 경우에도 기본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다양한 계산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과 ‘해당 챕터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기본서 내용 중 특히 재무회계, 세무회계와 관련한 이론 부분은 그냥 넘겨버리기 쉬우므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본을 탄탄히 다져 놓는다면 2차 시험도 한결 수월합니다. 특히 2차 문제 중 상당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있으므로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야말로 2차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어려운 부분(과목, 챕터)을 향해 마음을 열자.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재무회계 담당 김강호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며 처음 들으면 좀 똥판지같은 소리입니다. 어려운 챕터들 특히 재무회계의 현금흐름표, 법인세 회계 그리고 세무회계의 법인세 뒷부분과 소득세의 세세한 부분들을 공부하여야 할 때 이 말을 기억하시면 한결 수월 해지실 것입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챕터들을 처음 맞이했을 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 어려운 챕터 1개만 기본서랑 연습장 펴놓고 씨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소비해도 좋으니 제대로 알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은 후 예제도 꼼꼼하게 풀었습니다. 그렇게 챕터를 마치고 나면 알 듯, 말 듯 한 간질간질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무리하지 않고 챕터를 마무리하였고 다음에 다시 기본서와 연습장을 펴놓고 반복하여 공부하였습니다. 2번째 볼 때부터는 속도가 붙기 때문에 처음 볼 때처럼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반복되면 어려운 연습문제로 연습하였고 연습문제 또한 반복적으로 풀어내어 제 것으로 소화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을 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챕터라고 하면 다가가는 것부터가 부담스럽기에 대충 공부하고 넘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무기도 없습니다. 부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상 공부해보면 두려워했던 것만큼 어렵지도 않습니다.

6) 전 범위 공부

세무사 시험은 어디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범위를 다 공부하라고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속된말로 '제껴버리는' 부분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자꾸 '제껴다' 보면 합격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도 제껴지게 됩니다. 특히 2차 시험의 경우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문제로 출제될 경우 엄청난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챕터당 경중은 두되 위에서 서술한 대로 마음을 열고 전 범위를 공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4. 구체적인 시험준비 내용

1) 1차 시험

이번 1차 시험의 경우 재정학의 경우 황정빈 선생님의 객관식 교재를 사용하였고, 상법은 민일 선생님의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사용하였습니다. 재무회계와 세법의 경우 2차 교재로 준비하였으며, 1차 시험을 1달 정도 앞두고는 세무사/회계사 1차 시험 재무회계 기출문제집을 구입하여 3회독 정도 하였습니다.

2) 2차 시험 - 회계학 1부

① 재무회계의 경우 기본서와 2차 연습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연습서를 풀 때는 분개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겼으며 기본서의 이론적인 내용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서는 이번 2차 준비 기간에만 5회독이상, 연습서 또한 5회독 이상하였습니다.

② 원가관리회계의 경우 유예 기간 동안 기본서와 연습서를 3회독 이상하였습니다. 회계학 1부의 경우 고득점을 위해선 원가관리회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손도 못 대기 때문에 출제 비율이 높은 챕터들 위주로 기본적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였습니다.

3) 2차 시험 - 회계학 2부

유예 때 장민 선생님과 세무회계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시험 때는 모의고사를 따로 진행하지는 않고 기본서에 나온 이론 부분을 철저히 숙지하고, 대표적인 문제들을 꼼꼼하고 깊게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세무회계의 경우 기본적인 세법적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약간의 응용문제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좋은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서 자기 것으로 먼저 만드는 연습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세무회계의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이론 부분과 문제 모두 5회 정도 반복하여 읽고 풀었습니다.

4) 2차 시험 - 세법학

세법학 또한 유예 기간에 김재상 선생님과 모의고사를 질릴 정도로 보아서 이

번에는 따로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답안 작성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시간 배분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기본기를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단 교재는 2018년 세법학m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개정되는 부분은 제가 따로 공부하였습니다. 세법학m이 요약서이기는 하지만 분량이 상당하고, 지엽적인 부분들도 담겨 있어 기본서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예 때 모의고사 첨삭을 받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였고, 책에서 막히는 부분들은 판례들을 읽어가면서 보충하였습니다. 특히 2달 정도는 대법원 판례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매일 1시간가량 판례들을 읽어보았는데 답안 작성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 수기를 마치며

시험을 처음 준비하면서 매주 주말마다 아침에 나와 수업 듣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가는 생활이 계속 이어졌고 정말 지겹고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아는 것 하나 없는 비전공자 청년이 배우기에 세무사 시험 과목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초기 몇 달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학원수업을 잘 따라가려고 발버둥 쳤던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1차 시험준비 때 학원 강의 중 김강호 선생님의 재무회계 시간에 쪽지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 우수자에 대해 포상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장면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포상을 받지도 못하고 수강생들로 뻘뻘한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성적 우수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시험에 붙게 될 줄은.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긴다'라는 마음으로 달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선생님과 유예반 친구들, 가족과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년 직장인의 세무사 합격 스토리

목 0 용
제 56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I. 서언

혹시 제실지 모를 저와 비슷한 경험, 환경의 분들, 특히 중장년인 분들에게 아주 작은 영감이라도 드릴지 모른다는 기대를 감히 품고 이 수기를 씁니다(이하의 글은 어미를 짧게 하겠습니다).

II. 나는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

공과대학을 다니다 공부가 어렵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경영대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그런데 회계학은 또 왜 이런지).

IMF 외환위기 전 국책 금융기관의 자회사인 여신전문금융사에 입사하여 기업 여신을 처음 배워가며 직장생활을 시작했다(이 때는 월급을 한 달에 2번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IMF 때 다수 파산했다).

IMF 이후 종금사, 자영업, 골프관련 회사에 잠시 머물다가 여신전문금융사로 복귀하여 처음 배운 그 일을 다시 만났다(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다).

미래 실업 상황을 대비, 보험 들자는 심정으로 세무사 수험 세계에 발을 들였다 가 회사를 퇴사하고서야 겨우 합격한 늑다리 아재다(큰 아이가 2020년에 대학원 생이다).

Ⅲ. 시험공부는 어떻게 하였는가?

1. 직장 생활과 병행하였던 시기

전술한대로 직장 보험용 수험을 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세무사 시험은 안타깝게도 만만하지 않았다(물론 타고난 기억력이 좋고 시험시간에 떨지 않는 유전자의 소유자는 예외다).

아내는 처음에는 놀렸고 나중에는 무시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2014년이 되어서야 1차를 합격했다.

그전까지도 두 번의 1차가 있었는데 주로 이런 식이었다. 시험전날에 있던 회사 행사 후 뒤풀이 폭탄주의 숙취로 인해, 상법 문제를 풀면서 졸았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상태요 몸에서는 아직도 술 냄새가 났다.

직장에서 진급도 하고 싶고 시험도 보고 싶었다. 누군가는 그래도 잘 되었다 하는데 나는 아니었다.

2014년 1차는 태도를 바꾸었다. 시험 2주전부터는 술자리를 피했고, 문제도 풀었다.

몇 달 전부터 '아이파 학원'에 다시 등록하여 김강호 선생님의 재무회계, 노희양 선생님의 세법개론을 들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하고 명확한 강의는 특히 시간이 많지 않은 나에게 매우 적합했다. 회계와 세법에 조금씩 재미가 느껴졌다.

이후는 드디어 2차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수험생이 되었다. 그러나 집중할 수 있는 것과 집중하는 것은 달랐다.

2014년, 2015년 2차를 연달아 떨어졌다(당첨되지 않았다가 맞는 표현이다).

만일 2차 시험을 보러 가면서 별다른 스트레스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이다.

실력이 워낙 견고해서 합격이 기정사실인 수험생이거나 공부한 것이 별로 없어서 스스로 기대를 하지 않는 수험생이거나.

나는 2차 시험 시기가 참으로 마음 편안했다. 로또 복권을 사고 당첨을 기다리는 것과 거의 유사한 심리 상태였다.

혹시 시험일 전 몇 개 본 문제와 비슷한 것이 출제되면 난 대박인 것이다.

그러나 역시 복권은 당첨되지 않았다.

2회 연속 복권을 사도 당첨되지 않는 것처럼 2차 시험은 나에게겐 복권 같은 것이었다.

2015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기로 했다. 직장에 더욱 매진하여,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진급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다.

체력도 지력도 떨어져 갔다. 특히 기억력과 관련해서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 정보가 섞이고 왜곡되었다.

내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2차에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서 시험 도전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퇴직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당했다).

그러나 2017년 1차 시험을 다시 보았고 합격했다(회사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이 다시 동력을 주었다. 사람과의 관계, 직무의 변경 등이 나에게 다시 이 길로 돌아서게 했다).

이때의 1차 시험은 시험 1개월 전 쯤부터 퇴근 후 객관식 문제를 종종 풀어 준비했다. '아이파' 선생님의 핵심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 해 2차 동차는 당연히 포기했다(나 같은 수험생을 소위 "장기 퐁동차"라고 한다).

2018년 2차를 제대로 준비하자고 마음먹었고 퇴근 후 간간히 '아이파' 자습실과 회사 인근 독서실에서 세무회계 문제를 풀었다.

2017년 12월이 되었다. 이미 두 달 전부터 중요하지만 애매한 보직을 맡게 되었고 관리해야 할 직원의 숫자가 두 자리 수로 확장되었다.

1주에 한번은 술도 많이 마셔야 했고 직무 역시 변경되어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뛰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있을 2차 시험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2. 퇴직 후 수험

고심 끝에 2018년 1월말 회사를 퇴직했다.

'배수의 진', '파부침주'의 정신이 필요했다(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쉽게 퇴직할 수 없었다).

아내와 이틀간의 여행을 다녀온 후 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했다. 약 7개월가량 남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법학 모의고사는 늘 40점~50점대 초반이었고, 회계학 1부는 꾸준히 50점대 이상, 회계학2부는 과락점수부터 60점까지 들쭉날쭉.

막바지가 되어 가면서 회계학1부 점수가 점점 올라서 모의고사 과목별 석차 1등까지도 하였다. 회계학2부 점수도 안정되었고 평균으로도 충분히 합격 가능한 점수대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범위가 넓어지면서 세법학 점수가 다시 낮아졌고 세법학 점수를 조금 더 올렸으면 했다. 시험보기 2주전부터 회계학을 슬며시 놓아 버렸다. 세법학 판례를 정리하고 기본서를 다시 통독했다.

2018년 2차 회계학1부가 나에게 폭탄이 되었다. 먼저 손을 댄 '종합예산' 문제가 빨리 풀리지 않았다. 급격히 긴장하기 시작했다. 금융자산 문제가 두 번 이상 읽혔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장은 폭주하고 머리는 이미 하얗게 변해 갔다.

1교시를 망쳤다는 생각으로 전의를 크게 상실한 나는 이후 교시의 시험에서도 전혀 기민하지 못했다.

결과는 과락이 없는 골고루 낮은 점수로 불합격이었다(이후의 과정은 고초의 연속이었다. 영어와 1차를 다시 봐야 했고 호르몬 이상 증상도 생겼다).

2019년 최종 합격을 했다(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스스로 “합격했다”라고 감히 생각했다.

작년에 망쳐버린 회계학1부가 거의 85점정도 되었을 것이고 나머지 과목도 전략적으로 잘 풀어 평균이 최소 70점은 되었겠다고 자평했다(그러나 채점 결과는 “하마터면”이었다).

IV. 경험에 의한 중장년 이상 직장인 수험생에게 제언

1. 우선 수험의 목적과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너무 당연하지만 1차 시험 합격이 없으면 2차를 응시하지 못하고, 2차를 합격하지 못하면 자격증을 얻지 못한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보면 스스로 알게 된다. 자신이 병행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말이다.

결국 나는 직장과 2차 수험 병행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나이도 들어가면서 암기력과 체력이 떨어지고, 성격도 모질지 못하며, 직무도 회계나 세무 쪽이 아니었다.

간혹 병행하여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유사 직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타고난 체력과 좋은 운도 따라야 한다.

2. 시간 관리는 체력 관리를 의미한다.

이미 40대만 넘어도 하루 10시간 공부란 거의 쉽지 않다. 차라리 하루 7시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이게 더욱 좋겠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운동을 해야 한다.

20, 30대 수험생과는 뇌만 다른 것이 아니라 몸도 다르다. 각종 대사질환과 속이 비어가는 뼈를 갖기 십상이다. 운동은 수험 생활 자체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험 이후 일상으로 복귀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 자칫하면 학습의 질은 떨어

질 대로 떨어지고 병든 몸을 선물로 받게 된다(내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3. 특정 학원이나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평판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찾아라.

이상하게도 20대 학생 수험생과 우리 중장년은 언어의 처리 방식이 다른 듯하다.

나는 기계적인 풀이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보다 그 속성을 이해시켜주는 강의가 더욱 좋았는데 의외로 학생들은 조금 달랐다.

그러니 중장년들은 먼저 시범 인강이라도 꼭 듣고 자신이 듣기 편한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해서 들어야 한다.

특히 아이파 학원의 김강호, 노희양 선생님 강의는 나에게서는 시간이 지나도 그 정보가 오래 남는 뿌리 깊은 강의였다.

나머지 강의도 위 선생님들의 강의를 포함하여 골고루 시청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4. 젊은 학생 친구와 짝이 되고 앞자리에 앉자.

특정 학원에서 실강을 듣는다면 맨 앞줄에 앉고 앞줄에서 선생님 질문에 잘 대답하는 실력 있는 젊은 학생 친구를 짝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재 또는 아지매끼리 어울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의 빈약한 기억력과 바쁜 일상에 서로 위안삼다가 시험 결과도 서로 위로하기 십상이다.

젊은 학생들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 중장년 수험생보다 철이 더 빨리 들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어찌면 더 성숙한 말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 있다. 직장에서 중장년들 뒤에서 상사나 선배 흉이나 보는 김계장, 박 대리등보다 대부분 더 좋은 사람들이다.

5. 아마도 회계학이 합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2차를 중심으로 회계학1부 또는 회계학2부가 아마도 중장년의 합격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물론 이는 모든 연령층의 수험생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되기는 한다.

특히, 기억력에 열세가 있는 중장년들은 세법학 시험에서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쉽지 않다. 우리는 사실 판단은 어느 정도 잘 하지만 법령 암기는 어렵다. 섞여 있거나 왜곡된 기억과 실제 시험에서의 낮은 채점에 많이 당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쓰는 글은 주로 만연체로 장황하여 읽기 어려울 것이고, 채점관은 우리 문체에서 묵은 냄새를 느끼고 박한 평가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회계학은 이해가 되면 기억이 오래 가고 곧잘 계산하여 숫자로 된 답을 도출할 수 있다. 물론 회계학 1, 2부를 동시에 잘한다면 합격은 거의 보장이다(이런 중장년은 사실 거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정말 다행이다).

다만, 회계학 2부는 소문제의 개수에 위축되어 대부분 기대보다 실전에서 유독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일단 과락을 피하고 총 4문제 중에 하나는 버린다고 생각하고 푸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회계학1부에서 얻는 점수가 평균점수를 위로 견인하여 합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중에서 재무회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올해 '현금흐름표' 문제는 쉽게 출제되었지만 2017년 기출이라 방심한 수험생들에게는 악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최근 기출 영역이라고 건너뛰면 안 될 것이다 (2020년 2차는 법인사회계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

시험입막 2주전부터는 오히려 회계학 1, 2부의 기본 요약서를 다시 복습하여 기초를 다져놓자. 문제도 틈틈이 풀어야 한다.

6. 세법학은 미리 틈틈이 공부를 해놓자.

세법학을 암기과목으로만 대하고 5,6월쯤부터 집중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장년들은 이런 전략을 취했다가는 거의 실패한다.

암기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시험 직전에 회계학의 계산 감각을 잃어버려 폭

탄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불합격이다.

그러니 미리 틈틈이 공부해 놓아야 한다. 타고난 몇몇을 제외하며 세법학은 면과락이 목표인 과목이다.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묻는 것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쓰는 것이 점수 획득에 유리하다. 글씨가 악필이라도 가독성이 확보되면 무방하다(나는 글씨 교정 학원을 갈 정도의 가독성 낮은 악필이었다).

7. 중장년의 나이와 경험은 큰 재산이다.

확실히 세무사 업종은 중장년에게 강점이 있다. 그동안 쌓은 사회 경험과 인맥은 세무사업을 많이 뒷받침하여 줄 것이다. 우리는 간과 쓸개를 집에 두고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설득하고 협의하고 무언가를 팔기도 했다.

초기 기장 거래처 몇 개, 번듯한 사무실보다 이런 경험이 훨씬 가치 있는 자산이다.

그러니 나이 걱정하지 말고 도전 하시기를 바란다.

시험공부를 이유로 퇴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알았다. 그들이 걱정하여 준 이유는 합격 가능성 자체였기 때문임을 말이다.

발표 후, 나이 들어 도전하고 합격하였다고 많은 축하를 받았다(놀리던 아내도 나에게 고가의 업무용 가방을 사주며 축하해주었으니 인정받은 것인가).

V. 결어

이 시험은 복권이 아니므로 복권을 사는 듯이 하면 결코 합격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 새로이 기여할 소명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직장이 언제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평균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세무사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 가'의 고민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가 아닐까 싶다. 그때 이 자격증은 선택의 폭을 확실히 넓혀 줄 것이다.

끝으로 명상을 통해 뇌의 열기를 내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란다(종교가 있으면 더욱 좋다).

부족한 뇌 체력을 보강하여 줄 것이고, 시험장에서 긴장과 흥분을 적당히 가라앉힐 것이다.

직장인들도 할 수 있다. 화이팅!

강 다 정

제 55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안녕하세요. 55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강다정입니다.

올 해 시험에 합격하신 예비세무사님들 그리고 도전하였으나 불합격하신 분들 모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으로서 공부하는 기간이 얼마나 고된지 잘 알기 때문에 합불에 관계없이 도전하신 분들의 열정은 모두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저는 직장인 수험생이었습니다. 올해까지 총 5번의 2차 시험을 봤고, 약 5년간의 수험생활 끝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차 시험 당시 5년차 직장인이었고, 현재 10년차 과장으로 외국계 헬스케어 사업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회계와 상관없는 건축학을 전공하였고, 지금까지 경력도 Project Manager로 회계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계나 경영 전공자가 시험 준비 초반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결국 2차까지 가는 긴 싸움에서는 체력, 신념, 끈기를 당해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대학교 때에도 공부를 계속해 오던 분이라면 전공에 관계없이 집중력 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2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앞서 제가 5년 동안 이 공부를 해야만 했던 저의 상황(혹은 변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메이저 강사님의 2차 강의를 듣다 보면 장수생에 대해 가혹하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의 글을 읽고 나태하거나 나약해서가 아닌 열심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도 오랜 기간 동안 수험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2013년 1차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리 오랜기간 수험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차 2차 합격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당일 저녁에 1차 시험 답안지를 채점하고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들뜬 마음에 직장에서 부모님께 이 소식을 언제 알릴지 고민하던 찰나, 어머니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중 예후가 안 좋은 부위)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도착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어머니는 즉시 수술을 받고 약 한달 반을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계셨습니다. 다행히 그 후에 잠시 깨어나셨지만 2014년이 시작된 겨울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2014년 겨울 2차 주말반 강의를 듣다가 비보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해 3월 아버지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유예생으로 그 해 2차 시험은 또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 것 투성이입니다. 2015년 초 여름이 시작될 무렵 아버지 장례를 조촐하게 치루고, 그 해 2차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차 시험에 다시 붙었다는 것조차 놀랍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아직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2차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2017년은 1차 시험도 보지 않고, 드디어 올해 2018년 1차 시험을 다시 치루고 준비하여 2차에 합격하였습니다. 참 길고도 짧은 5년간의 이야기이네요.

가끔 2차 시험 강의를 듣다 보면 다같이 점심 식사 혹은 저녁 식사를 할 때 공부기간이 길어진 이유를 여쭙보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때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합격수기에 이렇게 들려드리네요. 독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기간 동안 2017년을 제외하고는 시험 공부를 했던 못했던 1·2차 시험을 모두 치루었습니다. 가능한 한 평일에는 아프신 부모님을 뵙고, 회사도 다니고, 주말에는 온라인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변명입니다. 장수생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의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사정을 모르는 강사, 친구, 동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서 1차, 2차 공부방법, 강사님,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1차]

1. 재무회계

강사: 김강호 세무사님, 교재: 김영덕 저서

김강호 세무사님의 장점은 직장인 수험생의 정신적, 물리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주 강의 전 복습 및 배울 내용에 대한 summary를 간단히 하며 시작하시고, "재무회계가 난관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굉장히 추천할 만한 강사님입니다. 이전에 학생 수 200명 정도의 강의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전체적인 이해도를 보고, 문제를 좀 더 꼼꼼히 풀어주시거나, 가볍게 넘어가는 등 노련한 강의가 돋보이는 분입니다. 1차 반, 2차 반, 코스 당 최소 한 번 이상은 점심시간도 함께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2. 원가회계

강사: 이남재 회계사님, 교재: 이남재 저

김강호 세무사님의 장점은 직장인 수험생의 정신적, 물리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주 강의 전 복습 및 배울 내용에 대한 summary를 간단히 하며 시작하시고, "재무회계가 난관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굉장히 추천할 만한 강사님입니다. 이전에 학생 수 200명 정도의 강의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전체적인 이해도를 보고, 문제를 좀 더 꼼꼼히 풀어주시거나, 가볍게 넘어가는 등 노련한 강의가 돋보이는 분입니다. 1차 반, 2차 반, 코스 당 최소 한 번 이상은 점심시간도 함께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3. 세법개론

강사: 노희양 세무사님, 교재: 이철재 등 저

간간한 필기와 특유의 냉소적 유머의 대가이신 강사님입니다. 오랫동안 세법개론 강의를 들으면서 잊고 있었던 내용 들을 새록새록 깨워주는 타입입니다. 강의량이 꽤 되는 부분은 동차생 직장인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메이저 학원에 비하면 수강해야 할 양은 적습니다.

4. 선택(상법)

강사: 김학묵 박사님

아마 지금은 강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 도움이 안되겠네요.) 처음에는 이 분 말투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졸린지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재가 너무 완벽합니다. 법령만 있는 교재까지 너무 좋아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매일 밤 30분씩만 읽어도 3일이면 다 읽습니다. 상법은 항상 80점대를 받았었습니다.

5. 재정학

강사: 황정빈 박사님/ 교재: 정병열 저(기본서), 황정빈 저(객관식)

경제학에 무지한 저에게 실생활의 예를 생생하게 들어주시면 쉽게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수업이 즐거워서 그런지 재정학 점수는 항상 70점대를 유지했습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강사님입니다.

[2차]

1. 회계학 1부(재무)

강사: 김강호 세무사님/김승철 세무사님, 교재: 김영덕 저서

김강호 세무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챕터 시작 시 중요한 내용을 한번 필기해주고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글씨를 잘쓰셔서 그런지 목소리 때문인지 신기하게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우물쭈물해도 단호함이 아닌 젠틀함으로 끝까지 설명해주셔서 회계초심자에게 큰 위로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김승철 세무사님의 경우 말이 정말 빠르십니다. 순식간에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다보면 엄청 빠른시간에 진도가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전략이 꽤 도움이 되었고, 제가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거의 전범위를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회계학 1부(원가)

강사: 이남재 회계사님, 교재: 이남재 저

1차 시험과 동일한 이남재 회계사님 수업을 들었으며, 정확한 진도와 가능하면 skip 하는 단원에서 최소 한 문제라도 가져가셔서 시험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사 시험도 점점 전 범위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시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3. 회계학 2부(세무회계)

강사: 장민 회계사님, 교재: 장민 저

교재에 기본문제만 실려있다. 이걸 직장인 수험생에게 그리고 세무회계 초심자에게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올해 제 세무회계 점수를 올려준 건 바로 이 교재 덕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법인세법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이 책 꼭 사십시오. 단점은 강사님 글씨가 너무 작음, 말을 흘리심. 그리고 좀 촌테레입니다.

4. 세법학 1부/ 2부

강사: 김재상 세무사님, 교재: 정연대 저

전 원래 세법학을 좋아하는 수험생입니다. 김재상 세무사님은 매 수업마다 기본적인 틀을 remind 해주셔서 제가 안정적인 세법학 점수를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조특법을 신의 손으로 짚어주셔서 마지막에 본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즐거운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방법]

1. 평일 9:00~18:00

근무, 야근이 거의 없는 직장이라 수험생활 동안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장인 수험생의 단점은 주어진 공부시간이 짧다, 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공부를 시작할 시간에는 파김치가 되어있다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점은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정신적인 타격이 적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기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2. 평일 19:00~24:00 (중간에 1시간 정도 쉬는 시간)

일주일에 적으면 2일 ~ 4일 공부하였으며, 하루는 저에게 주는 상으로 운동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2018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노트에 누적적으로 강의를 들은 단원을 작성하고, 무조건 한단원에 최소 한 문제 이상 푸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어릴 때 피아노 레슨 받아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매주 공부 완료한 부분은 동그라미 쳐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제가 빠뜨린 단원이 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최종 정리하는 한달간이 꽤나 수월하였습니다.

3. 주말 종일

일차, 2차 모두 토요일, 일요일 직장인 반을 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 수강하였습니다. 아침 9시 경에 시작해서 빠르면 5시 늦으면 8~9시에 강의를 끝냈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하더라도 당일 배운 것을 1시간이라도 보고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4. 마무리 한달

평소 패턴대로 매주 전 과목 전 범위를 한번씩 보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올해 시험의 경우, 하나를 찍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범위를 얇게라도 본 사람에게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5. 마무리 일주일

이틀에 전범위를 공부했습니다. 1차 2차 모두 수강 시작일 부터 이 기간까지 모든 문제를 최소 5번~최대 20번까지 풀었습니다. (각 문제 위에 풀 날짜 표시, 자주 틀리는 문제는 V 표시)

6. 마무리 전날

전체적으로 4시간 안에 후루룩 훑어보고 새벽 1시까지 조특법 찍어주신 것을 보고 잠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그동안 조특법을 소원하게 봤기 때문에 저로서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신이 도우신 것인지 전날 본 단원이 대부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세무사 2차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세법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1차 생동차 시절부터 세법학에서는 과락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니다. 반면 당시 생소한 회계학과 세무회계는 평소에는 평범한 수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들어가면 맥을 못 추리곤 했습니다. 2018년 직장인 동차반을 들으면서 가장 집중한 것은 1.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는다. 2.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한 챕터에 최소 한 문제는 잡는다. 3. 중요단원은(예: 올해는 수익, 주당이익) 전 문제를 다 푼다. 었습니다. 세법학은 물론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설 읽는 기분으로 읽고, 나중에는 앞글자도 외워보고 하면서 넓게 목차대로 외웠습니다.

가끔 세무사 카페의 글을 읽어보면 세법학은 과락만 면하고 회계학에 올인하면 된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 방법이 정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저처럼 세법학이 잘 맞고 회계는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균형감 있게 공부하시는 접근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전과목 50점~60점대로 골고루 점수를 가져가서 합격하였습니다.

[맺음 말]

직장인 수험생의 세무사 합격은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전업 수험생에게도 고충이 있습니다. 수험생 카페에 가보면 3번째 2차 도전에 실패하고 30세가 넘어서 집에 볼 면목도 없고, 취업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글이 꽤나 많이 올라옵니다.

직장인들도 상사에게 밋보일 각오, 친구와 만나지 않을 각오, 주말을 포기할 각오(생각해보면 전업 수험생들도 많이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겠네요)를 하시고 굳센 의지로 도전한다면 (운이 따라줄 때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든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은 꼭 운동하세요. 정신도 맑아지고, 체력도 붙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덤입니다.

그럼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된다

박예란

제 55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1. 들어가며

처음 세무사 합격소식을 접한 그 날은 생애 가장 잊을 수 없는 날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올해 1월 말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세무사 시험에 전력을 다하여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지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뻐서 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그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합격하고 난 후 지금까지 매일이 정말 신나고 즐거운 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되어 이렇게 합격수기를 쓸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규칙적으로 꾸준함입니다.

세무사는 엉덩이로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책상 앞에 앉아 꾸준히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가 합격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하루에 3~4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고, 회사를 그만둔 후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규칙적으로 꾸준히 공부한 것이 합격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사님의 조언을 믿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 후, 산책을 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무사 준비를 시작할 때, 백지에 '축합격 박예란 세무사' 라고 쓰고 사진을 찍어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힘들 때 공부가 잘 안될 때 마다 나는 얼마나 세무사가 되고 싶은지 간절함을 새기며 배경화면을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물론 흔들

릴 때도 있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바탕이 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1차 시험준비(2015. 9월 ~ 2017. 4월)

1) 생활패턴과 공부방식

저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2015년 가을 무렵 세무사 입시설명회를 시작으로 1차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려고 하니 몸도 마음도 피곤했습니다.

기초가 없다보니 해매기 일쑤였고, 푸는 문제마다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함께 시작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믿어주는 친구와 할 수 있다면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에게는 수험 생활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공부하고 주말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1차 수업을 들을 때 학원수강생이 많다보니 앞자리에 앉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1등으로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정격적으로 수업을 듣고 일요일에는 친구와 함께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전업 수험생보다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을 내어 요점정리 노트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암기과목의 요점정리 노트를 사서 출퇴근 시간, 이동하는 시간, 밥먹고 쉬는 시간 그리고 잠자기 전에 30전에는 계속 반복하여 암기하고 읽었습니다.

요점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같이 직장인이 시거나 시간이 없으시다면 요점정리가 이미 된 것을 사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습보다는 복습위주의 공부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예습을 하면 좋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복습을 꾸준히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토요일에 들었던 수업은 일요일에 복습을 하고 주중에 다시 한 번 복습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단권화를 추천드립니다. 시험 전날 1회독을 모두 보고가려면 단권화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책을 본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숙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한 책을 여러 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사 공부의 반복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회독수를 늘렸느냐가 시험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이나 암기과목이 휘발성이 강해서 자주 복습하지 않으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 때문에 단권화로 여러번 반복했습니다.

2) 휴식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쉬자.

하루에 일과를 정할 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체력관리와 정신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따로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 공부하는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는 남은 시간동안 꼭 산책을 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7시쯤에 자리에 앉습니다. 꼭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앉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시간 단위로 공부하고 10분 정도는 쉬 다음,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공부하고 10분 쉬고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주말에도 학원을 가기 때문에 피로를 풀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일요일 저녁은 친구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던지 수다를 떠다든지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이 시험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마시고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슬럼프를 겪을 때도 슬럼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구체적인 과목별 공부 방식

(1) 중급회계

저는 김강호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토요일에 수업을 듣고 일요일에 복습을 하는 패턴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자가 아니다보니 회계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수업을 들은 다음 날 가장먼저 복습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기본서를 처음에 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두 번째 부터는 점점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급회계는 이론보다는 객관식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회계과목은 계산하는데 시간을 줄여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위주로 진행했습니다. 회독 할 때 마다 문제 번호에 틀린 것을 표시하여 왜 틀렸는지를 체크해나갔습니다. 나중에는 틀린 문제만을 추려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2)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는 이남재 강사님의 기본서로 수업을 듣고 객관식 책 한권을 정해서 일정한 양을 정해 매일 30분씩 풀었습니다. 원가는 계산하는 시간을 줄이는게 관건이므로 연습 또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되면 가능한 계산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차 때에는 원가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 1차 때 기본을 충실히 공부했습니다.

(3) 세법

저는 노희양 강사님의 세법개론 이론 강의를 듣고 이를 뒤에 인강으로 다시 들었습니다. 그 이후 장민 강사님의 세무회계를 들었습니다. 학원커리큘럼 중에 1.5차반을 들어서 세무회계를 먼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차 때에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소홀히 하지 않고 골고루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본법 등 나머지 기타세법들은 강의를 한 번 듣고 특강때 받았던 서브노트를 시험전날까지 읽고 암기했습니다.

저는 세법도 한 권으로 단권화 하여 법인세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이론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1차 시험 중에 세법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2차 시험을 볼 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법이 회독수가 늘어갈수록 모르던 것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음에 볼 때 이해하자 하는 마음으로 반복하여 읽고 또 읽었습니다.

(4) 재정학

재정학은 황정빈 교수님 책 한 권과 요약정리집 한 권으로 단권화했습니다. 책에 기출문제가 함께 수록되어있어 문제 풀 때 쉽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약정리도 해서 들고 다녀봤으나 다른 내용을 조금씩 추가 하고 하다 보니 점점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책 한 권으로 요점정리노트를 만들 시간에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동시간, 점심식사 후 산책하면서 들고 다니며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재정학 문제는 푸는데 의의를 두지 않고 보기를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재정학은 간혹 말장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가며 공부했습니다.

(5) 상법

저는 선택법은 상법을 선택했고, 민일 강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상법은 일단 이론을 한 번 정독한 후 수업시간에 밑줄 친 부분을 위주로 암기했습니다. 그 이후 상법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문제 뿐 아니라 문제에 있는 보기 하나하나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면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잡고 넘어갔습니다.

4) 시험전날과 시험당일

저는 시험 3일전에는 2일 동안 1회독, 시험 전날 1회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2시간씩 한 과목을 모는 것으로 하여 총 10시간을 잡고 2시간에 한 번씩 친구와 통화해서 서로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서로 긴장을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 효율적이었습니다.

시험 전날 1회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급회계와 원가관리회계는 자주 틀렸던 문제와 꼭 다시 풀어 봐야할 문제를 추려두었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풀었습니다.

세법개론은 이론위주로 1회독을 했으며, 기타세법은 요점정리 위주로 1회독했습니다.

재정학도 요점정리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다는 자주 나오는 파트와 자주 틀리는 파트를 우선으로 정독하고 나머지를 보는 순서로 읽었습니다.

상법은 이론보다는 기출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12시 정도에 잠에 들었습니다.

시험 당일 날에는 상법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각 시험을 보기 전에 공부했던 책을 펴서 나오는 부분을 한 번씩 읽었습니다. 의외로 이때 보았던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와서 문제를 풀 때 쉽게 풀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기 보다는 아는 문제를 먼저 빠르게 풀고 모르는 문제는

빠르게 스킵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1차를 통과하는데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있다가 쉽고 아는 문제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는 문제 위주로 빠르게 푸는 방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학과 선택법에 집중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법개론에 더 무게를 두라고 합니다. 그건 각자 스타일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학과 상법보다는 세법에 더 무게를 두어 공부했습니다.

3. 2차 시험 준비 동차

동차 준비기간에는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하여 많은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차 반을 등록하고 진도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야근하는 일도 많아 공부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쪼개어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공부했습니다.

동차 때는 약 4개월이 안되는 시간에 2차 시험과목을 모두 준비하려고 하니 너무 벅찼습니다. 학원에서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원수업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동차 때는 2차 과목을 모두 2회독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수업을 쫓아가는 것도 힘들고 주말에 이를 모두 수업을 듣다보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지금은 기분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4. 2차 시험 준비 유예

2018년 1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전향 후 2차 시험에 전념했습니다. 은사님께서 알려 주신 테로 평일에는 도서관에 도착해서 아침 9시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을 정해놓고 식사 후 30분가량은 산책을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는 시간은 도서관 마치는 종이 올리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8월 시험 전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계획을 잘 때, 시험보기 한 달전까지 몇 회독을 할 것인지, 2주일 전에는 몇 회독

을 할 것인지 시험보기 일주일전, 3일전, 하루 전에 1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먼저 달력을 보고 체크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에 맞춰서 2차 전 과목의 회독수를 늘려갔습니다.

학원에서는 매주 1번씩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진도별 모의고사여서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진도에 맞게 공부를 했고, 제 나름대로의 진도를 만들어 세무회계와 세법학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도서관에 도착해서 매일 1시간 30분~ 2시간 정도는 세무회계 모의고사를 1회씩 풀고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하루에 2시간씩 모든 과목의 진도를 맞춰나갔습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당 시간을 할애하여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과목별로 공부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시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보기 4주 전, 3주 전에 전체 모의고사는 2회 정도 보았습니다. 저는 전체 모의고사를 봤던 것이 시간 분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예 때에는 학원을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고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1) 2차 과목별 공부 방식

(1) 회계학 1부

재무회계가 제일 약한 부분이어서 고득점 보다는 평균정도의 점수를 받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덕 저자의 중급회계 기본서를 상권, 하권 모두 구입하여 이론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하다보니 응용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회독수를 늘리고 시험보기 한 달 전부터 재무회계 2차 연습서를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본서와 2차 연습서 그리고 유예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월가관리회계는 1차 때부터 계속 연습했던 터라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하여 챗터별로 홀수 문제를 쭉 풀고 다음 회독 시에는 짝수를 푸는 방식으로 회독수를 늘려나갔습니다. 단권화해서 계속 한 권으로 연습했고, 자주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 공부했습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시간을 재면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2) 회계학 2부

세무회계는 장민 강사님의 유예강의를 들었습니다. 매주 푸는 모의고사 문제가 좋아서 모의고사로 복습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여 약 2시간동안 매일 모의고사를 1회씩 풀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이론을 다시 보고 강사님께 질문하고 손으로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은 보자마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했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문제는 유형별로 요점정리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험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시험 한 달 전 부터는 여지껏 본 모의고사를 아침에 한 개, 저녁에 한 개 씩 풀었습니다. 풀다보면 시간이 점점 줄어서 하루에 2회 모의고사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틀려서 분명히 다시 답을 보고 풀어서 이해했던 문제도 계속 틀렸습니다. 아무리 풀어도 실력이 나아지지 않아서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매일 풀어나가다 보니 어느 샌가 나도 모르게 술술 풀리기 시작했고, 회독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3) 세법학 1부

세법학은 김재상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알려주시는 방법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세법학 M책으로 단권화하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챕터별로 나눠서 2시간 동안 볼 수 있는 만큼만 매일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격일로 하루는 세법학 1부 다음날은 세법학 2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예시나 문제가 있으면 백지에 스스로 답을 적어보고 한 챕터마다 요점정리를 해서 책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다음번 회독할 때 또 똑같이 답을 적어보고 챕터 요점정리를 추가해서 바꿔 끼워 넣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4)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는 세법학 M에 있는 목차를 순서대로 암기하여 스터디를 했습니다. 일단 목차를 외우고 나니 점점 살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다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은

책에 있는 그대로 모두 외웠습니다. 필자에게 전략과목을 꼽으라면 저는 세법학2부였습니다. 책에 있는 순서대로 모든 내용을 5월 말까지 다 외웠습니다.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있게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외우고 나서는 계속 반복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가세 2시간, 개세세 2시간, 지방세 2시간 정도 걸리게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1주일 전에는 4시간 동안 세법학 2부를 1회독 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학 2부는 필자의 생각보다는 기본 암기위주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했던 제 방식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5. 마무리하며

합격수기 마지막에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말이 있어서 저도 쑥스럽지만 남기겠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울먹거리며 전화를 받아주던 저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준 우리 아빠, 말은 안했지만 저를 보며 그동안 힘들어 했을 우리 엄마, 항상 나를 믿어주고 힘이 되어준 내 동생들과 제부 그리고 항상 웃게 해준 우리 복덩이 조카, 공부한다고 많이 찾아뵙지 못한 우리 외할머니, 곁에서 항상 함께 공부하며 힘이 되어준 우리 지혜와 넌 이미 세무사라며 힘을 준 선영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공부한 학원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까지 언니는 될 꺼라고 응원해준 재희와 가람이 고맙습니다.

힘들 때마다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던 강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독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했던 지난 날 항상 나를 믿어 주었던 우리 친구들 지인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합격하고 나서 만나게 된 정말 소중한 인연들 특히, 우리 55기 85년 동기들 우린 모두 잘 될겁니다.

여러분, 포기 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합격한 후에 날들은 매일이 신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세무사 합격까지

유재희

제 55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I. 들어가며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노희양 세무사님께 세법을 처음 배우면서 세법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장래희망란에 세무사를 적고 막연히 세무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희양 세무사님께 배웠던 좋은 기억 덕분에 아이파경영아카데미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학원에서 좋은 언니, 오빠들과 열정적인 아이파 선생님들을 만나 합격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항상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 또한 세무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합격수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II. 1차시험준비(2016.1월경 ~ 2017.4.21)

1. 토익

700점은 금방 나오는 점수라고들 하지만 저는 영어가 약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오랜 시간 영어를 안 하셨거나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혼자하시는 것보다는 파고다 등 영어학원의 700점 대비반 등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토익과 세무사 강의를 동시에 수강하기에는 빠듯하기도 하고 수업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 되도록 토익점수는 세무사 학원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마련하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2. 중급회계 및 원가관리회계

수업을 듣고 핵심내용과 필수문제 1~2문제를 노트 정리하였고 노트 정리한 내용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수시로 봤습니다.

노트 정리를 보면서 개념정리와 문제풀이를 익숙하게 하되 눈으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객관식 기출문제집을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하면서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어떤 교재가 좋다든지 어떤 강의가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듣는 것보다는 학원에서 나가는 교재 한권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면서 회독수를 높이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급회계 및 원가관리회계는 2차 시험에서는 1차에서 공부한 내용에 조금 더 심화로 배우는 정도이기 때문에 되도록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버리는 파트가 없이 공부하는 것이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수월하므로 1차 시험을 공부하면서 기초를 탄탄히 해놓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3. 세법

직장과 병행해서 준비하다 보니 회계학2부를 대비하여 모든 계산문제를 풀어보고 숙달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체크한 계산문제 유형 외에는 계산문제를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말문제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말문제는 수업시간의 필관 필기와 세법개론의 중요 내용 등 핵심위주로 노트 정리하여 출퇴근 시간에 수시로 보면서 암기하였습니다.

특히 말문제의 경우에는 말장난을 대비한 문구 암기 등이 많기 때문에 자주 보면서 암기하는 것이 좋은데 퇴근 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 안되고 졸리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 일어서서 계속 보면서 가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4. 재정학

관련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정학을 바로 공부할 경우에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학원에서 재정학 진도 전에 제공하는 미시경제학을 꼭 학습한 후에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재정학의 경우에는 개념을 이해 및 암기하고 객관식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풀면서 점차 오답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최소 5회독이상 하신다면 80점 이상 획득 가능한 전략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5. 상법

학원에서 상법 이론 강의를 듣고 민일 강사의 상법교재의 조문을 계속 반복하여 읽으면서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면서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파악하고 점차 오답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학원에서 나가는 교재만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여 최소 5회독 이상 하신다면 80점 이상 획득 가능한 전략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Ⅲ. 2차시험준비(2017.5 ~ 2018.8.18)

1. 동차준비

여러 일들이 겹치고 2차 과목의 높은 난이도와 방대한 양으로 인해서 시험 전까지 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것조차 어렵다 보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오히려 공부가 되지 않고 스트레스만 커져가서 저는 과감히 동차 시험을 포기하고 차라리 2주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나니 제 문제점이 보이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가장 큰 문제는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이 다가오면서 어렵게 느껴진 것들은 1차 시험 때에도 풀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하고 간 파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파트들 때문에 2차에서 심화 문제를 푸는데 기초가 흔들리게 돼서 저는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파트는 기본서를 또는 1차 노트필기를 다시 보면서 기초부터 다시 튼튼하게 다지는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예 수업 학원 개강 전까지 2차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하면서 다시 혼자 문제를 반복하여 풀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 유예준비

(1) 생활패턴과 공부방법

1월 말부터 자기개발 휴식을 하면서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2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생겼지만 모임은 자제하고 적어도 아침 8시에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대신 아침, 점심, 저녁 한 시간씩 밥 먹는 시간만큼은 마음껏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회계학1,2부는 실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세법학은 매일 일정 범위를 정해서 계속하여 암기하였고 학원 모의고사를 통해 직접 써보고 침삭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점차 답안지를 다듬어 갔습니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했던 것이 2차 준비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던 만큼 학원의 실전 모의고사반은 되도록 수강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구체적인 과목별 공부방법

• 회계학1부

학원에서 풀었던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고 다시 풀면서 실제 시험처럼 공부하려고 하였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다보면 내가 어려워하는 파트를 알 수 있는데 그러한 파트는 무작정 심화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다시 기초부터 공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른 학원 모의고사를 찾아서 풀기보다는 내가 약한 파트가 무엇인지 찾아서 약한 부분은 1차 때 노트정리를 보면서 다시 개념 정리를 하였고 기본서의 예제를 풀면서 기초를 탄탄히 다진 후에 모의고사 등 심화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회계학1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량이 너무 많아 한 문제정도는 거의 못 풀고 답안지를 제출하다보니 회계학1부 때문에 불합격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회계학1부를 공부하실 때에는 시간을 재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과 함께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지 직관적으로 바로 풀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학2부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만 반복적으로 풀면서 회독수를 늘려 문제 유형을 익숙하게 하고 기초부터 탄탄히 다진 후부터 모의고사를 위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는 반드시 시간을 재고 풀면서 실제 시험처럼 공부하되 회계학 1부와 마찬가지로 계속 틀리는 파트는 모의고사 문제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념을 잡고 교재의 기본문제부터 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세무회계가 처음에는 촉박한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의 모든 유형의 계산문제를 익혀서 푼다는 게 쉽지 않아서 공부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초부터 심화문제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은 양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게 될 뿐만 아니라 어디서 출제되지 모르는 세법학과는 달리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시간투입이 많지만 일정이상 수준을 올려놓으면 하루에 모의고사 한 개씩만 풀면서 감만 잃지 않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초반에만 포기하지 않고 꼼꼼히 공부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세법학1부

세법학1부는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로 구성되어 상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은 1차에서도 공부한 덕분에 세법학2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였습니다.

세법학은 일단 암기가 되어야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법학M에 나온 내용만 쓰자는 생각으로 다른 교재는 보지 않고 세법학M만 반복해서 보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최대한 암기해서 쓰기 위해 노력하였고 다른 학원들과는 달리 김재상 세무사님께서 직접 첨삭을 해주시고 일대일로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셔서 세법학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법학은 회계학 1,2부처럼 모의고사 유형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제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범답안처럼 쓰기 위해 답안을 암기한다거나 모의고사를 집에가서 다시 풀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모의고사를 풀면서 몰랐던 부분이나 모범답안에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기재하면 좋을 문구라든지 다른 문제에서도 답안에 공통적으로 써도 좋을 문구들은 세법학M 책에다가 필기를 해서 같이 암기 하였습니다.

• 세법학2부

세법학2부는 단순 암기 기재가 많이 때문에 암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주제에 하나의 내용만 길게 쓰는 것보단 여러 가지 내용을 요약해서 조금씩 쓰는 것이 점수가 더 잘 나오므로 내용을 빠지지 않고 기재하기 위해 목차를 암기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목차는 책의 목차를 그대로 암기해도 되지만 목차를 비슷하게 통일하게 외울 수 있는 것은 목차를 통일해서 암기하거나 앞 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조특법은 이해를 요하는 과목도 아니고 입법취지-적용요건-과세특례-사후관리 순으로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목차 암기를 하지는 않고 화장실 등 여러 곳에 붙여놓고 수시로 보면서 중요한 주제 50개 정도는 암기해 갔던 것 같습니다.

악필이라 볼펜 여러 가지를 써보았는데 제트스트림 1.0 제일 깔끔하게 써져서 볼펜 결정으로 고민하신다면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4회 세무사 시험 동차 합격 후기

이 기 흥

제 54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안녕하세요. 제 54회 세무사 시험을 동차로 합격한 이기흥입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의 공부방법을 글로 남겨봅니다.

저 같은 경우 20대 중반 보험회사 재직당시 금융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봤던 세법 강의를 해주시는 세무사님께서 너무 멋져보여 세무사라는 직업을 항상 꿈꿔왔고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2015년 5월 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기본반부터 수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15년도 등록할 당시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교 2학년이었고 보험회사에 재직하고 있어 직장인 수험생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 대학 1학년때 회계원리 강의를 1번 들어봤을 뿐 회계쪽의 지식 이 전혀 전무하여 많이 난감했었습니다. 특히 원가회계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학문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15년도에 수험생활을 시작할 당시는 직장 생활 하느라 사실 공부를 많이 한건 아닙니다. 저의 별명이 자격증 콜렉터일정도로 금융자격증들을 빨리, 그리고 쉽게 취득을 하였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하루 1~2시간 정도만 공부했습니다. 시험 접수하는 조건 이 토익점수가 필요하다는 것도 9월쯤 돼서 알았을 정도니까요.

추석이 지나고 직장 일이 한가해져서 공부시간을 하루 3~4시간정도로 늘렸을뿐 그 때까지 토익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결국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 접수일까지 토익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열심히는 아니지만 나름 1년정도 틈틈이 공부를 하였음에도 토익점수 때문에 시험장에 입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꼈고, 학원에 재등록을 하고 직장까지 그만두어 가며 17년도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17년도 시험을 제대로 준비해보고자 5월 기본반부터 다시 수강을 하게 되었고, 객관식반까지 빠지는날 하루 없이 주말에 매일 출석하였으며 공부시간도 대폭 늘려 노는날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하는 저의 과목별 공부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차 합격 공부방법 -

재정학 : 기본서 위주로 “재정학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학습하고 기출문제를 되도록 많이 풀어봤으면 무난히 시험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학 이론을 묻는 문제들은 대부분 기존 기출문제를 약간 바꿔서 낸 수준 이었고, 보기 2개가 헛갈리게 한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습니다. 경제학적 지식으로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앞서 말한 기존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들만 많이 맞췄어도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진 교수님 실강과 황정빈 교수님 인터넷강의를 번갈아가면서 수강했던게 시너지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정빈 교수님의 재정학 체크포인트(초록색책)를 지하철로 이동하고 있을때마다 틈틈이 정독하였던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법개론 : 세법의 꽃은 법소부라고 다시 한번 느낀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세법이 상당히 난해하게 출제됐다고 생각합니다. 필자 같은 경우 9월부터 2차 회계학 2부인 세무회계를 꾸준히 연습했었던 것이 1차 시험의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 2차시험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미리 세무회계를 시작하시면 객관식 문제를 푸실때나 동차 준비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세법 문제가 기존 기출문제와는 다른 전혀 다른 유형문제도 출제되고 판례도 출제됐던게 수험생입장에서는 낯설게 느껴졌었습니다. 다만 법소부는 기존 기출들과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됐었고, 소득세 중 양도세문제가 2~3문제 나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부분도 노희양 선생님이 짚어주신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문제도 의제배당 계산 문제 이외엔 무난히 풀 수 있었습니다. 역시 법인세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 했던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수험생분들께서도 법소부 위주로 공부하셔야 2차 시험 준비하실때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세법은 단 하루라도 안보면 “새” 법이 되는 과목이라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요약집을 매일 봤던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1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출퇴근하실 때 자가용은 놓아두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이동하실때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법은 무조건 정독 회독수입니다 회독수! 회독수는 세법개론 25회 이상입니다.

회계학 : 고급회계의 말문제.. 세무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고급회계는 지분법정도 계산문제만 배워서 들어가는 정도라 고급회계 말문제가 2문제나 나오고 계산도 2문제 총 4문제가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다만 계산문제 같은 경우는 김강호선생님이 고급회계 보강때 강의해주신 부분이 그대로 나와서 맞추는데 10초도 안걸리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중급회계부분은 2차 학원 모의고사때 회계학 과락이 나면서 시험 2주전부터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기본을 알고 있나 다시 한번 확인했던게 도움이 됐습니다. 중급회계는 평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월가회계부분이 객관식 책에서도 어렵다고 패스했던 부분들 위주로 나와서 시간이 오래걸리고 풀기도 어려웠었습니다. 회계학은 행정소송법을 풀면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했던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회계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기본!!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다고 합격하는게 아니라 기본을 아냐 모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응용문제를 다 못풀어도 기본문제만 정확히 풀어 낼수 있으면 60점 이상 맞을 수 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중급회계 상,하 기본서 정독 10회 이상입니다.

행정소송법 : 행정소송법은 최대한 “정확히”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들도 빨리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시간을 정확히 체크하진 못했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10분~12분정도에 40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기출지문 그대로 컨트롤c+컨트롤v 해서 낸듯한 수준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법을 처음 접하시거나 뭘해야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분들은 무조건 공부 범위가 작은 행정소송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목의 공부시간을 줄여 그 시간만큼 세법을 공부하시면 2차시험준비하실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1차시험 : 평균 78.25점 합격

- 2차 동차 합격 공부방법 -

1차 시험 가채점 후 합격한 것을 알고 딱 그 하루만 술을 마시며 1차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다음날부터 바로 학원에 다시 나와 동차준비를 위한 교재를 구입하고 공부를 시작 했습니다. 이번 2차 시험일까지 4달정도 남은 것을 확인하고 세법학을 약 30회 정독하고 시험을 봐보자하는 마음으로 4달간 세법학에 집중하였습니다. 가장 과락률이 높은 회계학 2부같은 경우는 1차 준비를 할 때부터 공부해오던 것이라 동차준비 기간에 세법학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동차 준비 기간에 공부시간을 1차 준비 할 때보다 대폭 늘려 하루 14시간~17시간정도 공부하고 동차 합격 아니면 유예는 다시 안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 아침 7시에 학원에 도착하여 저녁 11시 학원 문 닫을 때 집에 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이동할때도 책을 놓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이 생활을 4달정도 반복 하였습니다. 동차 준비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동차합격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차합격의 기쁨을 맛보았는데 왜 나라고는 못하겠어?"라 생각하며 동차 합격을 가슴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일주일 7일동안 하루 1과목씩 공부하며 그 과목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공부하였고 시험이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하루에 모든 과목을 공부하여 시험장 들어가서 감을 잃지 말자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단, 회계학 2부 세무회계의 경우 본격적인 공부 시작하기 전 2시간정도를 할애하여 세무사, 회계사의 기출문제를 1회씩 풀며 혹시 모를 회계학 2부 과락에 대비하였습니다.

이하는 각 과목별 공부 방법입니다.

회계학 1부(52점)

회계학 1부의 공부방법은 1차 준비와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방법을 숙지하고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응용 문제까지 대비하기 위해 문제집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부분은 기본서를 다시 읽으며 단순히 계산값만 뽑아내는 것이 아닌 원리를 익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차때도 마찬가지로 총 4문제 가운데 기본적인 물음만 모두 맞춰도 70~80점 정도는 나올 것이라 생각했으니 17년도 2차 시험 같은 경우 현금흐름표의 응용문제가 출제되어 문제1번을 통째로 날리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시험 당시 문제를 보여 많이 당황하였지만 동차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에 "1번을 못

풀었으니 그 시간만큼 나머지 문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나머지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나머지 문제 3문제가 기본을 알면 풀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1차도 마찬가지로 2차도 역시 기본에 충실하면 합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기본서를 충실히 숙지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학 2부(61점)

세무사 시험의 전통적으로 가장 어렵다는 회계학 2부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 시험 볼 때까지 약 11개월 놓지 않고 계속 연습했던 결과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본격적인 공부 시작하기 전에 2시간을 할애하여 세무사, 회계사의 세무회계 기출 문제를 1회씩 풀며 감을 잃지 않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세무회계 연습을 하실 때 세법학의 지식을 연결시켜 보며 공부하시면 상당히 재미있고 계산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2번문제가 연결회계가 나온걸 보며 당황은 했지만 상대평가과목 특성상 동차합격도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들며 2번문제를 아예 풀지도 않고 나머지 문제들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법인세 1번 문제는 기본적인 세무조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 되었으며 소득세, 부가세 역시 역대 가장 쉽게 출제된 것 같이 느껴질만큼 체감난이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1차 시험 준비 하실때부터 세무회계를 꾸준히 연습하시고 법인세를 절대 놓치 마시기 바랍니다. 장민선쌤님께서 수업시간에 강조하시는 말씀이 기본 문제만 풀어도 합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세삼 깨달았습니다. 시험장 들어가서서 절대 내가 모르는 문제를 푸시면 안됩니다. 모르는 문제는 풀어도 못맞춥니다. 시험이라는게 시간이 정해져있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를 잡고 고민하고 계시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 문제를 보자마자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풀수 있는 문제인지 못푸는 문제인지.. 내가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쉬운 문제만 골라서 다 푸시고 나머지 문제를 고민 하셔야합니다. 필자의 경우 동차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에 혹시 모를 상속세 문제가 출제될 경우를 대비해 상속세 계산문제도 공부 하였고, 그로인해 세법학1부 상속증여세를 어렵지 않게 암기 하였습니다.

세법학 1부(65점)

세법학을 공부하실 때 동차생으로써 가장 실수 하는 부분이 “어떤 선생님이 좋다더라 누구는 어떻게 가르친다더라”등 카더라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법학 시험 자체가 누가 어떻게 가르치건 본인이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장 들어가셔서 쓸 수가 없습니다. 필자의 경우 종로쪽 모든 학원, 세법학의 1타 강사라는 분들의 강의를 모두 들어봤으나 칠판 판서체만 달라질뿐 교수법은 모두 비슷합니다. 절대 세법학에 돈을 쓰지 마세요! 결국 암기싸움입니다. 누가 많이 외우냐.. 책에 있는 내용을 답지에 적어 내느냐가 당락을 가르는 것입니다. 세법학 공부할때도 1차 세법개론 공부할때와 마찬가지로 정독에 힘을 썼고 정독이 되면 실제로 답지에 써보는 연습을 무단히 많이 하였습니다. 동차 기간 4달 동안 볼펜을 30개 이상 쓰며 세법학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동차 기간에 세법학 이라는 과목 자체가 정말 미지의 과목인 것 같고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많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합격한 지금 주변 유예 수험생분들께 물어봐도 동차 수험생분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법학이라는 과목이 출제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완벽히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느낌을 가지셔야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느낌으로도 적어서 내셔야지 절대! 절대! 빈칸으로 답지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동차생 입장에서 필수 판례들은 모두 교재에 실려있으니 따로 판례집을 사서 판례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목 자체는 상증세 이외에 모두 접하셨던 세목이니 공부하시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세법학2부(56점)

회계학 2부와 더불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과목은 세법학2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이 2차를 준비하면서 접하는 세목이니 세법학1부,2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10이라고하면 세법학 1부에 3 세법학2부에 7정도로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낯선 세목을 4달 안에 모두 암기해야 된다는 점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시간을 많이 쏟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경우 세법학 2부만 따로 분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세법학 2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이 작은 개별소비세와 1차때부터 익숙한 세목인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많이 정확히 적어내느냐가 세법학 2부의 과락을 넘는 주요 키포인트 인 것 같습니다. 조특법

의 경우 강사님이 짚어준 것만 보시고, 이외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온다면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적어서 제출하셔야합니다. 이 또한 강사님들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세법학 1부와 마찬가지로 절대! 절대! 빈칸은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미지의 과목처럼 느껴지고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세법학 1,2부의 경우 개인의 암기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년 3개월의 수험 기간을 끝내고 합격자의 입장에서 합격수기를 쓰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1. 기본서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적인 문제만 완벽히 풀어내도 합격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며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야합니다.
3. 교재를 여러권 푸시지 마시고 한권을 깊숙이 파시기 바랍니다.
4. 영어 점수는 무조건 추석 전까지 준비하셔야합니다.
5. 강사님들을 믿고 수험시간에 풀어주시는 문제들만 푸십시오.

두 번의 실패 이후 세 번째 도전만에 이룬 2차 합격

문 효 승
제 53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3회 세무사시험 합격자 문효승입니다.

수험기간동안 누구나 공부전략에 대한 몇 번의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 합격수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일단, 합격수기는 그 사람만의 합격전략이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합격전략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해보았기에 좀 더 객관적인 수기가 될 거라 생각하여 제 수험기간동안 느끼고 배운 것을 가감 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총 수험기간: 2013년 5월~2016년 8월 (총 3년 3개월)

2013년 5월 아이파 기본종합반 세무사공부 시작

2014년 4월 1차시험 합격 (평균 61점)

2014년 8월 동차불합격

(평균 40점, 회계학2부·세법학2부 과락, 커트라인 47.5점)

〈2015년 3월 전업수험생으로 전향〉

2015년 8월 유예불합격 (평균 47점, 회계학2부 과락, 커트라인 52.5점)

2016년 4월 1차시험 합격 (평균 70점)

2016년 8월 동차 합격 (평균 54점, 커트라인 50점)

저는 회사 재직중에 세무사시험에 도전해보고자 2013년 5월 처음 아이파 기본종합반을 접수하였습니다. 처음 시작 할 때는 누구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나름 공부도 잘 했다고 생각했었고 현업에서 회계업무를 10년 정도 했었기 때

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 기란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치른 학원모의고사에서 합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점수를 받고 이래서는 합격은커녕 1 차 합격에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생각되어 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부터 휴직을 하게 되었고 약 2개월동안 전력질주를 하였고 그 결과 가까스로 1차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진 합격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시험에 대한 운이 좋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격은 하였지만 회계·세법에 대한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1차 합격을 하다 보니 동차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결국 유예 한 번의 기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2차시험을 몇 번 쳐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1차시험과는 달리 합격할만한 실력이 되어도 실제 시험에서는 어찌될지 모르는게 2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의 기회로는 누구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시험은 과락리스크가 있는 과목이 회계·세법 두 과목이고 절대평가이지만, 2차시험은 네 과목 모두가 과락리스크가 있고, 과락이 없다고 해도 630 명안에 들어야 합격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동차시험 이후 저는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고 불합격소식 이후에도 회사업무에 바빠 다시 2차 공부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3월 저는 유예시험에 모든 걸 걸기 위해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도 행운의 여신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발표 후 약 2주 동안 저는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의 수험기간에 대해 차근차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저의 결론은 1차시험도 그렇고 유예를 준비하면서도 딱 합격할만큼만 공부했던 것이 패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유예시험에서는 시험운이 따라 주었다면 합격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그 운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시험을 운에 맡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떨어져도 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1차시험 뿐만 아니라 2차시험에서도 합격할만큼이나 아니라 시험운과 상관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록 학습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여기서 시험운이란 특정과목의 난이도와 출제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철저히 동차합격을 목표로 수험계획을 짜고 한 달간 토익점수를 만들고 12월부터 주말 객관식반 수업을 들으면서 주중에는 인강으로 2차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공부를 하였습니다.

2월까지 2차 공부를 병행하다 3월부터 약 두 달간 1차시험에만 집중하였습니다.

1차시험은 회계/세법 6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였고 2차시험 또한 전과목 6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단지 목표점수의 의미가 아니라, 학습전략을 그에 맞게 수정하면서 시험운이나 당일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1차 시험

저는 1차시험 전략을 두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1차시험이라도 합격하고 보자”입니다.

처음 1차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 학습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2014년 시험 때는 회계·세법 면과락을 목표로 하고 재정학·상법 고득점 전략으로 공부했습니다.

(1) 회계학은 출제비중이 높고 쉬운 파트 위주로 공부해서 푼 문제는 맞추자는 전략으로 공부했습니다. (실제 25문제 정도 풀어서 20문제 맞춤)

(2) 세법은 말 문제 위주로 공략하였고 계산문제는 소득, 부가세 중 쉬운파트만 공부하였습니다. (실제시험에서는 계산문제를 2~3문제정도 풀었는데 하나도 못 맞춤)

(3) 재정학과 상법은 Skip하는 챗터 없이 전 범위를 공부하였고 휴직 후 두 달간 이론과 문제풀이를 3회독 이상 하였습니다.

다행히 2014년 시험은 회계/세법은 무난했고 재정학/상법이 약간 어렵게 나와서 제 공부전략이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차준비를 하면서 세무회계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 결국 3개월 내내 세무회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락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1차 시험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합격을 해야 세무사자격증을 딸 수 있다”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결과론이지만 이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1차시험을 빨리 합격하면 자신감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2차시험에서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본 동차 합격자는 1차 시험에서 회계·세법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평균이 7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세법을 1차 합격 후 2차연습서 공부를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올해 두 번째 1차시험을 준비하면서는 모든 챕터를 커버하되 실제 시험장에서 풀어도 정답률이 높지 않을 것 같은 난이도의 문제는 버리고 기본문제풀이에만 충실하였습니다. 결국 1차시험은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답률이 높은 문제만 풀기 위한 전략으로 학습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2차시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1차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결국 2차시험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단 1차라도 합격하자”라는 전략은 합격/불합격이 시험운에 따라 많이 좌우되고, 더군다나 1차시험을 빨리 합격하더라도 동차합격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의 2차시험 기회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차합격이 좀 늦어지더라도 2차까지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1차시험도 운이나 당일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2차시험 기회도 유예 한번이 아니라 동차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시 때 첫 번째 전략으로 1차 합격하였지만, 동차기회를 잃게 되었고 유예

도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전략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유예 때 합격을 하였으면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되었겠죠.

모든 선택은 자신의 몫이고,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는 결과가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3. 2차시험

2차시험은 1차시험에 비해 공부량이 훨씬 방대하고, 문제 난이도도 높고, 주관식이라 운을 바랄 수 없는 게 바로 2차시험입니다.

일단 회계학 1,2부부터 살펴보면, 여기서도 상황에 따라 두가지 전략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출제비중이 높은 챕터 위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자신의 전략이 실제 시험과 맞아떨어진다면 시험장에서는 유예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너무나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이 Skip한 챕터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거의 불합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전년도 출제되었던 금융자산을 유예 때 Skip하면서 큰 코를 다쳤습니다. 재무회계는 같은 챕터에서 2년 연속 출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속설을 믿었던거죠. 결국 1교시에서 뒤통수를 맞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그게 결국 나머지 시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차든 2차든 1교시에 보는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거다 안나올거다 라는 예측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누구나 틀릴만한 내용까지 학습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젠 2차시험 응시자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 생각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 범위를 커버하되 특정 챕터 내에서 출제비중이 낮거나, 누구나 어려워하는 내용은 Skip하고 기본문제만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예생 뿐만 아니라 동차생이라도 최대한 전범위를 커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차시험에서부터 회계·세법과목에 Skip하는 챕터를 줄이는 것이 2차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재무회계의 경우 전 범위를 커버하면서 어디서 출제되더라도 반 이상은 맞춘다는 생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최대한 꼼꼼히 풀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만약 예상치 못한 챕터에서 출제되거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풀 수 있는 것만 풀어서 맞춘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세무회계도 마찬가지로 문제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든 쉽게 나오는 건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세무회계는 다 풀어야 되는 시험이 아니고 70% 정도 풀어서 70%정도만 맞춰도 합격점수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쉬운 문제를 풀어서 정답률을 올리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세법학 1,2부는 동차생들이 가장 큰 벽으로 부딪히는 과목입니다.

물론 1차시험때 법,소,부,국기법을 충분히 준비를 했다면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게 세법학입니다. 일단 상증, 개소, 지방세법, 조특법의 경우 1차때 접하지 못한 법이라 너무나 생소할 것이고 법,소,부,국기법도 법조문만 암기한다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문 암기는 기본이고 법리를 이해하면서 학습해야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합격수기에 보면 항상 “WHY”를 고민하면서 세법학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동차생이라면 누구나 세법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은 부족한데 공부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동차생이 사실 법리까지 생각하면서 공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문만 잘 암기하더라도 과락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밥 먹을때나 쉬는시간에라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세법학에 나오는 다양한 판례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실제 시험장에서

생각을 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법학은 결국 누가 많이 책을 읽고 암기하고 이해하느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무회계를 Skip하지 않고 착실히 준비하면 세법학에서 법·소·부 내용 중에 반 이상 커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합병·분할이나 양도세는 세법학에서도 주요주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세무회계에서 학습하고 기본 문제위주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TIP

(1) 저의 암기 방법

세무사 공부에서 암기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암기를 하게 되면 공부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암기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암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사님들은 앞 글자를 따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강사님들은 선이 해 후암기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사람마다 암기력이 다르기 때문에 암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선수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듯이 그날 학습한 내용을 자기전이나 시간 날 때 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암기를 합니다. 또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책을 덮고 서로 강의하듯이 설명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강의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시험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산문제인 경우는 일단 계산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암기를 추천합니다. 계산구조가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면 문제를 접근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과 단순암기만 한 것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접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말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럴려면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해 없이 암기만 한다면 나중에 비슷한 것끼리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주제끼리 비교하여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책을 보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강이나 책으로 학습한 내용을 자기 스스로 다시 정리한 뒤, 그 정리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런 암기방법이 익숙해지면 2차 세법학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암기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게 되고 그러다보면 시험 앞두고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암기할 게 별로 없어지니깐 짧은 시간동안 회독수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글을 마치면서

저는 수험기간동안 공부시간을 측정하면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험일까지 과목별 회독수를 정한 뒤 1개월, 1주일, 하루 공부량을 정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습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합격하기 위한 회독수, 공부방법 등을 잘 생각하여 올바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잘 따라가다보면 당연히 마지막엔 합격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할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 수험기간동안 몸이 아프다거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한달 계획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짜야 하고 하루계획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짜야 합니다.

저는 2016년 1차시험에서 70점을 획득하였지만 중간중간 학원 모의고사에서는 60점 안팎이었습니다. 2차 유예반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중위권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위해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수험생들을 보면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모의고사 성적에 따

라 자신의 공부방법이나 실력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과신을 하게 됩니다. 모의고사는 실전을 위한 시간분배목적,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실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의고사로 인해 왜곡되거나 의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린다면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모의고사점수에 크게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책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보고 아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책을 안보고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책을 덮고 알아야 진정 아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합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3년 넘게 수험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수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부디 제 합격수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자기만의 효율적인 학습방법으로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합격수기를 마치겠습니다.

1년의 철저한 계획과 노력으로 이룬 동차합격

강성은

제 52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안녕하세요. 2015년 세무사 52회 합격자 강성은입니다.

저는 대학교 재학 중 휴학기간동안의 수험생활을 거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험기간 중 먼저 시험에 합격한 선배님들의 수기를 많이 보고 저의 방식대로 공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제 공부법을 소개해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의 수험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입니다. 저의 전공은 정치외교학이고, 2014년 1학기에 학교에서 회계학원론(회계원리) 과목만을 들은 상태에서, 2학기부터 휴학을 한 후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1년동안 전업으로 하루종일 세무사 공부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 하면서 공부하실 때는 저의 공부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험기간 중 저는 철저히 계획 위주로 공부했고, 월별과 주별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했습니다.

1. 1차 시험 준비

1차시험이 없으면 2차시험도 없습니다. 저는 1차시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로 1차시험은 재정학, 상법에서 점수를 높이고, 회계와 세법은 과락 점수를 넘기는 것을 전략으로 하지만, 저는 회계와 세법이 2차시험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4과목 모두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학원을 교대역 근처 아이파경영아카데미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무사1차종합반]을 인터넷 강의로 들었습니다. [세무사1차종합반]은 학원에서 5월에 오프라인으로 개강한 강의인데, 저는 9월부터 11월, 12월부터 2월까지 총 2번 인터넷강의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월말부터 개강한 [객관식 집중과정 종합반]을 학원에서 오프라인 강의로 들

었습니다. 또한 같은 강의[객관식 집중과정 종합반]를 복습차원에서 인터넷강의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단기간에 개념을 습득하고문제를 잘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월에 학원에서 실시한 2번의 모의고사도 봤습니다. 1차시험에서 모의고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1차시험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객관식시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을 안배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시험은 각 교시당 80분입니다. 저는 재정학과 상법은 20분내에 풀려고 노력하였고 실제 시험에서도 두 과목 모두 20분 안에 풀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회계와 세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재정학과 상법을 철저히 준비하여 빨리 풀고 회계와 세법에 좀 더 시험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반복학습에 주력했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반복해서 공부하니 이해가 되고, 문제도 잘 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차시험 4과목 모두 기본서를 기본 5회독 이상했습니다. 기본서로 기본이론을 익힌 후 객관식문제를 반복해서 풀었는데, 문제를 풀면서도 기본서는 틈틈이 읽었습니다. 책은 과목당 한권씩 보고 중간에 공부한 책은 절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본 것입니다.

시험10일전부터는 지난 5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실제 시험과 똑같은 시간에 혼자 풀어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거의 대부분 답을 알았지만, 실전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풀었습니다.

(1) 재정학(75점)

재정학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회계와 세법에 비해서 양은 적지만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와 문제풀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재정학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원래 경제 전공도 아닌 저는 기초를 확실히 하자고 생각해 황정빈선생님의 [PRE재정학 미시경제학]을 인터넷강의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봤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기초가 쌓이니 재정학에 대한 이해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복습을 하고, 책에 있는 문제도 이론 복습과 함께 풀었습니다. 1차시험전까지 기본서를 인터넷강의 복습 빼고 10회독정도 하였고 책에 있는 문제도 10번정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저는 계산문제도 모두 풀었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기초를 쌓고 공부하니 계산

문제도 금방 풀 수 있었습니다. 대신, 시간 때문에 2번 정도 풀어서 답이 안 나오면 바로 넘어갔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계산문제가 쉽게 나와서 다 풀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기본이론을 생각해 하나하나 풀어서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세법학개론(75점)

공부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인터넷강의를 보고, 복습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반복학습을 하니 세법이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됐습니다. 강의는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세법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부가가치세를 잡고가기 위해서 따로 기본이론인강을 신청하여 2번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차준비기간중 확실히 공부해서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에 공부할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세법 공부중 저는 포기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희양선생님이 일단 강의해주신 부분은 모두 익히고 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법인세, 소득세를 끝까지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국세기본법까지 2차시험에도 나오는 세목들은 다른 기타세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했습니다. 세법을 어느정도 익힌 후 2월말에 일주일 동안 위 4가지 세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일주일동안 세법만 공부한 이후로 세법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을 확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세법은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개정세법에 맞춘 문제만 풀었고, 그중에서 선생님이 짚어주신 문제와 기출문제만 풀었습니다. 문제보다는 이론 부분을 반복해서 보고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세법도 암기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예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세법은 모두 암기하려 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2월부터 보기 시작했고, 국제조세조정법률과 조세범처벌법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짚어주신 부분만 공부했고, 양이 많지 않아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3) 회계학개론(62.5점)

처음 이론강의를 들으면서 회계원리책을 2번 정독했습니다. 처음에 기초로 회계원리를 잡고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도 세법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강의한 모든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공부했고 이 또한 2차시험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시험은 아무래도 시간 싸움이니 저는 무엇보다 문제를 빨리, 정확히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점점 속도를 높여 빨리 푸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이 연습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의 객관식 책을 5번 이상 반복해서 풀었고, 학원에서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는 그 다음날 바로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도 꼼꼼히 봤습니다. 계산문제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말문제(이론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말문제를 정확히 빨리 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문제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짚어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4) 상법(회사법)(92.5점)

1차시험 4과목중 가장 고득점하기 쉬운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상법 기본서를 10회독 정도 하였고, 기출문제도 10번 이상 풀었습니다. 따로 회사법전을 보지는 않고, 강의를 듣고,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 두권으로 공부했습니다. 기출문제는 책에 있는 세무사기출문제와 회계사기출문제도 풀었습니다. 상법은 회계학을 위해서 빨리 풀고 고득점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법을 정확하고 빨리 풀어야 회계학 풀 시간도 많아지고, 회계학 점수도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2차 시험 준비

보통 2차시험기간은 1차시험이 끝난 후 약 3개월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차시험 채점 후 바로 2차시험까지 남은 기간을 세보았습니다. 무려 104일 이었습니다. 1차시험과부터 2차시험까지의 시간은 하루하루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시험을 보고 다음날부터 바로 2차시험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2차시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2차시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그 다음날 아이파경영아카데미 2차동차반을 접수하였습니다.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2차동차반을 수강하면서 똑같은 강의를 인터넷강의로 복습하였습니다. 6월말부터는 유예3순환 모의고사강평반을 인터넷강의로 들었습니다

니다. 총 10회분으로 7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 모의고사를 본 후 강평강의를 들었습니다. 또한 동차반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한 GS모의고사강의도 학원에 와서 들었습니다. 저는 따로 그룹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2차시험준비기간은 짧기 때문에 스터디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적어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저는 답안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학원에서 파는 2차시험 답안지를 구입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때 답안지에 썼으며, 20부 정도 구입해서 일주일에 한부씩 썼습니다. 저는 시험에서 쓰는 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나의 펜을 정해서 2차공부기간동안 그 펜으로만 모든 필기와 공부를 하고 그 펜으로 모의고사와 실제시험도 치뤘습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2차시험에 최적화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 회계학1부(85점)

1차시험준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계학1부는 1차와 같이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2차시험에서는 회계학1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도 부족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학원에서 김강호선생님과 이남재선생님이 풀어주신 문제만 반복해서 풀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만약 1차에서 회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 하셨다면(고급회계 문제 풀 정도) 2차는 학원에서 해주는 것만 해도 무난하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모두 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맞아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정확하게 풀기위해서 꼼꼼히 풀어서 답을 맞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차시험 2주전부터는 모의고사로 풀었던 10회분 문제를 또다시 10일동안 매일 풀었습니다. 2차시험에도 계산문제 뿐만 아니라 개념서술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는 기본서의 개념정리와 이론부분을 보았습니다.

(2) 회계학2부(44점)

회계학2부는 세무회계입니다. 2차시험 준비기간의 반이상을 세무회계에 쏟았는데 겨우 과락 면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세무회계는 어려우며, 양도 많고

정말 공부하기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시험이 끝나자마자 세무회계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작년 2차동차반 OT강의를 들었습니다. OT를 듣고 2차동차반 개강전까지 2주간의 기간이 남아 이 기간에 세무회계를 한번 잡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차동차반에서 사용하는 책(세무회계연습)의 저자 이철재 선생님의 인터넷강의를 들었습니다. 1차시험이 끝나자마자 들었는데, 세무사강의가 아닌 회계사세무회계대비 강의였습니다. 인터넷강의로 세무회계를 한번 훑고 2차동차반 오프라인강의를 들었습니다. 2차동차반에서는 세무사2차세무회계에 나올 것이랑 문제 푸는 요령을 중점적으로 들었습니다. 인터넷강의와 달리 2차동차반에서 정말 동차에 최적화된 세무회계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무회계연습의 법인세부분은 5회독하고 문제도 5번 풀었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3번 정도 풀었고, 동차 GS강의와 유예3순환모의고사 강의를 병행 하였습니다. 1차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것이 큰 힘이 되었고, 세무회계는 하루도 쉬지 않고 5문제정도 풀었습니다. 회계학1부와 마찬가지로 2차시험 2주전부터 모의고사로 풀었던 10회분 문제를 또다시 10일 동안 매일 풀었습니다. 저는 시험에서 모든 문제를 다 푼다는 생각으로 연습했습니다. 세무회계도 시간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답안 쓰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문제를 풀 때도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답안지에다가 답안요령에 맞게 풀었습니다. 문제 풀 때 시간안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안배연습도 하였습니다.

(3) 세법학1부(62점)

세법학1부는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로 나뉘는데, 2부에 비해서 공부하기 수월했습니다. 상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을 1차에서 공부한 덕분에 꽤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는 세무회계에서도 다루지므로 저는 국세기본법과 상증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기본서를 보지 않고 학원교재인 세법학M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 책을 학원에서 한 복습까지 포함해 약 10회독 하였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다보니 나중에 한 세목당 3시간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상증세 생소하여 학원 강의를 듣고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법학 1,2부 모두 7월이 되기 전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니다. GS세법학모의고사집을 사서 모범답안을 보고, 학원에서 답안 쓰는 요령을 배워서, 6월말부터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물론 시간을 정확히 재고 풀었고, 무조건 10페이지 이상은 채웠습니다.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답안지 쓰는 요령도 점점 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항상 실전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시험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4) 세법학2부(47점)

세법학2부는 부가가치세, 지방세,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다 2차에서 처음 접하는 세목들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차에서 많이 준비한 것도 있어서 많이 하지는 않고 개정된 것과 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지방세와 개별소비세는 양이 적어서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전부암기하러 노력했고 지방세는 암기와 함께 학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판례를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조특법은 계속 공부안하다가 시험 2주전부터 봤습니다. 조특법이 많이 걱정되지만 그 많은 양을 공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나머지 부가가치세, 지방세, 개별소비세를 확실히 더 공부하였습니다. 조특법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찍어준 문제만 완벽하게 습득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훑어보고 바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시험문제에서는 조특법이 25점 배점에, 전혀 모르는 것이 나와 당황했지만, 저는 그래도 답을 2쪽 이상 썼습니다. 그냥 문제 자체를 제 식대로 풀어쓰고, 생각나는 것을 막 적었는데, 운 좋게 과락을 넘긴 것을 보면, 조특법이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험 준비 하시는 분들 모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아이파경영아카데미와 저를 가르쳐 주고,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히 답을 해주신, 김강호선생님(재무회계), 이남재선생님(원가회계), 노희양선생님(세법학개론, 세법학2부), 황정민선생님(재정학), 민일선생님(상법), 장민선생님(세무회계), 강종철선생님(세법학1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랑 같이 수험생활을 함께한 2차동차반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사 수험생활 보고서

이 동 현
제 52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I. 동기

친구의 소개로 나이의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매력을 느꼈고, 상공회의소 통계 등 자료에서 직업만족도가 다른 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시험 준비를 결심하게 됨.

II. 아이파를 선택한 이유

12년 2월 수험을 시작할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세무사 공부를 위한 정보 수집 결과 합격률, 커리큘럼, 강사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직장인의 입장에서 아이파가 최적이라는 판단을 함.

III. 수험생활 개요

- (1) 공부기간 : 약 2년 6개월 ('13.03 ~ '15.08)
- (2) 응시횟수 : 1차 2회 '13.04(탈락, 평균25) / '14.04(합격, 평균68)
2차 2회 '14.07(탈락, 평균38) / '15.08(합격, 평균58)

IV. 공부방법

1. 1차, 2차시험 공통 사용 방법

(1) 공부시간 체크, 관리

* '스터디체크' 어플을 활용하여 공부시간을 측정, 관리함

→ 합격까지 총 누적 공부시간 : 3,300시간 (수업 + 자습)

(2) 필기구

* '제트스트림' 사용

0.38mm : 정리노트, 수업필기

0.5mm : 재무, 원가, 세무 문제풀이, 기타

0.7mm : 세법학 답안작성

(3) 수업필기

별도의 노트에 필기하는 것은 다시 책을 봤을 때 같이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필기는 책에 하였음.

(4) 문제집 문제 번호에 풀이 이력표시

* 2 번 이상 연속적으로 틀리는 문제 위주로 다시 풀어보기 위해 문제 번호에 틀린, 맞춘 횟수 기호로 표기함

(5) 앞 글자 따기

1차용 : 상법, 재정학

2차용 : 회계학2부, 세법학1,2부

앞 글자를 따서 외음으로써 암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되므로 다른 부분을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판단함.

(6) 동료

짧지 않은 수험기간 동안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동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엄격한 시간관리 없이 옆자리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은 집중력 하락과 배려의 함정이 우려되어 자습은 개별적으로 함.

(7) 정오표 확인

수험서의 대부분은 매년 개정되어 나오고 교재에 따라 오, 탈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오표를 찾아보고 오류내용으로 잘못 공부하는 일을 방지해야 함.

(8) 질문 하는 법

수험생활이 익숙해지면 각자 자신의 질문하는 방법에 노하우가 생기나 초반에는 모르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기에 질문하기도, 대답하기도 어려우므로 다음의 절차를 따르기 위해 노력함.

① 1질문내용 메모(요약) → ② 2관련내용 찾아보기 → ③ 3해당 질문에 대한
가설 → ④ 4강사님에게 질문

2. 2차에 사용된 방법(유예시기)

(1) 글씨체

본래 글씨체가 매우 안 좋아 '백강 고시체', '창천체'를 참고하여 자가 교정함.
실제적으로 시험 점수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측정할 수 없었으나, 자신감
증진과 불안감 해소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었음

(2) 강의 녹음 청취

휴대폰 녹음 어플을 활용하여 세법 등 주요 강의 시 녹음하여 운전 또는 이동 시
청취강의 등을 들을 때 재생 속도 조절은 필수인데, 안드로이드 어플 "뮤직켓"을 이
용해 속도를 조절하며 들음

(3) 앞글자 노트 제작(for 세법학)

주요 내용을 앞글자 따서 노트를 만들어서 이동 시 등 활용함.
또한 이를 육성으로 녹음하여 운전 등을 할 시 활용.

(4) 오답노트 작성(for 회계학)

회계학 I, II 의 경우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오답노트를 작성
하여 보완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단, 길게 적으면 시간소모가 크므로 핵심
내용을 최대한 한, 두 줄로 요약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함.

(5) 서머리노트 작성(for 세법학)

세법학 I, II의 경우 여러 번 읽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험을 5달쯤 남겼을 때부터 작성하기 시작함.

세법학 I, II 교재를 노트 한 권에 요약 정리 한다는 느낌으로 작성하였고 50일 정
도 걸려 완성함. 서머리 노트 작성 후엔 책 대신 서머리 노트를 들고 다니며 공부함.

색깔 펜을 섞어서 쓰면 검은색을 사용한 부분에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특별한 경
우가 아닌한 대부분 검은색 볼펜으로만 작성함.

(6) 스터디 모임

1차 준비 때는 스터디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하지 않음.

2차 유예 때는 약 6개월간 집 근처 도서관에서 2명이 매주 모여서 여러 학원의 회계학 I, II부 모의고사 문제를 시간 제한 하에 풀어봄. 실전 문제풀이와 시간 배분 감각, 강사별로 상이한 문제유형 적용에 도움이 많이 됨.

(7) 공부계획

학원 유예반 수업이 매주 토, 일 있었기 때문에 공부계획도 대체로 주단위로 세워 이행함. 주간 계획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큰 계획은 목표 회독을 바탕으로 한 과목별 목표 회독에 마감기한을 설정함.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오차가 발생할 때 계획을 수정 또는 재 작성하여 공부를 현실점에서 진도를 이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보완함.

시험 100일 전 즈부터는 압박과 스트레스로 집중이 잘 안되었기에 초 단기 계획을 활용함.(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할 것만 계획함. 일종의 단기 퀘스트 개념)

(8) 휴식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가 주 화두였기 때문에 실 땀 증종 기억력, 뇌 인지, 집중력, 명상 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 봄

(9) 세법학 모의고사 다시 풀기

세법학 모의고사는 체력소진이 심한 과목이라 모의고사 문제를 다시 풀어보기도 부담스러웠음. 이런 이유로 다시 풀어보되 1부 4문제 30분, 2부 4문제 30분 시간 내에 간단히 쟁점과 조항, 결론만 문제당 1페이지로 약술하는 연습으로 대체하여 연습함.

V. 후기

14년도 1차 시험 준비기간에는 1차 합격만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법인세를 포기하였기에 동차시험에서는 3과목 과락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밖에 없었지만 나름대로는 동차합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 유

예합격을 목표로 장기 계획을 세운 결과기에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2차 유예시험 때에는 어느 정도 운도 따라주었기에 계획한 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멘탈 관리라 생각합니다. 길다면 긴 수험 생활에서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 이 두 자아가 리듬에 따라 주도권을 교차하며 가진다고 가정 할 때, 전자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공격적인 방법으로써 중요하다면 후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 공부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지 역시 방어적인 성격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위에 기술한 공격적인 방법으로써 학습 전략은 여러 선배님들의 합격수기와 공부법 등을 통하여 널리 공유되었고, 공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체력, 정신력, 경험, 환경, 성격 등에 따라 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따라 전략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목표지점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통계를 만들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손이 닿는 모든 곳에 학습자료를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 등을 통해 스스로가 게을러지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 게을러 지더라도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할 수 있으나, 저의 경우엔 세무사시험 준비에 관련된 지식이나 지인이 전혀 없었기에 지금까지 위에 기술한 내용의 대부분은 제가 수험생활을 시작하고 유지하면서 궁금해왔고 정보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왔던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준비해 왔던 것들입니다.

합격이라는 결과를 알게 된 후엔 합격이라는 감상으로 지난 노력을 왜곡하여 전달할 것이 우려되어 이 글 대부분의 내용은 합격 발표 일주일 전인 10월 22일에 작성 해놓고 이 ‘V. 후기’ 만 발표 후인 10월 29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결과적으로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나 실은 압박과 스트레스의 길 위를 꾸준히 지지 않고 걷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부족한 제 글을 통하여 다소나마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직장과 수험생활 사이의 짜릿한 줄타기

강 석 구

제 50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0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직장인 강석구라고 합니다. 먼저, 이시간에도 합격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세무사시험에 도전하게된 계기는 현 직장과 종사중인 업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직장을 조금이라도 오랜기간 다니기 위하여는 적기에 승진이 필요하였고, 승진시기에 세무사 같은 전문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다는 회사방침에 따라 세무사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학 및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회계사나 세무사같은 직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합격을 위하여는 얼마간의 공부기간이 필요한지 어떠한 과목이 시험과목인지 등의 세부정보는 전혀 모른 채 막연히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I. 1차시험 준비

2011년 1월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강남인근에 세무사전목학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학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이 강남쪽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깝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아이파경영아카데미가 저같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사 전문 교육과정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에 주저하지 않고 기초종합반부터 연간과정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2년 6개월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지만 경영정보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회계 및 세법은 너무나도 낯선 과목들이었습니다. 차변과 대변밖에 모르던 저에게 재무

회계는 첫 번째 만나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시작한 1월부터 정규종합반이 시작되는 5월까지의 약 4개월의 시간동안 재무회계의 기초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향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해당 기간동안 증급회계(상권, 자산·부채·자본편)를 가장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회사가 끝나고 특별한 저녁약속이 없으면 바로 퇴근하여 학원에 들러 2시간 정도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는 일상을 지겹도록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주말 중 토요일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학원수업에 충실하였고 일요일은 토요일 수업내용을 빠르게 복습하였으며, 주중에는 복습한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어려웠던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해외부 파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토익점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필요한 영어점수를 바로 획득하였고 이로인해 회계학 및 세법에 조금 더 매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반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5월부터 정규 종합반과정에서 기초반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회계학 및 세법 등에 대한 과목을 좀 더 심도있게 수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직장인 수험생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잦은 야근과 회식 등은 수험기간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특히, 회식은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계학 및 세법처럼 휘발성이 대단히 강한 과목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넘어야할 큰 산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주중에 회식 1~2번, 야근 1~2번만 반복하고나면 머릿속이 텅비어버리는 허탈한 느낌을 가질때가 한두번이 아니었고 굉장히 열심히 반복한 것 같은데 증급회계 하권을 공부하고 있으면 상권이 생각이 가물가물하고 관리회계 공부하다보면 원가회계파트가 기억이 안나고 소득세 공부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배운 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나는 좌절을 수시로 반복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어느덧 10월말이 되었고 같이 공부를 시작하였던 직장인 동료들이 하나둘씩 학업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나도 "이 공부를 계속 해야하는가"라는 자괴감이 교차하면서 정규 종합반 수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객관식 종합반이 시작되었고 재정학과 상법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기에 공부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는 수업시간 중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 먼저 해당문제

를 강의를 듣지 않고 풀어보았으며 풀리지 않은 문제만 강의를 듣고 해당문제만 향후 복습하는 방식으로 복습시간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남은 시간은 재정학과 상법 공부에 할애를 하였습니다. 회계학과 세법은 학원에서 수강하였던 모든 부분을 가급적 빠트리지 않고 학습하였으며, 특히나 세법의 법인세파트는 약간의 재미가 붙어 더욱 열심히 하였고 고급회계 파트는 전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1차시험을 보기 2개월전부터는 실제시험에 나오더라도 시간제약상 생략해야할 문제를 선별하는 연습을 병행하였습니다. 열심히 배운 것 같은데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되지않던 과목들이 1차 시험일이 가까워 지면서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결국 학원에서 실시하는 파이널리뷰과정을 끝으로 약 1년 3개월간의 모든 학원의 커리큘럼을 마치고 2012년 4월 1차 시험에 무난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 재정학과 상법이라는 고득점 가능과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직전 2~3개월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정해진 학원의 커리큘럼만 잘 쫓아가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들 합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차 시험의 경우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은 회계학이므로 회계학 과락방지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많은 수험생들이 1차 시험의 회계학 과목에서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중 어떤 파트를 먼저 풀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있는 파트부터 푸는 것이 정답이지만 정해진 짧은 시간안에 풀기 위하여는 개인적으로 재무회계를 먼저 푸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재무회계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정형화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순간 풀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는 문제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원가관리회계는 문제자체가 정형화 되어있지 않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문제를 이해하는데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풀다가 포기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Ⅲ. 동차준비

1차시험이 끝난후 가채점결과 합격이 예상되어 1주일정도 휴식을 취한후 1차준비를 하였던 동일학원의 동차반에 접수를 하고 2차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차반 개강일로부터 2차 시험일까지는 약 90일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세법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게 되어 약간 걱정스러운면도 있었으나 1차 시험의 무난한 합격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2차 시험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1차 시험에서 준비한 내용에 더하여 1차 세법 공부시에 접하지 못한 상증세, 개별소비세 등 몇가지 세목만 준비하여 2차시험에 임하면 좋은 점수는 아니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2차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바쁜 직장일로 1차시험 준비때와는 다르게 몸도 마음도 서서히 지쳐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시험준비 시간도 부족한데 2차시험 직전에 장기간 해외출장까지 겹치면서 세법학은 모의고사나 판례집 등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 상태에서 중요파트의 법령내용만 단순 암기하여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회계학 1부와 2부는 1차 시험을 준비한 실력으로 평균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세법학의 경우 알팍한 지식으로 직장에서 기획보고서 작성하듯이 나름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였지만 여지없이 과락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Ⅳ. 유예생활

2차시험 불합격 소식을 확인한 이후 바로 다음날 유예종합반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학원을 다니고 싶었으나 제가 다녔던 학원은 유예종합반이 개설되지 않는 관계로 종로에 위치한 같은 계열사의 우리경영학원의 유예종합반에 등록하였습니다.

1차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회계학이라면 2차시험의 경우는 세법학입니다. 동차에 실패한 원인을 나름 분석한 결과 2차의 당락을 결정하는 세법학 준비가 가장 부족하였다고 판단하고 유예공부를 시작한 직후부터 세법학 이론

서를 충실히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물론, 유예시작이후 첫 3개월은 회계학 이후 3개월은 세무회계 마지막 3개월은 세법학을 중점과목으로 선정하고 학습하였으나 세법학의 난해함을 동차때 경험한 저로서는 세법학을 처음 시작부터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및 세무회계는 학원에서 수업하였던 연습서를 계속해서 문제를 다 외울정도까지 반복하여 풀었지만 직장생활로 인한 학습시간 부족으로 고생하였기에, 점심시간 및 퇴근시간 그리고 새벽시간을 적극 이용하여 학습에 몰두하였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회계학 1부 및 2부는 어느정도 틀이 잡혀가는 것을 느꼈으나 세법학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아 고민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나 출제예상 문제들의 예측가능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기본서만 정독하다 보니 공부해야할 양도 방대하고 어디까지 암기하고 있어야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세무사시험은 대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는 다르게 자격시험이니만큼 무조건 많이 쓴다고 성의를 생각하여 일정점수는 절대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차시험 3개월전부터는 사례형 문제중심으로 논점이탈 방지 및 결론을 맞추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2차시험에 임할 정도의 수험생이라면 모두 관계법령은 어느정도 서술할 것이라면 결국 사례형문제의 결론이 맞는 수험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모의고사집을 구입하여 답안내용을 가리고 난후 답안지에 목차기술 및 결론을 적는 연습을 반복하였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세법학이라는 예측불가능 과목 때문에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무조건 암기도 해보고 판례집도 열심히 읽어보고 하였으나 실제 시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장좋은 세법학 공부방법은 스스로 많이 고민하면서 각종 사례에 대한 응용력을 키우는 것이 좋으나 이는 경험이 부족한 많은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수차례 정독한 이후 모의고사집을 통하여 기계적으로라도 결론을 맞추는 연습을 반복하는 수 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세법학 2부도 사례형 문제들이 출제되는 상황이니 더욱 더 공부방향을 잡기가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유예종합반은 주말 이틀동안 늦은 저녁시간까지 모두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 직장인인 저로서는 복습할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하는 동료 전입수험생들을 보면서 자신감도 점점 없어져만 갔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온 마당에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 걸어 다니면서 공부한 내용을 혼자서 저 스스로에게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녔는데 이것이 기억에도 오래남고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2차시험 직전에는 각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입수하여 풀어봄으로써 감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극복하고 2차시험에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무사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동차 실패 후 유예생활을 겪으면서 2차시험 준비는 1차시험 준비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몇배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록 동차에 실패하였지만 이 글을 읽는 수험생분들은 힘들더라도 동차의 기회를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V. 마치며

약 2년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여도 또한 회식을 하여도 맘 편히 할 수 있으니 갑자기 모든게 행복해 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의 시간들은 힘들었지만 이러한 직장인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금 소중하게 깨닫게 해준 고마운 시간들이라고 자위해봅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속히 합격하시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수험기간중 도움을 받은 고마운 분들과 직장인으로서 저의 수험생활 몇가지 Tip을 소개하면서 직장생활과 수험생활의 짜릿한 줄타기에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분들

수험기간동안 주중에는 직장평계로, 주말에는 학원평계로 근처에 계시는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송스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못난 아들을 믿고 성원해주신 부모님께 가장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차변 대변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저에게 회계학의 기본토대를 마련해주신 김강호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수업시간에도 불구하고 기본서의 거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열성으로 빠른 시간안에 재무회계의 응용력을 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유예기간중 세법학이라는 과목의 넓은 시야를 갖추게 해주신 정연대 세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업 중 너무나도 깊이있는 부분까지 강의를 해주시는 바람에 선뜻 이해가 되지않아 나름 좌절도 하였으나 결국 시험장에서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험기간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며 공부하였으나 약간의 운이 부족하여 올해는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학원 동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전하고 싶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수험생활 Tip

- ① 조급해하지 않기 : 스트레스만 받음
- ② 동영상강의 맹신하지 않기 : 자칫하다간 부족한 공부시간만 날림
- ③ 출퇴근시간 적극 활용하기 : 생각보다 오래 머릿속에 기억됨
- ④ 꾸준히 & 몰아치기 하지 않기 : 이 시험은 감이 정말 중요함
- ⑤ 과감한 스킵 : 백점이 필요한 시험이 아님(연계된 주제는 스킵하면 안됨)
- ⑥ 생각하면서 풀기 : 회계학, 세법은 숫자외우는 시험이 아님
- ⑦ 직장생활과 수험생활의 중심잡기 : 한쪽으로 치우치면 상황이 힘들어짐
- ⑧ 힘든날은 과감하게 책 덮기 : 맥주 한잔하고 일찍 자는게 상책임
- ⑨ 예습생략 & 복습필수 : 복습만이 살 길임
- ⑩ 끝까지 버티기 : 머리 좋은 사람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 어느새 끝에 와있음.

“신혼생활과 맞바꾼 합격의 기쁨”

김 선 희
제 50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저는 2012년 1차 합격 후 2013년 유예로 2차 합격한 36살 김선희 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 후 약 10 여년 동안 직장생활 후 세무사 시험에 도전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2010년 12월 퇴사를 하면서 남편의 권유로 세무사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 직장인들이 많이 공감하실 임신 출산 이후 제 삶에 대하여 한참 고민하고 있던 터라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에 감사해하며 수험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합격수기가 수험생 여러분들 특히 기혼여성분들에게 세무사 시험 도전에 대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무사 1차 시험준비 (2011.01~2012.03)

제겐 학원선택의 유일한 기준은 “집(분당)에서 가까운 곳” 이었습니다. “어차피 공부는 제가 하는 것이니 학원을 오가는데 체력을 낭비하지 않고, 선택한 학원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만 뒤쳐지지 말고 따라가자. 대부분의 학원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다른 수험생들처럼 정보를 얻는다던지.. 비교를 해본다던지 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넘치는 정보가 선택을 더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결정했습니다.

기본반 (2011.01 ~ 2011.04) 수강 시에는 토익 점수를 확보하는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약 4개월간 예습보다는 복습위주로, 다른 수강생들보다 앞서지는 못하지만 뒤쳐지지는 말자는 생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심화반 (2011.05 ~ 2011.11) 에 들어오면서는 별도로 예습과 복습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회독수를 늘려갔습니다. 또한 9월 경부터 전과목그룹 스터디를 시작하였는데, 학원수업 진도와 반대로 진도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했는데 이 방법이 제겐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회계도 풀이과정은 암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풀리던 문제도 전혀 생소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스터디는 과목별 담당자를 정해서 정해진 범위 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출문제들을 추려와서 모의고사 식으로 각자 풀고, 담당자에게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객관식반 (2011.12 ~ 2012.03) 및 파이널정리 (2012. 04) 반에 들어오면서는 재무회계, 원가관리의 경우 객관식 문제는 주어진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려우므로, 기초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스터디 모임에서는 객관식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서 실제 시험과 같이 시간을 재어 실전경험을 키우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준비

1차 시험 답안 확인 후 동차를 준비하였습니다. 동차는 1차 합격 기쁨으로 버티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준비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더 늦게까지 공부했지만 결과는 불합격, 그래도 전과목 과락이 없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유예생활을 준비하였습니다.

1차 및 동차를 준비했던 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 유예반이 없어서 계열학원인 우리경영아카데미에서 2012년 10월부터 1순환 과정부터 3순환과정까지 수강하였습니다.

1순환(기본강의 반)은 인강으로 수강하였는데,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간혹 강사 분들께서 시간의 한계로 인해 인강을 올려주시는 것들은 빠짐없이 들었고, 강의가 업데이트 되는 시간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인강을 들으면서

실강 듣는 과 동일하게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였습니다.

2순환(진도별 모의고사반) 부터는 실강으로 수강하였는데 진도에 맞춰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학원에서 모의고사 및 강평을 듣고 혼자 복습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재무회계 및 원가관리회계는 1차 준비 당시의 기본서를 함께 병행하여 공부하면서 연습서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며 공부하였습니다.

세법학의 경우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진도 별로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모의고사 내용(주로 사례 문제) 및 강의 내용을 첨삭해 가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3순환(전범위 모의고사반) 에서는 모의고사만 실강으로 수강하고 강평은 인강으로 대체하여 아는 문제의 강평은 과감히 스킵하고, 또 학원을 오고 가는 시간을 절약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데 중점을 두고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시험 2달 전부터는 전체 내용을 머리 속에 항상 유지 시키기 위해 하루에 전 과목을 일부라도 볼 수 있도록 계획표를 짜서 공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 7시~9시 원가회계, 9시~12시 재무회계, 1시~5시 세법학 1부, 6시~10시 세법학 2부)

나만의 공부 방법

동차 및 유예 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합격수기에도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7개월간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 세운 규칙 및 나름의 팁들을 알려드리면서 합격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 체력관리가 우선이다.

수험생에게 체력은 필수입니다.

저는 매일 7시에 분당도서관에 도착 후 오후 10시까지 점심 저녁 시간 제외 후 공부하였는데 1차 준비 당시엔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다리도

많이 붓고, 허리통증,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로 인한 비염 등등 잔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시험일자가 다가올수록 증상들은 더 심해지고, 증상이 심해지니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예준비를 하면서는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요가수업을 들었고, 도서관에서 앉아 있는 중간 중간 2~3시간에 한번씩 주변 사람들 의식 않고 도서관 휴게실에서 홀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컨디션을 유지하였습니다.

2. 실감을 수감했다면 인강으로 대체할 생각을 하지 말자.

실감 시간에 사정이 생겨 인강으로 대체해야지 하는 순간 해당 강의는 대부분 다시 듣지 않게 됩니다. 한번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인강이라는 특성상 언제든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저런 사유로 또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감 시간엔 실감을 듣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인강을 듣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고, 실감을 듣는 것과 동일한 자세로 들으며 공부하였습니다.

3.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다.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인지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운이 좋아서 처음 선택한 학원에서의 선생님들 강의 스타일과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험생들처럼 1차를 준비하면서 다른 스타강사의 인강을 따로 듣는다면... 학원을 옮긴다면...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강사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고, 강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 대신 공부해줄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강사가 나올지 저 강사 강의를 추가로 더 들어야 하나 갈팡질팡 하다가 시간만 갑니다.

하지만 정말 듣는 것조차 괴로운 강사를 선택했다면 나완 맞지 않는 것이니 그럴 땐 신속하게 대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을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2차 시험을 걱정하고 정보를 찾고, 하는 수험생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1차 시험 합격 이후 학원 커리큘럼을 통해 세법학과목의 세부세목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책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기에 맞지 않는 걱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1차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한번에 1차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5. 하루의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전체 계획을 세우자.

저는 탁상용 달력에 월간 계획을 짜서 적고,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공부 목표를 계획하여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도서관에 오면 오늘 공부 해야 할 과목과 시간을 체크하고, 해당 공부가 완료되면 계획표에서 완료 표시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퇴실할 시간이 되면 완료표시에 뿌듯함과 성취감도 들고, 때론 이런 저런 사정으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흔적에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시험일까지의 전체 계획, 월별, 주간별, 일별 계획은 반드시 세우시고 지키려고 노력해보세요.

6.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자.

시험장에서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험날짜에 임박해서 정리, 암기 하기도 제게는 서브노트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유예 준비 당시 시험 일 전 약 2달 전부터는 하루에 전과목을 돌려가며 공부했습니다. 특히 세법학의 경우 에는 두꺼운 책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보기도 어렵고, 굳이 안 봐도 될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순환 때부터 작업한 서브노트를 2순환 3순환을 거치면서 첨삭하고 보충하면서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타 학원의 모의고사 자료를 얻으면 해당 내용 역시 추가 하여 반영하였는데, 암기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는 아니지만 도서관 또는 학원 이동 시 타 학원의 세법학 모의고사 문제 사본을 들고 다니면서 머리 속으로 해당문제에 대한 답안의 목차를 작성해보고 답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였는데, 실전에서 세법학 답안을 빨리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7. 동차의 경우 2차 시험일까지는 동차를 목표로 삼아라.

저는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1차 시험일은 중간과정으로 여기고, 7월 2차 시험이

끝나야 비로서 수험생활이 종료된다고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자격이 생기므로 1차 시험 기간에는 1차 준비에만 전념하는 것이 맞지만 1차 시험 다음날 채점 내용이 확인되고 나면 1~2주간 합격의 기쁨에 젖어 몸이 느슨해 지고 그간의 긴장감이 풀려버리게 되어 길게는 한 달까지 그간의 자신의 공부 페이스를 잃게 되는 수험생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를 잃게 되면 아예 유예생활을 염두에 두고 느슨한 수험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친구들은 결국 유예생활도 느슨하게 하다가 유예 역시 불합격하였습니다.

저는 1차 시험 합격 다음 날부터 2차 준비를 어찌 할지 계획을 짜고 몸이 느슨해지기 전에 다시 달렸습니다. 그렇다고 동차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수험생들을 보면 동차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 유예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후 시험을 치르고 시험장을 나서야 후회가 없습니다. 전 1차 때 시험장을 나서면서 불합격이어도 후회가 없다고 생각했고, 내 모든 에너지를 1년 4개월간 다 쏟았다는 만족감에 너무 기쁘게 시험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을 또 누리고 싶어 동차 때도.. 유예 때도 정말 후회가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8.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이다.

저는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을 보듯이 하였습니다. 주변 수험생들을 보면 모의고사 성적이 공개 되서인지... 아니면 강사분에게 점수를 보이기가 부끄러워서인지.. 오픈북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보고 동일한 스트레스 속에 스스로를 던져주세요. 세법학 모의고사의 경우 대부분 그 교재 속에 내용이 있고 3~40%는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곤 했는데, 저는 준비가 안된 문제의 경우 제가 아는 지식을 총 동원해 절대 공란으로 적어내지 않았고, 그조차도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선 오픈북도 아니고, 출제자는 학원강사가 아니므로 이번 2차 시험과 같이 학원가의 예상과 달리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쓰는 것에 대해 수험생이 미리 연습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당황만 하다가

시험시간이 종료됩니다.

9. 어떤 문제든 포기하지 마라.

저는 유예 생활을 준비하면서 다른 수험생들처럼 회계학 1부 2부에서 고득점을 하고 세법학은 과락만 넘기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실제로 회계학 1, 2부는 대부분 70~80점대를 받았고, 90점대도 간간이 받아 모의고사 1등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순 환에 와서 몇 차례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과락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물론 나에게 어려우면 남도 어렵고, 나에게 쉬우면 남도 쉽게 풀 수 있다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었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시험 이후엔 하소연 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수험생이 포기한다고 나도 포기한다면 다른 수험생과 나는 변별력이 없어 진다고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회계학 1부는 고급회계, 회계학 2부는 연결납세 계산까지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위 내용들이 출제되진 않았으나, 저는 시험일 전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면 어찌지 하는 고민 따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출제되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꼭 고급회계가 아니더라도 어렵다고 해당 문제를 버리지 말고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외위서라도 결국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엔 제겐 회계학 1, 2부 조차도 암기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10. 그리고 혼자 공부해라.

저는 토익 준비부터 유예생활을 마무리 하기까지 분당도서관에서 2년 7개월 동안 혼자 공부 하였습니다. 생활스터디니.. 밥터디니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시간 활용에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공간에 같이 있다 보면 덜 외롭고, 힘이 될수도 있겠다 싶지만 지나다니며 눈에 띄어 이야기 하다 보면 5분이 2~30분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 계획이 틀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 이견으로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하면 도서관에 나오는게 곤욕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는 외롭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보다 도서관에 일찍 나오는 누군가를 목표 삼아 저 친구보다는 일찍 와보자 하며 경쟁도 해보고, 또 인사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같은 공부를 하는 도서관에서 눈팅만 했던 사람의 책을 유심히 보아가며 내 책보다 더 까매지진 않았는지.. 무슨 책으로 공부하는지 한번씩 관심을 보이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과감히 사물함에 던져주세요.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확인하면 충분하고, 합격하면 연락 안되던 친구들도 알아서 다 연락 옵니다.

11. 주변의 도움.

저는 기혼이다 보니 시댁 그리고 친정에 명절, 생신 등 가족 행사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의 큰 배려로 저는 자주 열외를 해주셔서 명절 때는 부족했던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치중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 전후로는 학원수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혼생활과 수험생활을 바꾼 탓에 남편의 절대적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매주 주말을 홀로 보내면서도 늘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남편 덕분에 합격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철마다 보약까지 지어주며 지지해준 우리 남편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리세요!!

감사합니다.

“노력하면 결실을 볼 수 있는 정직한 시험”

유기성
제 50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안녕하세요. 제 50기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28세 유기성입니다.

저의 합격수기는 제가 동차 및 유예기간 동안(2년간) 공부하였던 방법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기술하고, 제가 공부기간 범했던 오류를 알려드려서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저는 뛰어난 머리를 지닌 사람이 아니었으며 you라는 단어가 복수를 뜻하는지조차 몰랐던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끊임없이 끈질기게 노력하면 결실을 볼 수 있는 정직한 시험이 세무사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이하의 학습법은 정답은 없습니다. 다른 훌륭한 합격수기들을 보시고 자기에 맞는 학습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1차 시험 학습법

• 재무회계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난해하고 세법과 더불어 방대한 주제가 포함된 과목입니다. 2차 시험까지 필수과목이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해와 다독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강의를 들을 때에는 타 과목에 비해서 이해도는 높으나 막상 문제를 풀거나 회독 후 다시 학습을 할 때에 휘발성이 매우 강한 과목입니다.

객관식 강의 시까지 철저히 기본서의 규정과 문제의 답을 최대한 보지 않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규정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여 이해위주 학습이 필요하며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 틀을 암기해서라도 되도록 모든 주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후에 2차 시험에서도 전략과목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토익과 세무사 공부를 병행하여 다루지 못한 과목도 있어서 동차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에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토익을 선행하여 여유가 확보되면 보다 더 많은 주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원가회계

세무사 시험에서 가장 점수를 획득하기 용이하고 모든 과목 중에 가장 이해도가 빠르며 일정한 계산 형식만 내 것으로 만든다면 1차 시험에서 가장 훌륭한 전략과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회계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해답을 배제한 채 손으로 푸는 연습을 하시면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가장 큰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원가 관리회계 과목에서도 세무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으므로 나오는 부분 위주로 반복 숙달 하신다면 좋은 점수를 획득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세 법

세무사 시험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는 물론이거니와 2차에서는 세법이 회계학 2부인 세무회계,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에 초석이 되는 과목으로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처음 세법을 접하신 분들은 방대한 양에 한번, 난해함에 또 한번, 과목특유의 휘발성에 또 한번 좌절을 하실 것 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니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끈질기게 회독 수를 늘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법의 학습방법은 강사님들께서 지도 해주시는 방법으로 가시면 무리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소위 법인세를 통으로 SKIP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인세를 통으로 SKIP하셔도 1차 합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징수법, 국조법, 조처법으로 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점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차 시험에서는 법인세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거의 합격은 불가능하고 심중팔구는 과락이 발생할 것 입니다.

물론 법인세는 난해함과 방대함이 이루 말할수 는 없지만,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익숙해지면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보다 훨씬 점수를 획득하기에 용이하며 세법에서 전략파트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법인세 부분이므로 절대 놓

치지 마시고 수 회독이상 하여 생각해서 푸는 것이 아닌 기계적으로 풀 정도로 숙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정학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학창시절에 미분 적분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방정식 조차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도 1차 시험에서 80점의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렵고 난해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상당히 재미있고 상법과 더불어 점수를 획득 할 수 있는 효과과목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바 와 같이 저는 토익과 병행하다 보니 재정학을 시작한 시기가 11월 경에 시작 하였습니다. 물론 재정학에 기초가 되는 경제학공부는 선행한 적이 없이 맨땅에 헤딩한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중요하듯이 저는 이 과목을 철저히 예습-강의-복습을 진행하였고 한 주제가 끝나면 해당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기본서 내용을 다시 찾아서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수업으로 1순환이 끝난 후 따로 읽고 철저히 이해하려고 하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2회독 정도를 하였으며 그 후에는 문제만 풀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 해당 기본서 부분을 읽고 이해하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오답노트도 만들며 10회독 이상 문제만 푼 것 같습니다. 1회독이 어렵지 2회독 3회독부터는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며 완전히 이해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체크를 하고 다음 회독부터는 풀지 않고 SKIP하였습니다.

또한 재정학은 약간의 미분 적분의 개념이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미분 적분을 알려고 하지 않았으며 해설을 보고 푸는 형식 방법을 통으로 외워버렸습니다. 물론 미분 적분을 알고 계시다면 저와 같은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미분 적분을 학습한적이 없으시거나 오래되신 분들도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학에 대한 학습방법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는데 이는 고득점이 필요한 과목에도 불구하고 암기가 아닌 철저히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목이고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함께 공부하신 분들도 처음에 가장 발목을 잡는 과목이라 생각하여 저의 학습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 상법(회사법)

상법은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최소 80점 이상 획득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상법의 공부방법은 암기입니다. 상법은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과목의 경우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상법의 경우에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므로 1차 시험 마지막에는 상법에도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필히 고득점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본서 2회독 후 법전만 끊임없이 보고 잘 안 외워지는 또는 익숙치 않은 조문은 따로 수첩에 정리하여 시험장에 가서도 시험직전까지 보고 시험 보려 하였습니다.

2차 시험 학습법

1차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2차 시험에서 그 시간과 노력이 보상되는 시기입니다. 1차 시험 준비 중에 재무회계와 세법을 충실히 학습한 분과 부족한 분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무회계의 경우에는 1차 시기와 난이도 상의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몇몇 문제는 1차문제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시기부터 충실히 재무회계를 준비하신 분이라면 2차 시험에서는 최고의 전략과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동차로는 합격하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2차 시험 학습법은 동차시기와 유예시기를 종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저는 동차로 2차 시험을 보고 정말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지만, 막상 결과 발표가 나오니 공부가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고 11월 중순까지 이런 저런 생각으로 방황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동차생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2차 시험이 끝난 직후에 2주 정도 꼭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동차기간의 수준의 학습량은 아니지만 발표 전까지 공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시험과 발표기간 사이는 3개월 가량이 되는데 이 기간에 재무회계와 세법을 정독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알차게 보냈다면 저의 유예기간 동안에 많은 자산이 되었을 것이고 조금 더 덜 고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이 시기를 허송세월 보낸 것이 많이 후회되었습니다.

• 재회계학 1부

주관식이어서 계산과정과 답을 보여주는 것이 달라진 것 일 뿐 1차 시험 때의 학습방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정확성! 정확성! 입니다. 그리고 답을 보지 않고 스스로 푸는 연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상한 문제,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으나, 시험에서는 이상한 문제, 매우 어려운 문제보다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에게 이상한 문제, 어려운 문제는 남에게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것은 없습니다.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 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해당 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길러주시고 항상 강조해주신 AIFA의 김강호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회계학 2부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 과목입니다. 1차 시기에 법인세를 빠짐없이 공부하려 노력하신 분에게 보상으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1차 시기에는 어려워서 못 푸는 것이 아닌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것이었으나, 2차 시기에선 그나마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회계학 1부 만큼 1차시기에 법인세 포함하여 모두 열심히 학습하신 분들도 이해가 편하다는 것 뿐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1차 시기부터 반드시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파트를 학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상당히 방대하여 법인세를 학습 하였던 수험생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파트 정도 학습하고, 법인세 산출세액, 차가감납부세액, 합병, 연결의 부분을 학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차생의 경우에는 범위를 넓히려 하지 말고 기존의 학습하였던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고 꼼꼼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예생의 경우에는 예외가 없이 학습하여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무회계의 공부방법은 계속적으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접목시켜 학습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는 산식을 이용하여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방대한 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복 계산을 통하여 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른 공부방법과는 반대의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세무회계는 많은 문제를 풀고 반드시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간 분배하는 연습입니다.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 세법학 1,2부

1차 시험을 막 보고 공부하시는 수험생이나 유예생이나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과목이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라고 생각합니다. 노력과 시간의 투입 대비 산출이 결코 정비례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방대한 양과 이를 암기하여야 한다는 부담감과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직접 손으로는 표현이 안되는 것에 대한 좌절감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발목을 잡는 과목입니다.

세법학은 이해만으로는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과목입니다. 이해와 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고 어느 정도의 판례도 숙지해야 합니다. 저의 세법학의 공부방법은 암기하고 쓰고 토론하고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화, 단권화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법학은 조문암기와 각 상황에 대한 관계, 법조문의 흐름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관계와 법조문의 흐름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이미지화 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화 작업이 시험에서는 흐름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주시고 암기방법 및 법조문흐름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저의 학습에 큰 도움을 주신 AIFA의 노희양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동차시기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가 질릴 정도의 방대한 양, 새로운 과목으로 인하여 마지막에는 내년을 도모하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여 동차합격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은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동안에 공부한 학습법을 단계별로 적어 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동차와 유예 수험생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1단계 : 기본서
- 2단계 : 모의고사 + 기본서
- 3단계 : 모의고사 + 요약서
- 4단계 : 요약서

[1 단계]

저는 기본서로 11월부터 1월까지 암기보단 이해위주로 학습하였고 이해와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시기에서는 암기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암기가 되지 않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것과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이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는 회계학1부와 2부를 확실히 잡겠다는 계획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고 하루에 자투리시간과 2시간 정도를 할애하여 세법학 학습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세법학의 각종 조문과 판례는 막판에 머리가 터질 정도로 외워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 보단 이해위주 학습을 하고 다독을 하려 노력하였습니다.

[2 단계]

이 시기에는 각 학원에서 모의고사반을 2순환을 운영하는 시기입니다. 모의고사는 되도록이면 학원에 가서서 직접 긴장감도 느끼고 시간분배도 해보며 써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모의고사 시험을 보시는 방법은 절대로 책같은 것을 참조하지 않고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책을 참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궁극중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이를 해결 하였을때 더욱더 기억에 오래 가기 때문에 모의고사시 책보고 참조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원에 가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치루시면 많은 수험생들이 오픈 북 시험인양 배끼는 수준으

로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결코 그 점수는 제 점수가 아닙니다. 이시기에는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익숙함을 느끼고, 시간분배, 쓰는 노하우를 배우는게 중요합니다.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꾸준함과 초심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적었다고 암기 했다고 하여도 절대로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한곳이 튀어 나왔다면 다른 한곳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모의고사에 대한 공부방법은 모의고사본 시험지에서 몰랐던 부분, 잘못알고 있던 부분을 기본서에 돌아와 다시 정독하여 읽고 기본서에 견출지를 이용하여 표시를 해두었고 자주 보려 노력하였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이해보단 암기가 더욱 필요한 시기 입니다. 3일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암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시기까지 조특법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시기에는 회계학 60%, 세법학 40% 정도로 공부시간을 분배하였습니다.?이 시기에 회계학 1부와 2부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과감히 회계학 1부와 2부를 집중하시는게 좋습니다. 우리 수험생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은 회계학이지 세법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단계]

이 시기에는 각 학원에서 유예3순환 모의고사반을 운영하는 시기 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능하시면 실강으로 모의고사 수업을 수강하시어 실제로 시험을 꾸준히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저는 기본서에서 요약서로 넘어가 기본서에 체크했던 부분, 중요한 부분을 요약서에 옮기는 정리를 하였고, 모의고사를 본 후 강조되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모조리 요약서에 옮겨 단권화 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각 학원들의 모의고사를 최대한 구하여 다 풀려 노력하였고, 시간이 없다면 간단히 요점과 그에 대한 관련법령 결론도출만이라 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중순부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요약서로 암기하였습니다. 하루에 30분가량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시험전날까지 꾸준히 암기하러 하였고, 시험 직전에 가서는 요약서에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다 암기할 수 있었고, 제가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암기하였습니다. 총 100개 정도 대충이나마 암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회계학 40%, 세법학 60%를 공부시간에 할애하였고, 자습실에서 나와 집에서 자기전에 기사 읽듯이 모의고사 해설보다가 잠들고 하였습니다.

[4 단계]

이 시기에는 요약서에 기본서의 중요내용, 모의고사의 중요내용 및 지엽적인 내용까지도 요약서에 단권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십번 보면서 자기전에 모의고사 해설을 보며 감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회계학의 경우에는 세법학 3단계 시기 부터 시험직전까지 각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풀었고, 시간분배 연습, 답안작성 연습을 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은 세법학 80%, 회계학 20%를 할애하였습니다. 회계학의 경우 하루에 모의고사 각 1~2회분씩 풀고 오답하고 학습하였고 다른 모든시간을 세법학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때에는 얇으나 서나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통암기입니다. 저의 암기법은 다독으로 요약서를 이미지화 시켜서 이미지를 암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page를 생각하여 왼쪽 상단에는 뭐가 있었고, 하단에는 뭐가 있었는지 우측 상단에는 뭐가 있고, 하단에 뭐가 있었는지 이미지 통으로 외워버렸습니다. 다독을 하면 앞글자따서 외우는것보다 이게 더 저에게 좋았습니다. 물론, 세법학2부의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은 다 앞글자 따서 외워버렸습니다.

Epilogue

세무사시험은 누구나 노력하고 끈질기게 공부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 계획대로 묵묵히 학습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평범하거나 부족한 머리로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코 저만의 노력으로 합격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꼭 합격하시고 필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처럼 형처럼 도와주신 재무회계 김강호선생님, 세법 노희양선생님, 원가 이남재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시골에 와서 공부하는데 물심양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신 교대역 두란노고시텔 이정우원장님, 종구형님, 원재형님, 끝까지 함께할 영혼의 투톱 배정재형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38세 늦각이 삼수생의 합격수기

장 중 진

제 49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합격자 발표가 난 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도 합격소식을 전할 때의 부모님의 눈물어린 축하가 잊혀지지 않네요. 긴 수험생활로 어려움이 많았던 탓인지 합격의 기쁨도 더 큰 거 같습니다.

1. 공부과정

(1) 동차시절

2009년 5월 세무사의 꿈을 안고 아이파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세무사를 목표로 삼은 것은 전문직으로서 매력도 있고 평생직업으로서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던 중이라 아이파에서 기초반, 심화반, 객관식반을 합쳐 연간 주말종합반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살다보니 토요일마다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 시험공부를 하면서 벽에 부딪힌 것은 토익이었습니다. 영어공부를 안 한지가 15년이 넘어서인지 단어도 생소하고 듣기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첫 시험에선 500점을 맞았고 둘째 시험에선 650점, 세 번째엔 690점 결국 네 번째에 725점으로 11월에 합격했습니다.

1차 시험을 두 달 앞두고 공부에 올인하기 위해 2010년 2월에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1차 시험은 대전에서 봤습니다. 시험 전날 잠을 충분히 못 잔 탓에 비봉사몽 청주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문제도 어려웠고 첫 도전이라 긴장도 많이 났습니다. 다행히 회계학은 재무회계에서 김정호 교수님이 적어주신 이론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원가도 몇 문제 풀어서 50점을 맞았네요. 세법학개론은

55점, 재정학 70점, 상법 90점으로 1차에 합격했습니다.

2차 시험은 준비부터 어려웠습니다. 3개월 남짓한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공부의 깊이가 부족해서 결국 떨어졌습니다. 회계학1부 45점, 회계학2부 41점, 세법학1부 53점, 세법학 2부 35점으로 과락에다 커트라인에도 못 미쳤습니다.

(2) 유예시절

2010년 2차 시험이 끝난 후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햄, 만두 등을 납품하는 유통 업체에 취업했습니다. 2.5톤 화물차를 끌고 충북 전체를 돌아다니면서도 10월에 합격하면 그만두고 수습을 가야지 하는 꿈을 꿴지만 결국 헛된 기대에 불과했네요.

유예 2차 시험공부를 해야 했지만 가정이 있다 보니 직장을 그만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햄박스, 떡박스, 만두박스를 나르고, 보통 100km이상 운전하다보니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어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2011년 3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2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질수술을 하는 바람에 3월도 그냥 가고 본격적으로 4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네요.

2011년 유예2차 시험을 마치고 난 뒤 그래도 동차 때보단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불행하게도 세법학1부에서 과락이 나와 평균은 커트라인을 넘었지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 삼수시절

2011년 2차 시험이 끝나고 혹시나 합격할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알바라도 좀 하자는 생각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저녁 8시에 나가 새벽 2~3시까지 일했네요. 반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리기사를 자기 부하처럼 대하는 사람, 술에 만취한 사람, 바람피우는 사람 등 별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하루는 체어맨을 가진 손님 차를 탔는데 직업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손님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고생 많이 했는데 40대 초반에 회계사에 합격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세무사에 합격해서 이 사람처럼 성공해야지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유예 2차에 떨어진 후 공부를 계속하기도 막막했습니다. 토익시험부터 1차, 2차를 다 준비해야 돼서 머리가 아주 지끈거렸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탓에 대리운전을 그만둘 수도 없었고 공부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게 너무 아

까웠죠.

10월부터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계속 대리운전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독야경 생활을 했네요. 먼저 토익과 1차시험 위주로 준비했죠. 1차시험 공부도 2년이 지난 탓에 새로 하는거나 마찬가지로였고 1차는 문제푸는 속도가 중요하다보니 공부가 쉽지 않더군요.

2012년 1월부터는 다행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다행히 회계학 1부 63점, 회계학 2부 68점, 세법학1부 50점, 세법학2부 58점으로 2012년 세무사2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 과목별 공부방법

(1) 재무회계

1차와 2차에 걸쳐 아주 중요한 전략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준비를 위해선 이론문제를 우선으로 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1차는 정확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 한 문제당 1~2분 내에 풀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풀이에 집중하면 1차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는 분개부터 풀이과정까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암기식으로 공부하기 보다는 원리를 이해해야죠. 공부할 때 답을 보지 않고 실전처럼 문제를 정확히 푼 다음에 채점을 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틀린 문제는 또 틀리게 되는데 그럴 땐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2) 원가회계

원가도 1,2차 공히 중요하죠. 저는 김영주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기초를 닦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습니다. 1차는 기본서와 객관식 기출문제집으로 준비했습니다.

2차 준비는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원가도 재무회계와 마찬가지로 답을 보

지 않고 실전처럼 푸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오답노트도 만들었고, 핵심적인 내용은 서브노트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3) 세법개론

1차 준비는 이론문제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기타세법 위주로 준비하면 될 거 같습니다. 1차는 이론문제에 집중해서 연습하고 계산문제는 기본적인 것들 소득세, 부가가치세만 잘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식 문제집을 3~4회 반복적으로 풀고 오답에 대해선 기본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4) 세무회계(회계학2부)

법인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다 공부의 양도 많고 깊이도 있어서 수험생들에게 제일 피곤한 과목이죠. 우선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어느 정도 해 놓고 법인세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연습서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4~5회는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계속 틀리는 문제는 오답노트를 만들었구요. 무엇보다 실전처럼 푸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른다고 답만 보고 눈으로 읽다보면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5) 세법학 1부

세법학은 기본적으로 각 법별로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서브노트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떤 주제에 대해 목차와 핵심내용 정도를 요약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이론은 당연히 연습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 예상문제를 뽑아 스스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문제는 2차 세법학 교재에 있는 판례와 연습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사례에 있어서는 결론이 중요하다보니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각 논제마다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출제의 핵심포인트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6) 세법학 2부

세법학 2부도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론과 사례 모두 중요하죠. 배점이 크다보니 이론도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고 사례문제도 대비해야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1차때부터 하다보니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2차시험에서 쓰라고 하면 쓰기 힘든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확실하게 알려면 모의고사처럼 계속 써 볼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지방세법은 사례문제가 많이 나오다보니 좀 까다롭네요. 먼저 외우고 사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조세제한특별법은 암기가 기본이죠. 전체를 모두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 외우고 서브노트 만들고 사례도 풀어보고 완전 노가다 과목입니다. 합격을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산입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겹더라도 반복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3. 마침표를 찍으며

수험기간동안 추억도 많네요. 2009년 원가회계 김영주 교수님을 모시고 동기들과 함께 갔던 1박2일 양평여행은 지금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교수님이 들려주신 인생 경험담이 제게는 아주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아이파의 김정호 교수님, 김영주 교수님, 조정조 박사님, 양성희 교수님, 정태덕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교수님들 덕분에 어려운 공부를 그나마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이 넘는 수험기간동안 저를 응원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최연소(19세)세무사 동차 합격신화

윤 누리

제 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연소 합격

안녕하세요. 제 49회 세무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윤누리라고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 누구에게나 단기 합격은 정말로 절실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에 있어 이제 막 첫발을 디딘 예비 세무사로서 미흡하나마 많은 세무사 수험생들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 동차합격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① 장기적 관점에서의 준비

단기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준비와중에 일부 2차 과목을 병행하였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범위를 초과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회계학1·2부또한 결국 1차 과목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해당 과목의 70%는 1차 이전에 마무리했으며, 덕분에 3개월간의 2차 준비기간에 세법학 1·2부에 정말, 부담 없이 치중할 수 있었습니다.

② 평가

항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학습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주위의 객관적인 평가나 조력 없는 학습은 지표 없는 망망대해를 거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과목의 편향적인 정도가 굉장히 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균형 있는 공부를 하는데 있어 학원의 도움이 정말로 컸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교수님들께 다소 무례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수업을 항상 대답으로 (속된 말로 나대는 정도로) 일관했습니다. 오답을 말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수업 시간 내내 긴장을 했고, 진도 이전에 최소 3회 이상의 선행을 준비를 하여, 결과적으로 수업내용의 90%은 현장에서 확실하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시험으로 현재 위치한 자리를 가늠할 수 있어 공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했으며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③ 전략과목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 것

전략은 중요합니다. 다만 전략에만 '너무' 치중한 학습은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1차 응시 전 3개월 전부터 상법과 재정학을 준비하였으나 세법과 회계를 최우선순위로 하였고 때문에 1차에 있어서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한 분량을 자랑하는 세법학을 무난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3개월을 내리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므로 1차에 있어 회계학 1·2부 전반을 끝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전략에 치중하지 않는 것이 득이 될지언정 오히려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2) 과목별 코멘트

세법

문제의 정형성을 단정 짓기 가장 난해한 과목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지나치는 챗터 없이 포괄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실체법을 제외한 절차법만을 두고 보았을 때 시간과 노력의 투입비율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로, 수험생들이 가장 난항을 겪는 법인세를 우선적으로 쫓다보니 이후 소득세 등을 공부하는 데 있어 자신감이 고무되었으며 이해에도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수험 초기에 실무에 관련한 지식 및 경험이 전무했으므로 이론적 틀이 없었고 따라서 최선이 아닌 차선에 해당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대개, 이론 내용을 먼저 적립한 이후에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지만,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특히 계산형) 결국 이론을 어떻게 실례에 있어 적용하는 것인가, 였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고도 이해는 잠시 뒤로하고 오히려 문제에 대한 친숙도를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수험을 시작한지 6개월이 되던 때에 세무회계를 토대로 세무조정과정을 익혔으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풀이방법을 '외워서' 라도 익숙해지려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해에 있어 가장 난점으로 느꼈었던 최저한세와 퇴직급여/연금충당금이

약 6-7회 정도의 풀이부터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선두로하여 이론 독파에 있어서도 점차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수험의 후반으로 갈수록 풀이보다는 이론중점적인 공부를 하였는데 초기에 문제 풀이 위주의 공부가 이해에 있어서의 진입장벽을 없애 주었습니다.

재무회계

서술형 문제의 경우 대체로 기준서의 문구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독이 정말로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회독 1차에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목에 있어서나 현재 지면상의 내용이 후반의 내용이 보조가 되어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 있는 반면, 후반과 동일한 논리로서 이해가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회독 4-5차에서 부터는 회전율을 늘리기 위해 활자의 문구 하나하나를 탐색하는 것이 아닌 문단의 덩어리로서 인지를 해나갔습니다. 가령 페이지 101의 좌측 상방의 문단은 A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이전 회독에서는 보지 못했던 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 정밀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형 문제의 경우 동일한 문제를 최소 10회 이상은 직접 손으로 풀었습니다. 매회 풀이방향의 연상에 있어 조력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론서는 스스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기로 지면이 번잡했던 반면 문제지는 절대로 더럽혀가며 풀지 않았고 답안에도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는 문제라하여 풀이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수 회의 풀이를 통하여 자구적으로도 문제 도출과정을 단축하는 방법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정말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점수 획득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세법학 1·2부

분량이 워낙에 방대하다보니 출제 포인트도 워낙에 가변적이고 변칙적이어서 수험생들을 가장 곤란하게 하지 않는 과목이 아닐까 합니다. 판례의 적용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는 당연히 동반되는 것이므로 빈출 챕터의 경우 최소, 해당 내용에 관련한 이론적 프레임은 다른 무엇을 참조하지 않고도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수험생활로 인해 법적인 판단능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소 책을 이해하고 모사하여 쓰는 것에 1차적으로 전력했고, 일부 판례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판단근거를 준용하여 서술했습니다. 과목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때문에 전략적인 방법이 가장 요구되는 과목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회계학 1·2부를 앞서 준비하면서 2차 준비기간 동안에 순수하게 세법학에만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두었던 것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서술한 내용은 합격을 위한 여러 가지의 수단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으며, 글을 읽어 주신 세무사 수험생 분들께도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신 가족과 많은 가르침을 주신 아이파 교수님들, 48회 세무사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不狂不及(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박 중 영
4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안녕하세요. 저는 ○○○○공사에 재직 중인 박중영입니다. 2010년 2월 세무사 1차 특별반을 시작으로 2011년 7월 2차 동차반 수강을 끝으로, 아이파의 정규코스를 밟아 동차 합격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1년 6개월의 빠른 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세무사에 미칠 정도의 열정"과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제 부족한 합격수기가 세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분들에게 합격에 대한 희망과 공부에 대한 열정을 드리는데 조그만한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I. 1차 시험

1. 회계학 - 예습과 다독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2차 시험에도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탄탄히 하기 위한 저의 공부방법은 기본서 다독과 예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챗터가 없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땐 70% 이상 이해되지 않았습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해안되도 끝까지 읽었습니다. 회독 수를 늘리다 보니 어느덧 이해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예습으로 수업시간 선생님의 강의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객관식 과정 들어가기 한달전에 문제집을 사서 미리 예습하고, 수업시간에 정리와 복습, 총 5회 이상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2. 세법 - 예습과 다독, 법인세 포기하지 않기 (동차의 열쇠)

세법도 2차의 3과목을 차지하는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1차부터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10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위주로 기본서를 10회 정도 반복했습니다. 이해가 안되더라도 기본서를 꾸준히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법인세는 제 머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5회독하였는데도 간단한 세무조정 문제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인강으로 세무회계를 수강하였습니다. 전 동차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세무회계를 3회독하였습니다. 동차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세법 기본서를 충분히 보신 후 세무회계를 미리 예습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등 잡법은 11월부터 꾸준히 기본서를 읽고 외웠습니다. 잡법만으로 세법 점수를 얻으려는 생각은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잡법을 공부하실 때도 부가 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하루에 30분 정도 공부해서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12월부터는 객관식 책을 위주로 했습니다. 객관식 책에 나와있는 이론 요약과 문제를 5회 이상 반복해서 외우고 풀었습니다.

3. 재정학 - 복습과 문제풀이

전공이 경제학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학원 진도따라 복습하고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문제와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70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상법 - 상법전 다독

상법은 1차 평균점수를 올리는 효자 과목입니다. 단순한 암기이기 때문에 득점 향상도 타과목에 쉽습니다. 그렇다고 1차 시험 임박해서 준비해서는 않습니다. 저는 학원 수업 진도따라 복습하고 3월부터 상법전(○/×문제)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상법전을 다독하면 80점 이상 득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II. 2차 시험

1. 회계학 1부 - 1차 실력으로

1차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별도의 2차 공부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답안 작성 요령만 터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2차 시험의 추세도 객관식화 되고 있습니다. 풀이 과정이 이상하더라도 답이 맞으면 득점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히 풀어 답을 맞추는 능력을 1차때부터 키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차때부터 기본기를 탄탄히 하시길 강조드립니다.

2. 회계학 2부 - 선생님을 믿는 것과 세법학 1부의 연결 공부

1차 세법을 충분히 공부했던 분들도 회계학2부(세무회계)는 생소하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지 헤메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공부하고 복습했습니다. 숙제도 열심히 풀고, 실력이 안되도 모의고사를 통해 답안

지 작성하는 요령을 배웠습니다. 회계학 2부도 회계학 1부처럼 객관식화 되어가기 때문에 세무조정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따라서 대충 많이 아는 것보다 기본적인 것을 정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차는 회계학2부와 세법학2부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 기본서와 문제를 다독·반복하면 세법학1부(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를 어느정도 커버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계학 2부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공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3. 세법학 1부 - 세무회계로 커버+선생님 짚어준 토픽 정리+모의고사 풀이 반복

세무회계 공부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토픽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토픽만 2차 답안 형식으로 정리를 하였고, 시험 2주전에는 정리노트를 보며 무한 반복하였습니다. 매주 모의고사 문제 풀이로 답안 작성의 요령도 익혔습니다.

4. 세법학 2부 - 정리노트 만들기 + 모의고사 풀이 반복

세법학은 기본서를 보면서 각 법별로 정리노트를 만들었고, 이것 무한 반복하였습니다. 매주 선생님께서 내주신 모의고사도 실전처럼 풀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스킵하는 부분없이 전 범위를 정리하였지만, 나머지 법은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법학 2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조특법일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짚어준 것만 정리해서 반복했습니다. 조특법은 일관된 틀이 있기 때문에 정리한 주제들을 3번정도 반복하다 보면, 그 틀을 숙지하게 되어 모르는 주제가 시험에 나오더라도 답안지 1장 정도는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법학 2부는 내가 공부한 곳에서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차일 때.

Ⅲ. 직장인 수험 생활

1. 단순하게 생활하기

저는 수험기간 동안 직장-학원-집을 활동반경으로 최대한 생활을 단순화시켰습니다.

2. 업무시간내 집중하여 일처리 (야근하지 않기)

업무시간에 일을 최대한 집중하여 처리하고 6시 이전에 업무를 끝내도록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팀장님은 자기 일 마무리하면 일찍 퇴근하라는 합리적이고 아주 좋은 분이셔서 야근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평균 3시간 이상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주중 새벽과 주말 공부 시간 확보하기

직장인은 전업 수업생보다 절대 공부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말 공부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전 토요일은 무조건 학원 자습실에서 10시간, 일요일은 학원 수업을 들으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중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1시간 30분동안 공부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4. 직장 동료들에게 더 잘하기

제가 세무사 공부하는 것을 직장 동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업무도 열심히 했을 뿐 아니라, 동료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더 배려하고, 힘든 일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5. 동차 합격에 대한 믿음

저는 직장을 다녔지만 1차 공부를 시작하면서 유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건방진 소리로 들리겠지만 동차 합격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동차 합격한다”는 약간의 자만심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자신감이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수험생분들도 처음부터 유예를 생각하지 마시고 동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IV. 감사의 글

우선 부모님과 가족, 직장선후배 및 동료, 아이파 선생님들 덕분에 부족한 제가 합격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받은 것을 가족, 친구, 동료 등 주위 분들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는 능력있고 따뜻한 세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 하지 않으면 합격

정명권
제 4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I. 첫마디

합격수기라는 무거운 글을 쓰기 전에 4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커트라인을 생각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40.5점만 맞으면 합격 할 것입니다." 또한 " 토익 700점을 빨리 획득하는 자가 그 만큼 빨리 세무사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 토익 700점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우선 토익에만 집중하세요.

II. 1차 길라잡이

저는 2010년 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선 1차 공부 방법부터 소개 한 후 비록 유예 합격이지만 경험에 비추어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위한 글을 쓰겠습니다.

1. 상법과 재정학

상법은 90점 이상 재정학은 75점 이상 획득 할 수 있도록 회독수를 늘리며 마지막에는 모의고사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상법의 경우 회사법전을 중점으로 공부하는 것이 상법 점수를 빨리 올리는데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재정학의 경우는 재정학을 위한 미시경제학과 같은 기본에 충실하는 경우가 결국에는 시험점수에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경험이 없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지 않아 1차 합격에서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세법

1차 세법은 국세기본법, 조세징수법, 국제조세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소득

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면과락(40점 미만의 점수)을 피하기 위해서는 흔히 기타세법이라고 말하는 국세기본법, 조세징수법, 국제조세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2차 세무회계라는 과목에서 50점을 차지하는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인세법을 패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패스 하셔도 1차 시험을 목표로 하는 것은 지장이 없겠지만 2차 동차를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크나큰 부담으로 추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3. 회계학

회계학에는 재무회계과 원가관리회계가 있습니다.

1차 합격을 위해서는 재무회계 말문제와 원가관리회계 10문제 이상의 득점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2차 동차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재무와 원가는 완벽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한 이유는 후술하기로 합니다. (2차 공부방법에서)

4. 2010년 1차 점수

- 상법: 92.5점
- 회계학 : 52.5점
- 세법 : 62.5점
- 재정학 : 57.5점
- 평균 : 66.25점

5. 1차 수험 관련 서적

상법 : CTA회사법전(이상수), 모의고사 및 기출문제집(이상수)

회계학 : K-IRFS 중급회계 I?II(김정호), 객관식 회계학 I?II(김정호), 원가관리회계(김영주), 객관식 원가관리회계 문제풀이집(김영주)

세법 : 분개법 원리로 배우는 세법개론(양성희, 김갑순), 프라임객관식세법(양성희, 김갑순)

재정학 : 재정학 연습(조정조), 기출문제풀이집(조정조)

Ⅲ. 2차 길라잡이

1. 서설

2차 공부방법 서술에 앞서 저는 2010년 2차 동차시험에 불합격을 한 뒤 2011년 유예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1부의 구성은 재무회계가 60점, 원가관리회계가 40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당락을 좌우 하는 과목은 누가 뭐라 해도 저는 회계학 1부라고 봅니다. 동차 시험 때 회계학 1부를 완벽하게 준비 못하여 떨어진 경험에 비추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계학 1부의 공부방법은 “반복”입니다. 동차생 이든지 유예생 이든지 제 경험상 어려운 문제를 자주 연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몇 회독이든 반복하여 풀어보는 것이 실전 시험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회계학 2부 (세무회계)

세무회계란 과목은 법인세법이 50점을 구성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 50점을 구성 합니다. 10년에 한번 상속세 · 증여세법이 위의 점수 구성 중 10~15점을 구성 하기도 하지만, 거의 나오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 됩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상속세 · 증여세법을 한도계산(최종단계)을 제외한 나머지 계산까지 공부 하였지만, 실제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고 그 만큼 다른 세무회계 관련 세법에 투자할 시간을 뺏겼다고 생각 됩니다.

공부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느 저자의 책이든 좋습니다. 한권의 세무회계연습책을 선택하여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서 답까지 외우는 경지에 오르면 점수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불안하시면 학원의 모의고사 및 기출문제집을 구하셔서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4.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 증여세법)

세법학 1부는 2011년 시험에 합격을 좌우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

부분의 학생들이 40점대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학 1부는 사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관련법령을 서술한 후 결어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의 경우 법인세를 예를 들면 단답형으로 세무회계와 접목하여 시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서술하는 경우에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관련법령을 외우는 것을 중점으로 사례를 판단하여 최선의 결어를 내는 것만이 세법학 1부의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작정 외우는 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 관련법령이 나왔는지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만 생각하며 외운다면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 지방세,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

세법학 2부가 과락이 나오신다면 그것은 정말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관련법령에 대한 서술이고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의 경우 간혹 사례를 물어 보기 때문에 관련법령만 제대로 준비해서 들어가신다면 득점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례 문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정확한 관련법령을 서술한다면 부분점수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6. 결어

회계학 1부는 부분점수 없는 채점입니다. 답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경험상)

회계학 2부는 최대한 계산 과정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점수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법학 1부는 결어를 맞추는 것이 쥔 중요합니다. 즉 정답을 맞아야 합니다. (소수점으로 답이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적으세요)

세법학 2부는 관련법령의 서술이 점수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험생보다 많은 관련법령을 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7. 2011년 2차 점수

- 회계학 1부 69점
- 회계학 2부 40점
- 세법학 1부 50점

- 세법학 2부 54점
- 평균 : 53.25점

8. 2차 수험 관련 서적

회계학 1부 : 재무회계 연습서(김정호), 원가관리회계 연습 100선(임태중)

회계학 2부 : 세무회계연습(강경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Summary
(강경태)

세법학 1?2부 : 서브노트(본인), Final · GS세법학(정연대), Impact?Perfect
세법학(유은중)

IV. 마지막마디

2년 동안의 수험생활을 끝내고 이렇게 합격수기를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 내내 도움을 주신 김정호 선생님, 양성희 선생님, 김영주 선생님, 정태덕 선생님, 조정조 박사님과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관련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차를 실패하였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유예 생활을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수험생이 세법학 1,2부를 난해해 합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4문제 중에 2문제는 거의 확실히 맞추고 나머지 2문제는 관련법령만 서술해도 50점은 나온다. 절대 겁먹지 말자. 시험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제가 한말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세법학이 편해지는 순간 나머지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저의 두서없고 부족한 합격수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로 인해 조금이나마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포기만 하지마세요. 그러시면 언젠가는 세무사란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부에 대한 열망이 동차 합격으로

문 찬 영
제 4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 들어가며

해가 바뀌어 서른을 한해 남기고 뭔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욕심에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험공부를 시작할때는 세무사 시험에 대한 인식이나 일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공대 출신으로 회계, 세법, 상법, 재정학 등 세무사 시험관련 과목은 너무나 생소한 과목들이었지만, 중간에 학교를 휴학하고 무역회사에서 약 5년정도 근무했던 경험과 친구와 필리핀에서 원자재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했던 생애 첫 나의 일의 참담한 결과를 돌이키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터라 공부에 대한 열망은 그만큼 남들보다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친한 형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평일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집에서도 가깝고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과정으로 유명한 아이파경영아카데미를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2011년 시험을 준비하는 연간종합반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처음 공부할때는 하루 10시간이 진행되는 수업을 지친 몸을 이끌고 듣기가 쉽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전혀 기초가 없었던 초반에는 잠만 잤었던적도 많았고, 몇몇의 형들과 어울리면서 오후 수업은 못들을 때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공부하는 것이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는 절대로 시험을 못볼 것 같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8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학원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수험생활을 시작하였고 2011년 4월에 1차 시험, 그해 8월에 세무사 2차 시험에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세무사 1차 시험 준비

우선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을 정리하기에 앞서 누구나 개인별로 학습능력, 학습시간, 선호도 등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과목에 대한 이해와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앞서 언급했듯 시험공부 이전에는 한번도 배워보지 못한 과목들이기에 감은 없었지만 기본종합반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기억하며 공부 스케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택했던 공부 순서는 원가관리회계-재무회계-세법-재정학-상법 순입니다. 물론 각 과목을 병행해야 하지만 비중을 높여서 마스터해야 하는 순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을 큰틀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듯이 세무사 1차 시험은 2차 시험을 위한 자격시험입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100점을 맞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과 2차 준비를 위한 기본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과목평균 60점을 넘기는 효율적인 공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과 같이 2차 시험까지 연결되는 주요과목은 2차 준비시에 탄탄한 기본기를 갖출 수 있도록 공부해주며, 재정학과 상법은 최소 80점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험에 다가올수록 공부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약 2~3개월여 앞두고 학원에서 보는 3번의 진도별 모의고사는 필히 응시를 해야 합니다. 모의고사는 나의 현재 위치, 그동안 준비한 과정에 대한 평가이자, 결과를 피드백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계획이나 방법을 수정보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 원가관리회계 - 문제 위주로 정리

원가관리회계는 공대 출신이고 수학을 좋아했던 터라 한두번 들어보니 수학과 목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해력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수리적인 부분에 익숙했던 관계로 다른 과목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챕터를 한번씩 풀어보고 나서는 하루에 한 챕터씩 시간을 정하여 문제 위주로 정리했습니다.(한 챕터에서 약 10문제 정도를 꾸준히 푼다.)

• **재무회계 - 기본에 충실하라!!**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자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과목은 재무회계입니다. 물론 세무사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서 회계과목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시험에서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중요한 과목은 역시 회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재무회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는 1차 시험은 물론 2차 시험에서도 충분한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차대변을 몰라 분개를 보면 정말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재무회계 교재를 계속 읽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밑줄만 그으면서 빠른 속도로 책 읽듯이 읽기 시작하니 이해는 되지 않아도 점점 단어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를 전공했거나 관련업무를 보던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시간이지만 저와같은 비전공자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느낄 수 있지만 회계는 수학과 같은 계산과목이 아닌 논리이며 언어인 만큼 꾸준히 읽어나가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회계 교재를 3번 정도 읽고나니 회계에 흥미도 있어지면서 공부 속도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세무사 1차 과목에서는 회계는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계산 문제에 목숨을 걸면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 문제나 서술 문제나 점수는 같으니 당연히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서술문제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2차시험을 준비하면서 회계에 있어서 분개의 중요성과 위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계를 표현하는 도구를 분개라고 한다면 모든 회계처리를 분개로 할 줄 아는 사람은 회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

을 듯 합니다. 가급적이면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분개의 기본을 다지고 정확하고 공부해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귀찮거나 시간상의 이유로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있는데, 분개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세법 - 서브노트를 만들어라!!

세법은 정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도 공부할 때는 암기 7: 이해 3 정도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시험을 마친후에 돌아켜보니 이해 7:암기 3 정도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 암기위주의 공부보다는 이해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해서 다행이지만 세법은 수험기간 내내 시간 소모가 많았던 과목입니다. 더군다나 전 세목을 다 이해하기에는 공부시간이 많이 부족할만큼 방대한 양이니만큼 세법은 반드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전 세목을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세목을 몇 번씩 공부한 이후부터는 예를들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법은 절대로 처음부터 외울려고 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세법 교재를 최소한 7~10회 정도로 눈으로 읽으면서 기억한 후에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집중 암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은 정말로 큰 틀에서 접근을 하여야 한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 상법과 재정학 - 최소 두과목 평균 80점 이상으로!!

특별한 공부 방법은 없는 것 같지만 1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과목이기에 개인 스케줄에 따라 공부를 하다가 세무사 1차 시험이 다가올수록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최소 두 과목 평균이 80점은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2차 시험과목은 아니기에 너무 목숨 걸며 공부하면 회계나 세법에 할애할 시간이 줄어드는 점만 유의하여 스케줄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세무사 2차 시험준비

세무사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동차생들에게는 1차 합격 이후에 2차 시험일까지의 3개월의 시간은 모든 과목을 한번씩 듣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역력이 있어서 동차를 노린다면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2차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다만, 1차 시험은 무슨일이 있어도 붙는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본서를 몇회독 공부하기 때문에 2차 시험부터는 의지력만 된다면 온라인 수업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학원까지의 이동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나만의 스케줄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저는 약 3개월의 시간을 각각의 달로 나누어 첫 번째 달은 회계(원가 포함), 두 번째 달은 세무회계, 마지막은 세법학으로 계획을 잡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차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일 10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동차생과 유예생의 실력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차생이 유예생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을 원가관리회계로 시작했습니다. 교재에서 매일 한 챕터중에 2~3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2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을 같이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원가관리회계를 풀고 나서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나중에 외워야 하는 과목인 세법학은 패스하고 회계와 세무회계를 인강으로 공부하고 나면 오후에 많은 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첫 번째 달에는 남은 공부 시간의 80%를 회계에 투자했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은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가 주관식으로 배점이 높기 때문에 100% 이해를 못하면 시험의 당락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회계 문제를 풀때는 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거래의 정확한 이해와 과정을 분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과목명 하나하나 까지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열심히 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세무회계 때문입니다. 세무회계는 회계와 세법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분개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면 세무회계 과목 또한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달간을 회계와 씨름하며 보내다보니 이해도가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단순 암기 했던 부분들까지 이해가되며 풀리면서 회계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두번째 달이 시작되면서 마찬가지로 남은 시간의 80%를 세무회계에 투자했고 세법학 강의도 함께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침에 공부를 시작하면 원가관리회계 2~3문제, 재무회계 약 5문제를 먼저 풀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매일 원가관리회계와 재무회계 문제를 풀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한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는 많은 학습량을 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부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위에 풀고나서 별표나 바를 정자를 표시하여 내가 이 문제를 몇 번 정도 풀었는지 체크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항상 문제를 풀고나서는 해설집을 통해 100%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회계는 항상 시험지와 같은 연습지를 통해 답안지 구성 등을 염두고 두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모든 챕터를 한번씩 풀고난 후부터는 모든 챕터의 1번, 2번, 3번 등으로 전 챕터의 문제를 하루에 다 풀어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최소 7~10번 이상은 풀 것 같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일 정도로 반복하다보면 시험에 붙을 실력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나마 저의 수기가 부족하나마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시간에도 시험준비에 여념이 없는 수험생여러분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무사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

황 연 익

제 47회 세무사 시험 합격

1. 들어가며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번 제 47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황연익입니다.

세무사 시험은 직장인들은 누구나가 공감하시겠지만 회사일을 하면서 어느순간 부터 매일 반복되는 일상 업무의 무료함과 미래 직장 생활의 불확실성으로 무언가를 찾게 되는 과정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회사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관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부족함을 극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한 건 2007년 10월경입니다. 세법에 대해 깊이있게 공부를 해 보고 싶은 욕심에 세법관련 강의를 찾던중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사 시험 커리큘럼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세무사... 무언가에 몰입할 것을 찾던 저에게는 아주 적합한 자격증이었고, 혹시나 안되더라도 회계, 세법에 대한 깊이있는 공부가능할 것 같아 무작정 등록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말과 평일 야간을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2008년 시험준비를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는 했지만 직장생활과 자격시험을 병행하는 것은 역시 쉽지가 않았습니다. 2008년 시험은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일도 바빠지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어서 계속 시험준비를 하지는 못하고 다시 몇 개월 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9년 11월 IFRS도입에 따른 회계제도 변경을 공부하기 위해 중급회계를 수강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이슈가 있을때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해서 중급회계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연말이 다가오니 작년 이루지 못했던 세무사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차피 관련업무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세무사 시험은 그런 저에게 매우 매력적인 목표이자 꿈이었습니다. 결국 2010년 4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그해 7

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와같이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세무사의 길을 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만 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2. 수험 공부

직장생활과 수험공부를 병행하는 직장인의 경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시간관리를 조그만 하지 않아도 언제 일주일이 지났는지 모르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특히나 피곤한 몸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면서 공부시간까지 빼서 수험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시험공부를 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면 출퇴근 시간만큼 하루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적은 핸드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외우시면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퇴근 이후에도 되도록이면 집에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집에서 걸어서 10분 내외의 거리에 있는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이용해서 회계학이나 세법의 계산문제 등을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1차 시험 과목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기본적인 회계와 세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회계학이나 세법 공부를 하는데 좀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실무에서는 잘 접하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비전공자이시거나 비관련분야에서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회계학과 세법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차 시험이 다가오면 고득점 전략과목인 재정학과 상법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니 그 이전에 어떻게든 기본과목의 실력을 어느정도 쌓아두셔야 시험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하는 파이널리뷰 같은 특강을 이용하여 최종 정리하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①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직장에서 회계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세법과 더불어 1차 시험에서 과락이 가장 잘 나오는 과목입니다.

재무회계는 서술형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IFRS 각 조항을 자세히 분석하여 핵심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원가관리회계는 서술형 보다는 계산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이 계산문제를 얼마나 많이 맞힐 수 있는지에 따라 과락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가 관리회계의 계산문제를 두루 많이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세법 개론

1차 시험에서 세법개론은 계산문제보다는 서술형 문제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잡법이라 불리는 국세기본법, 국세 징수법, 조세법처벌법,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기본서에서 분리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히 외워두면 1차 시험에 있어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에 관한 공부를 미리 하신 분이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차 객관식 준비를 본격으로 하는 1월 이전에 세무회계를 미리 공부하여 두시면 1차 계산형 문제와 2차 회계학 2부를 준비를 하시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③ 재정학과 상법

이 두 과목은 1차 시험의 전략 과목으로서 반드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12월까지의 기본서를 익히는데 중점을 두시고 1월부터는 객관식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문제의 유형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과목의 경우, 시험문제의 대부분은 기존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다독하여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1차 시험에서 당부 드리는 말씀

첫째, 영어 TOEIC은 미리 시험을 보자.

- 영어를 통과하지 못해 1차 시험 접수 전달까지 시험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잘못하면 그 해 시험을 치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 접수일을 잊지 말자

-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시험 접수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셋째,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해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동차를 위하여 1차와 2차 시험 모두 해당되는 과목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맞지만, 1차 시험일이 다가오면 전략과목(상법, 재정학)에 더욱 집중하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넷째, 학원 강의와 동영상 강의를 적극 이용하자.

- 본인에게 맞는 커리큘럼이 있는 학원을 등록하여 수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 보완하면 복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2차 시험 과목

2차 시험 과목은 각각의 대문제 속에 소문제 몇 향으로 구성되어 치르게 됩니다. 특히, 회계학 1부와 2부는 소문제를 차례로 풀어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다음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 만약, 첫번째 소문제를 틀리게 되면 전체 문제가 0점 처리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회계학 1부와 2부를 공부하실 때에는 순서에 따라 차근 차근 문제를 풀고, 계산의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법학 1부와 2부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기술하는 부분과 그런 법령을 이용하여 사례를 논리에 맞게 서술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법령을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회계학 1부

첫 시간에 치는 회계학 1부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2문제, 원가관리회계 2문제가 각각 출제되며 각 문제 속에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 범위는 워낙 넓고 문제 수는 적어 공부하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틀리는 부분에서 또다시 틀리는 우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확실히 안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핵심사항만 정리하고 매번 실수하는 부분은 수회 반복하여 풀어 보았습니다.

② 회계학 2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무회계 능력을 평가하는 회계학 2부에 있어 많은 수험생 분들이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전략 득점과목으로 하여 공부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 원하시는데로 소득세와 부가세를 다 맞추시면 문제가 없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다 틀어지는 문제 출제 방식이 특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무회계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초기에는 법인세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진행하여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고 후반에 들어 소득세와 부가세 공부의 비중을 늘려 고득점 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③ 세법학 1부와 2부

세법학은 공부할 양도 방대하고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점수도 가장 안 나오는 과목입니다. 게다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고 난 뒤에 본인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힘든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법학은 관련 규정을 암기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과 그런 규정을 이용하여 사례를 적용하여 기술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평가하고 있어 과락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동차를 준비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암기하는 시간도 부족한 편인데 사례를 적용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원에서 강의하는 교재를 적극 활용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기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1차 시험 수험서인 세법책과 세무회계의 문제풀이 부분을 병행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부분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을 익혔습니다.

◎ 2차 시험에서 당부 드리는 말씀

첫째,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하여 공부하지 말자.

만약 그 과목의 시험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게 나올 경우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둘째, 각 과목에서 전략적으로 공부할 부분을 정하되 절대 다른 부분을 포기하지 말자.

시험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셋째, 세법학 시험은 반드시 법령은 모두 기술한다.

사례형의 경우 논리적 기술이 중요하지만, 기본은 그 사례에 맞는 법조문과 그에 따른 내용을 적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 모르는 것 전부 쥐어짜서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넷째, 시험 당일 각 시간의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자.

1교시 시험을 엉망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시험을 잘 치르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3.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제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미약한 글 솜씨로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쓴 이 글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믿고 따라주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있습니다. 힘드실 때 그들에게 기대어 잠시나마 안식을 취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하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항상 믿고 따라준 저의 가족과 격려를 잊지 않았던 이사님,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이회계사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Now, It's time to start

정윤덕

제 46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2008년 4월 아이파 경영아카데미의 세무사 과정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설명회에 참석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참석 예약을 받았었는데, 제가 2008년도 세무사 설명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메일을 쓰는데 순간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2007년 4월경 같은 방의 같은 책상에서, 같은 컴퓨터로 설명회참석예약을 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세무사를 준비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했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또 내년, 내후년에도 같은 고민만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시작을 해야겠다고 다짐 했고, 5월부터 시작하는 기본이론 종합반부터 수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1차 시험준비

2009년 시험부터 토익이 도입되었는데, 토익성적이 준비되어있었던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다른 준비생들이 토익 공부에 신경을 많이 쏟을 때 저는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한다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토익을 준비해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1차 준비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가장 부족한 것이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체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 평일에는 공부시간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은 무조건 반납하자고 생각했고, 복습은 못하더라도 학원 수업은 절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말 위주로만 공부하다 보니 복습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었지만 직장인 위주로 강의를 하던 아이파에서 공부하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언해주시는테로만 하면 합격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 큰 의심 없이 공부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세무사 시험에 대해서 너무 모른 채 겁 없이 준비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또 그랬었기에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했던 것도 같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회계학의 경우, 어짜피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풀 수 없는 부분도 많을 것이므로 시간투입대비 출제빈도가 낮은 파트는 스킵하고 저만의 시험 범위로 여러번 반복했습니다. 원가회계는 기출문제집을 여러번 풀었고, 시험일이 다가와서는 평소 정리해두었던 오답노트 및 파트별 주요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실수와 풀이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재정학의 경우, 비록 1차 시험성적은 높진 않았지만 가장 재미있게 공부한 과목이었습니다.

대학교때부터 경제학을 좋아해서 재정학을 처음 접할 때 낯설지 않았고, 재미있게 공부하다 보니 크게 어려움 없이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1회독 시에는 본문을 읽고 내용 이해 후 문제를 풀었고, 한번에 풀리지 않은 문제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만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그 후 2회독시에는 본문 리뷰 후 표시된 문제만 보고 그 문제들 중에서 또 다시 중요문제와 이해가 잘 가지 않거나 틀린문제만 표시하는 식으로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때 볼 문제들을 추린 후 몇 번 반복하여보았습니다.

방법은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과목입니다. 이상수 박사님의 상법전에 관련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단권화 했고, 시간날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제 방, 화장실 거울 등 눈에 잘 띄는 곳은 잘 외워지지 않는 상법전 내용들을 복사해서 붙여두고 조금이라도 더 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세법은 제가 가장 힘들어 했던 과목입니다. 모두들 공감하는 방대한 양과, 휘발성. 수차례 읽어도 잘 이해가지 않는 조문들.. 시간에 많이 쫓기었기에 어쩔 수 없이 법인세 부분은 많이 스킵하고 부가,소득,기타세 부분을 좀더 집중하여 공부하였습니다.

09년도 1차 시험은 회계학이 폭탄이었습니다. 회계학만 면과락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타 과목은 예년에 비해 많이 평이하게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 2차 시험 준비

언젠가 합격수기를 읽었는데, 1차때 스킵했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2차 준비 때 부채로 돌아왔다는 글귀를 읽었는데,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세무사시험의 주관처가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예년보다 2차 시험준비기간이 약 10일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 그 늘어난 시간동안 법인세법과 회계학을 1회독 하겠다고 생각했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차 시험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수험생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두달 반 정도 남기고는 학원근처의 고시원으로 옮겨 최대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잠이 많은 탓에 잠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깨어있는 시간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었고, 학원에서 편의를 봐주셔서 빈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탓에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2차 공부를 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한 과목은 세무회계였습니다. 세무회계를 잘하면 세법학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듯하였고, 세법학의 논제를 많이 커버하

지 못하는 동차생으로써는 세무회계에서 어느정도 고득점을 해줘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법인세를 보완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고, 약 40일 정도 남기고는 모의고사 문제를 1-2회씩 매일 풀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이 시간이 너무 많이들어 과연 이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회의도 많이 들었지만 모두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것보다 문제를 풀면서 틀려가면서 이해하고, 틀린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법학은 어느 동차생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논제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논제는 직접 정리 하였고, 정리한 내용 중 암기가 잘 안되는 부분과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제는 제가 녹음해서 이동시간이나 잠들기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직접 써보는 연습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회계학은 학원에서 내주시는 프린터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세무회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세법학이라는 과목도 처음 접하는 과목이었기에 회계학에 투자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주시는 프린터 위주로 정리하고, 한번 반복할 때 어렵지 않게 풀린 문제는 버리고 잘 안풀리는 문제는 체크한뒤 다음에 또 풀어보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해당 챕터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문제 위주로 한 챕터당 한 두문제만 철해두고 시험 일주일정도 전부터 두세번 정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공부할 때 시험 전 일주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그 때 반복하여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그 자료들이 마지막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 보다 프린터물이나 교재 등에서 한번 보고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한 파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주는 문제들은 남기고 회독수를 늘릴때 점차 그 문제들을 줄여나가면서 계속 반복하여 보는 방법으로 1,2차 모두 준비했었고, 이런 방법이 합격이라는 결과를 빨리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 당일 이상하게도 별로 떨리지 않고 담담한 기분이었습니다. 회계학, 세

법학 2부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출제되어 많이 당황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는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 쓰고 나오자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집중하였습니다.

결과는 합격. 물론 준비 시간이 길지 않았던 탓에 고득점은 하지 못하였지만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천운이 따라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운이 따라줬다고 한들,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포기 했었더라면 세무사라는 자격은 결코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시 준비를 해볼까 고민을 하거나, 포기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조금만 힘을 내서 도전해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배님들의 수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분들이나 동차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약 영업에서 세무사 합격까지

-인생을 바꾼 반년의 투자

연재명

제 45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1. 프롤로그 - 일단 버리고 시작하자

저는 공학을 전공하고 화학회사 연구소를 시작으로 보안회사 영업부를 거쳐 올해 2월까지 제약 회사에서 학술영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는 축복을 받고 있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지만 안정된 직장을 과감히 버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단지 6개월간의 수험기간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제 사례가 여러분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첫 번째 목표 - 과락 없이 평균 60점

세무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도 거의 없고 1차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올해 1월 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세무사 1차 객관식 종합반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 합격에 대한 목표 보다는 아이파에서 AICPA 과정을 수강하는 여자 친구의 추천과 시험 과목인 영어, 상법, 세법, 회계 등이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과목들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표의식이 약해서 인지 첫 2~3주간은 주말마다 거의 하루 종일 진행 되는 수업이 지겹기도 한데다 기본기 없이 들어간 문제 풀이 반이라 수업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원비가 아까워서라도 오기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 무조건 읽어 보고 암기하려 했지만 회계와 세법이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라는 말들을 왜 하는지만 절감한 채 1월을 보냈는데 그나마 1차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감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2월에는 외국계 제약 회사 특성 상 해외 논문을 자주 검토하다 보니 영어 독해에

는 자신이 있어 영어 시험은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겠다는 생각을 한 뒤 1차 시험 전략을 짜 보았습니다.

상 법 : 문제집 반복 암기로 90점 목표

재정학 : 개념 이해 후 문제 연습으로 70점 목표

영 어 : 시험용 voca에는 자신이 없으니 독해 문제와 문법 문제만 풀어 60점 목표

회 계 : 문제 풀이만으로 이해가 가능한 원가 회계와 서술형 문제 위주로 40점 목표

세 법 : 국기법, 국제징수법 등 서술형 문제와 내용이 적은 부가세 위주로 40점 목표

1차 시험은 시간 싸움이라 소득세, 법인세와 재무회계는 알아도 어차피 시간 부족으로 못 풀 것이라는 위안을 삼으며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또한 회계와 세법을 가장 쉬운 16문제만 골라 풀고 스킵한다면 남은 시간으로 상법과 재정학 점수가 더 잘 나올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을 포기하니 두어 달 전업으로 공부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표를 제출하고 업무를 정리하느라 2월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본격적인 전업 수험 생활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해와 응용력이 필요한 재정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상법과 원가회계, 마지막으로 시험 2주전에 국기법, 부가세 등을 공부한 뒤 시험 전 일주일간은 상법과 재정학을 번갈아 보며 암기 하면서 재무회계 서술형과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몇몇 주제들을 보았습니다.

교재는 아이파 종합반에서 쓰이는 교재를 무조건 과목당 한권씩만 붙잡고 매달렸는데 훗날 2차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생각하니 학원의 객관식 교재들이 정말 핵심만 잘 집어 주면서 정리가 잘 된 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원가회계와 재무회계는 김영주 회계사님과 김정호 회계사님이 수업 시간에 짚어 준 예상 문제가 적중이 많이 되어 저처럼 기본기 없이 아는 문제만 골라 풀자는 전략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1월말부터 아이파 진도별 3회 모의고사를 보면서 매회 조금씩 성적을 상승시켜 실제 1차 시험 당일에는 상법 92.5점, 재정학 80점, 세법 57.5, 회계 62.5 영어 60점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진도별로 정해진 부분만을 단계적

으로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시간 내 푸는 시험 스타일에 익숙해진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객관식의 특성상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것 보다 확률 높은 답안을 빨리 짚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었다는 결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3. 두 번째 목표 - 과락 없이 평균 53점

1차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사실 공부를 계속할 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월 경 이직이 예정 된 좋은 회사에 자리가 날 것 같았고 세법개론과 중급회계 책부터 보며 기본기를 익혀야 될 것 같은 데 두 달 반 정도의 시간에 과연 가능할까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때처럼 일단 학원부터 등록했습니다. 우선은 돈을 투자해야 몸이 가고 몸이 가야 마음이 움직이니깐요. 2차 시험은 전통 있는 학원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객관식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강사님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나이가 좀 있는 수험생이라 시설 좋고 상대적으로 수험생에게 맞춰서 강의하는 아이파에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고 2차반을 같이 들었던 수강생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동차로 붙어서 선택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업으로 매달린 2차반은 조금 심도 있게 진도를 따라가 강의를 따라 잡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특히 세무회계 시간에 책에 뺀히 나와 있는 문제 해설 보다는 답안 작성 요령 위주로 강의 하신 이종하 세무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 2차 답안 채점해 보면 대부분이 형편없고 오히려 재무회계나 세무회계는 유예생 보다 동차생이 더 유리하다는 격려를 순진하게 믿고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법학만 버리면 두 달 반의 시간은 회계학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목표는 합격이지 수석이 아니니까요.

시간이 부족하여 이왕 건너 뛴 회계와 세법의 기본서는 계속 건너 뛰기로 하고 세법학도 우선은 버리자는 마음으로 세무회계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며 원가 회계와 재무 회계는 강사님들이 나눠 주시는 예상 문제 프린트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세법학은 주변 수험생들이 대부분 정정운 세무사님의 세법학 책을 보며 스테디를 하기에 다소 불안하기도 했지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두꺼운 서적은 사양해야 될 상황이었기에 노희양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감을 잡고 7월에 가서 마지막 2주 간 노희양 세무사님의 동차대비 세법학 Sub교재만이라도 달달 외우자는 계획을 세

왔습니다.

2차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수업과 병행된 학원의 모의고사를 통해 부분 점수 잘 받는 답안 작성 요령을 익혔고 틈틈이 양성희 회계사님의 세법의 마스터 키라는 작은 책을 들고 다니며 각 장의 제목과 주제 위주로 암기 했습니다. 핵심 내용만 암기 하면 어떻게든 살을 붙여 세법학 열장의 답안지를 소설(?)로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손에 꼭 들어오는 암기용 요약집이 세무회계와 세법학의 과락을 면하게 해주는 마스터 키라 생각하고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노희양 세무사님이 정리해 준 세법학 예상 문제 프린트 위주로 암기하며 감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세무회계, 재무회계, 원가회계 문제들을 두 문제 정도씩 풀었습니다.

요행으로 과락만 면하자던 세법학이 노희양 세무사님의 예상 문제가 적중되어 53점 정도의 기대 이상의 성적이 나왔고 역시 기본기가 부족한 회계학 1,2부는 58.5, 49.5의 예상 보다 다소 적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꼴찌라도 좋으니 합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4. 에필로그 - 수험 생활에 임하는 자세

결과적으로 6개월의 수험기간, 특히 전업으로 4개월여의 수험기간으로 전문 자격시험에 합격한 원인을 제 습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으니 참조해 주십시오.

첫째, 우선 돈을 투자 하십시오. 흥청망청 써대는 술값에 비하면 얼마 안하는 학원비, 일단 등록하고 나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평소 관심만 가지고 일상에 안주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은 반드시 돈을 투자해야 움직이십니다.

둘째, 학원이던 교재 던 일단 선택하면 무조건 믿으십시오. 어차피 자격시험은 entry level 아닙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야 쉬운 내용일 텐데 강의 내용이나 교재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과목당 한 가지 책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셋째, 전업 수험생은 직장인처럼 생활하십시오. 회사 다닐 때와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학원 자습실이 문 열기 전에 출근 했으며 저녁 10시 30분 학원 문 닫을 때 퇴근 했습니다. 담배 피는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며 지인들과 안부를 전하고 학원 근

처에서 점심 식사 약속을 잡아 술자리로 인한 시간 손실 없이 사회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 다. 오후 일과가 끝날 때 쯤 이면 학원 근처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한 뒤 상쾌한 마음으로 저녁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집에 가면 증독성 있는 드라마를 안 보기 위해 TV를 아예 켜지 않았고 침대에 누워 수면 유발 효과가 있는 세법을 읽으며 잠들었습니다.

넷째, 운동도하고 사람도 만나려면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제가 움직이는 동선 곳곳에 책을 복사하거나 찢어 놓아 반복적으로 암기 했습니다.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도 사이클과 러닝머신만을 이용하며 세법을 외웠고 혼자 식사하려 갈 때도 항상 책을 들고 다니며 읽었습니다. 시험이 임박해 올 때는 점심시간 1시간도 아까워 빵과 우유를 사다 먹으며 공부했고요. 차에도 중요한 내용들을 찢어 놓아 신호 대기 잠깐 동안에도 외웠습니다. 특히 그룹 스터디 위주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면 주변 수험생들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 없습니다.

다섯 째, 시간이 부족 할수록 더욱 숲을 먼저 보십시오. 처음 교재를 접하면 목차부터 암기해 책의 흐름을 잡습니다. 그리고 속독으로 책장을 넘기며 접속사와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절에 형광펜으로 색칠부터 합니다. 두꺼운 기본서가 아닌 다음에야 두어 시간이면 색칠이 다 되고 책이 너털너털해집니다. 그래야 다음에 여기 저기 찾아 볼 때 눈에 잘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수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합격생들 중에 실무 경험도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겠지요. 하지만 저의 목적은 단지 합격이었고 자격시험은 대단히 전문적인 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고 믿으며 합격 커트라인을 목표로 수험 계획을 짜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선택과 집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 두 명도 아닌 630명 안에는 반드시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효율적인 전략과 최선의 노력, 그리고 약간의 운이 따른다면 누구나 짧은 기간에 세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저도 되지 않았습니까?

직장인도 생동차 합격할 수 있다!!

양 문 정
제 45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1.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으로써 제 45회 세무사 시험 생동차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된 양문정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공부를 하면서, 끝없는 고민의 연속이었으며 저를 다잡아가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모로 운이 좋아서 그 힘겨운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 짧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담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세무사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나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는 직장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기를 적어 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무역,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공대생이다보니 대학에 재학중일때도 회계쪽은 전혀 접해보지를 못했었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무역업무에 회계업무까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계라는 업무가 왜 그리 생소하던지요...

업무 때문에 접하게 되었지만 회계나 세법이 회사생활을 잘 하려면 몰라서는 안 되는 분야이고 특히나 여성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알아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에서 필요한 실무중심으로 회계를 익혔고요, 이론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회계, 세법 동영상 이론 강의를 째째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세무사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이직에 도움이 될까 하여 전산세무, 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이직을 하려니 어차피 회사에서의 업무라는 것이 비슷한 월급쟁이이며, 현 직장에서의 급여도 적게 받는 편이 아니라 굳이 이직을 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 여러분은 누구나가 잘 하시겠지만 직장생활 7년의 미혼 여성으

세무사 시험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We make your success!

로 어찌나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느껴지던지요...

저에게는 무료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저의 능력을 시험 해볼 수 있는 도전거리가 필요했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든든한 백이 되어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언가를 찾던 중에 제가 조금씩 공부한 회계분야, 그리고 사회에서 전문가로써 인정해주고 미래에 나만의 일을 할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무모하게... 용감하게...

2007년 12월 세무사라는 자격증이 눈에 들어와서 어렴풋이 마음의 결심이 서자마자 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아이파경영아카데미가 강남에 위치하여 집에서 가깝고 직장인 위주로 업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로 과정이 잘 짜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고용보험환급과정이라 자금적인 부담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우선 알아보니 영어시험이 2009년부터 토익 점수로 대체된다고 하여 영어가 토익으로 대체되는 2009년 합격을 목표로 준비하자.. 단, 동기부여와 준비방법을 깨닫기 위해 미리 수업을 들으며 따라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12월 초에 아이파 객관식 종합반 수강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실 객관식 종합반 등록을 하고도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공부를 해낼 자신감도 부족했고, 서른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합격하고 나서의 새롭게 시작될 길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드디어 시험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로, 물론 시험준비에 대한 방법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덜컥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기회예요..”, “하면 됩니다.” “학원을 믿고 따라오세요.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합격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를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드는 고민, 직장공부를 병행하여 지칠 때 즈음이면 항상 ‘으싸으싸’ 마음을 다 잡아 주시는 종합반 선생님들 덕분에 1차 시험일까

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실무중심의 자격증을 취득하긴 했지만 세무사라는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사전에 거의 알지 못해서 공부 시작 이후에는 학원을 믿고 따라가자고 단순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무사 시험에 대하여 잘 알았다면 이렇게 까지 빨리 붙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 수업과 진도만 부지런히 따라가다 보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조차 없었고, 그러다 보니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3. 1차 시험 준비

2008년 1월부터 시험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1차 시험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한 달 전부터는 학원 강의시간에 풀어주는 문제와 진도별 3회 모의고사, 그리고 타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구매하여 일주일에 한 두번 씩 모의고사를 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분들이나 공부를 마음먹고 계신 분들은 기본서를 가급적 여러 번 반복하여 기초를 탄탄히 하신 후 1월 경 부터는 역시 반복된 객관식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등으로 시험 감각을 익혀나가는 게 1차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 세법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업을 소화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 수업 전에 꼭 따로 공부하여 이해하거나 안 되면 풀이방식 암기라도 하였습니다. 회계학과 세법은 1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든 과목이지만, 2차시험에 중복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다행히 재무회계의 김정호 회계사님, 원가관리의 김영주 회계사님, 그리고 세법의 양성희 회계사님의 강의를 짧은 기간에도 반복을 여러번 해 주는 스타일이어서

저의 경우는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수를 따내야 하는 상법의 경우 이상수 박사님 동영상 기본 강의를 객관식 강의를 듣는 와중에 2번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상법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보려고 노력했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에서 상법책 이론을 보고 저녁에는 문제를 풀어 보며 문제 유형을 익혀나갔습니다.

재정학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가지만 이론 윤곽을 잡고 문제유형을 익히면 상법과 마찬가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객관식 종합반 과정을 수강신청하면서 바로 김판기 선생님 동영상 강의(교재-정병렬 저 재정학연습)를 미리 수강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시간이 워낙 모자라 평소에 시간할애를 못하고 주말에 문제만 조금씩 풀다가 시험 직전 일주일동안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학원 교재인 조정조 박사님 책의 모든 이론을 다시 읽고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조정조 박사님 책의 이론이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정리를 잘 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자신감을 갖고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4. 2차 시험준비

그렇게 1차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의 기쁨도 누릴 틈이 없이 바로 2차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차 강의는 끝없는 모의고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밤새워 가면서 정성껏 준비해 오신 모의고사를 풀면서 매일 매일을 실전 시험과 같이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받는 모의고사를 다음 수업 직전에 다시한번 풀어보곤 하였으며, 시험 직전 일주일 동안 전체 모의고사 유인물들을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세법학은 처음 접하면서 과연 이 시험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자신이 없기도 했지만, 누구나 저와 같을 거라고 위안을 삼으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천수, 홍재봉 공저의 응용논제 120선 동영상 강의를 듣고 문제를 꼼꼼이 반복하여 풀어보았고 문제마다 해당하는 기본서를 찾아보면서 관련 범위 이론들을 암기하여 써보곤 하였습니다. 노희양 세무사님의 세법학 제본 교재는 이론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단

기간에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차 과정을 가르치는 재무회계-김정호 회계사님, 원가회계-김영주 회계사님, 세무회계-이종하 세무사님, 세법학 노희양 세무사님. 모두 답안지 작성을 꼼꼼히 봐 주시고 정정해 주셔서 실제 시험을 치를 때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선생님들의 사전 지도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5. 수기를 마무리하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길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심한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보고 노력한것이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졌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을 괜한 고민과 걱정으로 소비하지 마시고 이왕 시작하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무조건 합격한다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강의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교재도 많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수강생의 태도가 합격여부를 좌지우지 합니다. 나는 붙을 수 있다는 진실한 믿음과 노력, 수업을 뒤쳐지지 않고 따라가는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수강생들 한 명 한 명 친근하게 챙겨 주셨던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선생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황 장 원
제 45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합격수기를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의 이력(서울공대 석사졸업, 13년 대기업 직장생활, 나이 마흔에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이 이 분야에서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수험생들에게 그리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 사실 많이 망설여졌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최근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들에게 일말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세무사가 되기까지 나의 과정을 소개하고, 1년 7개월간의 나의 수험생활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 세무사시험을 선택하기 까지 ... 마지막 기회

나는 2006년 직장을 그만두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회계사나 세무사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걸로 생각했었다. 기본적으로 이공계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내 주변에서 이 분야에 뛰어들어 본 적도 없었거니와, 막연히 분야만 다를 뿐이지 사법시험이나 변리사시험처럼 아주 어려운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고 이런 시험을 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회계사와 세무사자격시험제도를 접하면서 내가 그동안 회계와 세법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그에 관련된 것에 관심이 아주 많았고 일부는 이미 익숙한 정도로 접해본 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의 나의 절박한 상황(사실상 50세도 안되는 대기업 정년, 점점 수명은 늘어나는데 점점 불확실해지지만 하는 나의 미래, 나이 40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적으로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과 맞아 떨어지면서, 직장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해 11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기로 중대 결심을 했다.

II. 첫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동안의 나의 표면적인 배경과는 전혀 다른 분야로의 도전이었기에 먼저 인터넷과 학원상담을 통하여 이 시험의 준비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듬해 동차합격을 목표로 하기에는 학원의 강의일정 등과 잘 맞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독학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한편으로 수험정보나 수험시장 분위기도 파악하기 위해 비록 이듬해 대비반이었지만 1주일에 한번 정도만 나가면서 완전히초과정부부터 시작하는 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세무사종합반과정을 병행하였다. 4월초 1차 시험까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처 시립도서관에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면서 공부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하지만, 일정에 대한 압박이 크다 보니 모의고사 한번 치러 보지도 못하고, 진도위주로 무리하게 하게 되어 체력도 금방 약해져 시험 2주전에 감기까지 걸리고 결국 1차 시험은 치렀지만 회계학 과락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체력적·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고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1차 시험을 치르고 나니 그동안의 목표덕분에 진도를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었고, 합격할 때까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시험직전 1~2주 동안의 중요성 등을 실감하게 되어 이듬해 동차합격 하는데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III. 이듬해 동차를 목표로 ... 외롭고 긴 준비기간

어렵사리 1차 시험을 치르고 나니 체력이 다 떨어져서 거의 한 달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면서 이듬해 어떻게 하면 동차로 합격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역시 독학으로 2차 과목을 12월까지 미리 공부하고 이듬해 객관식대비반부터 본격적으로 학원과정을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5~8월 세법학, 9/10월 재무회계, 11월 원가회계, 12월 세무회계 일정으로 공부하고 이듬해 1월부터 1차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였다. 이듬해 본격적인 시기인 1월부터 7월까지 체력적으로 절대 무리가 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정말 외롭고 길게 느껴지는 시기였지만 나름대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비교적

철저히 생활하였다. 이 기간 동안은 학원 선생님들에게 거의 매일 전화로 질문을 하고 지내서 나름대로는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되고 외로움도 덜 했던 것 같다.

1월부터 상법과 재정학을 나름의 일정대로 공부하고, 12월까지의 공부 덕분에 회계와 세법은 학원일정에 무리없이 따라가면서 2차시험까지 생각하여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었다. 1차시험을 치른 이틀 후부터 2차시험 1주전까지는 학원의 스터디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살다시피 하여,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스터디멤버와 함께 무난하게 합격한 것 같다.

IV. 1 · 2차 수험전략 및 공부방법

1. 1차 수험전략 ... 3가지 중요한 고려사항

1차 과목 공부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 3가지를 들고 싶다.

- ㄱ) 과목속성이나 시험시간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철저한 시간안배계획을 수립한다.
- ㄴ) 2차시험을 염두에 둔다 ... 지루하거나 틈이 날 때는 2차과목을 미리 얹게 학습한다.
- ㄷ) 교재를 잘 선택하고 정리의 달인이 되자 ... 반복학습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 토대

첫째, 1차시험은 시간싸움이며 자제력의 싸움이다. 이는 반복학습과 숙달을 통하여 극복가능한 문제이며, 풀 수 있는 문제라도 시간이 걸리는 무리한 풀이는 전략상 절대 자제해야 한다. 특히, 회계학이나 세법개론은 제한시간 내에 모두 푸는 것이 불가능한 속성이 있으므로 이를 잘 알고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모의고사를 통하여 자신의 시험습관을 교정하고 실제 각 과목 및 과목전체의 평균점수 획득목표에 따라 자신만의 최종적인 시간안배전략을 확정해야 한다. 나는 회계학이나 재정학의 경우 시간대비 문제풀이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과락만은 확실히 면할 수 있는 나름의 안전선을 설정하고 60점 정도만 확보할 수 있는 시간만을 배정하

였고, 자신있는 영어, 상법, 세법개론에 시간을 많이 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나는 1교시는 순서대로 영어 25분, 재정학 35분, 세법개론 50분(=문제선별 2분+풀이 48분), 답안지작성 10분, 2교시는 상법 30분, 회계학 40분(=문제선별2분+풀이43분) 답안지작성 10분으로 하여 시험을 치렀다.

둘째, 최종 목표인 2차 시험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수험일정이나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2차 시험까지 연장되는 부분(대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통한 학습이 필수적이다. 학원의 일정이나 인프라는 충분히 활용해야겠지만, 공부에 있어서는 학원수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학원은 단지 조력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첫 1차시험에 실패후 체력이나 시간적인 측면, 학원 일정, 나의 공부습관 등을 고려하여 독학으로 2차과목을 12월까지 미리 공부하면서 다음해 1월 객관식대비반부터 학원에 등록하여 동차로 합격했다. 통상적으로 유예가 아닌 이상 학원의 정규과정 내에서 모든 것을 소화해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원의 일정 등은 잘 활용하되, 자신의 사정이나 공부 스타일에 맞게 스스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공부를 해나가지 않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마지막으로, 학습량이 방대하고 과목 상호간 또는 과목 내에서 상호연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공부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거나 자주 교정되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반복학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반복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여러 교재를 볼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교재를 잘 선택하고, 1회독할 때 교재에 정리를 잘 해두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교재마다 책 측면으로 조금만 견출지를 활용하여 언제나 한눈에 책의 구성을 모두 볼 수 있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는데 반복학습과 상호연관부분 학습시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① 상법 ... 07년(80점), 08년(90점)

상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투입으로 통상 80~9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통상 1차 시험에서 전략과목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공부해 보면 70점대까지는 비교적 수월해도 80~90점대 확보하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다.

회사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래도 상법전은 최소 3회독 이상, 기본서는 1회독 이상을 권하고 싶다. 기본서는 처음에 보기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빠져 들어가기 쉬워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법전만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때 기본서의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보아두고, 상법전을 2회독 이상후 완성도를 높일 때쯤에 본격적으로 학습하기를 권한다. 또한, 상법전도 처음에는 각 장마다 요약정리가 되어 부분(공부하는데 10~30분 정도씩 소요)부터 시작하여 전체운곽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그 이후에 개별 조문을 틈나는 대로 계속 반복하면 짧은 시간 내에 공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② 재정학 ... 07년(60점), 08년(70점)

고등학교이후로 경제학계통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흔히 추천하는 대로 경제학개론의 미시경제학 전부와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부분들만 먼저 공부한 다음, 재정학을 공부하였다. 재정학은 재미있고 원리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쉽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최근 문제가 어려워지는 추세에 막상 제대로 풀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개인적으로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고득점은 사실상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러번 테스트 해 본 결과 재정학은 60~70점 정도를 목표로 하여 부담없이 공부하였다.

③ 세법개론 ... 07년(42.5점), 08년(70점)

세법은 평소에 주요 3법이라고 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위주로 공부하되, 국기법, 국징법, 국조법, 조처법 등 기타세법들은 틈나는 대로 공부하여 1월 객관식만 대비전까지 최소 2회독은 하기를 권한다. 기타세법은 주요 3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은 적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나중까지 미뤘다가 객관식대비기간에 시간이 부족하여 1회독도 겨우 하여 실패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기타세법은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요약본을 구해서라도 이동 중이나 틈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반복하여 보기를 권하며,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된 시점에서 제대로 기본서를 반복하기를 권한다. 특히, 국기법은 2차과목인 세법학 1부까지 연결되므로 다른 기타세법보다 더욱 철저히 해두길 권한다.

나는 첫째 1차 실패(겨우 1회독상태)후 다음해 동차를 목표로 하였고 때문에 다음해 객관식반 시작 전까지 독학으로 2차과목(세법학1부, 2부, 세무회계)을 미리 공부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이듬해 학원 객관식대비반에서 개정판으로 새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다.

④ 회계학개론 ... 07년(35점), 08년(57.5점)

회계학은 다른 과목보다도 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각 계정 또는 챕터마다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반복하여 많이 풀어봄으로써 응용력이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재무회계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1회독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최소한 회계원리 등으로 재무회계의 전체적인 윤곽을 재빨리 파악한 후에 중급회계를 최대한 빨리 1회독을 하기를 권한다.

중요한 것은 처음 1회독시에 각 챕터마다 일종의 마무리를 잘 해두어야 한다. 나는 마무리 방법으로 따로 정리노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그냥 교재에 잘 표시해 두는 방법 두가지를 테스트 해 보았으나 전자의 경우는 정리량도 많고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는 후자를 택하면서 객관식 교재 등의 요약부분 등을 대신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기본서의 각 챕터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객관식교재로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들을 선별하여 풀어보고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실전에 계산을 빨리할 수 있겠는지를 점검·보완한 다음, 2회독 이상 시에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기본서의 이론부분과 객관식의 문제부분에 표시를 잘 해 두어 틈나는 대로 이 부분을 반복하여 이론 및 문제풀이 능력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2회독부터는 이론서는 계속 보면서 객관식교재의 나머지 문제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재무회계는 통상 중급회계, 특수회계, 고급회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차시험은 사실 중급회계의 일부만 알아도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는 데 무난하다. 하지만, 2차시험까지 고려할 경우, 1차 시험장에서 전략상 풀지는 않더라도 시간만 있으면 모두 풀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중급회계와 특수회계는 사실상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동차를 대비하여 2차 준비기간을 수월하게 보낼 수 있다. 나는 첫해에는 시간이 워낙 부족하여 중급회계의 60% 정도만 공부한 상태에다 모의고사 한번 보지 못하여 문제풀이에 대한 요령부득으로 과락을 면치 못하였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1차시험 전까지 고급회계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2차 준비과정에서는 학원수업시간에만 충실히 하는 식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큰 부담없이 2차공부를 하였다.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에 비해 양과 원리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다. 따라서, 재무회계와 같은 방식으로 보다 짧은 시간만에 공략할 수 있다.

2. 2차 수험전략 ... 3가지 중요한 고려사항

2차 과목 공부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 3가지를 들고 싶다.

- ㄱ) 너무 세세한 것에는 비중을 낮추어야 머리가 가벼워진다.
- ㄴ) 세법학은 모의고사 등을 미리미리 시작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빨리 점검하고 수정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신속히 찾아내야 한다.
- ㄷ) 절대 동차기회를 놓치지 마라.

첫째, 2차시험은 1차시험과는 달리 상대평가이고, 동차를 노릴 경우 시험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하여 머릿속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수험생은 극히 소수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세세한 부분은 시험장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적을 뿐 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지막 2주정도 동안에 머릿속에 모두 넣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워 오히려 이 때문에 필수적이고 비중이 높은 부분까지 망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2차준비 기간동안 이 부분에 대한 무리한 욕심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회계학1,2부는 계산이므로 반복학습과 숙달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세법

학은 서술이므로 자신에 맞는 답안작성 요령을 찾는 게 핵심인데 여기에는 모의고사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요령을 찾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기출문제나 기존의 학원 모의고사문제 등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모범답안 등을 구해서 빨리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모의고사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서 교정해 나가지 않으면 실제 시험 전까지 합격에 대한 기대감 한번 품어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예생이 아니라면 짧은 2차 준비기간이 부담스러워 사실상 마음속으로 이미 다음해를 목표로 하여 심도없이 2차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유예와 동차는 입장일단이라고 생각된다. 동차생은 1차시험 본지가 얼마 안되어서 실전감각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깊이 측면에서는 유예생보다는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2차시험은 어차피 상대적인 게임이고 모든 부분을 모두 커버하는 수험생은 극히 일부이고, 사실상 동차생과 유예생중 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최대한 계획을 세워 승부를 내야한다.

① 회계학1부 ... 08년(71.5점)

원리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다면 1차 때보다는 시험시간이나 난이도 측면에서 확실히 여유가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1차 때와는 달리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연관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야에 대하여 이론부터 분개, 계산, 조건변형까지 모두 출현한다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1차 준비과정에서 대부분의 분야에 대하여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짧은 2차 준비기간상 실전 문제풀이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서는 필요할 때마다 보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는 2차용 문제풀이 교재로 수업시간동안 집중해서 따라 가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복습하되, 반복할 경우를 대비하여 잘 정리해 두는 방식으로 일단 마무리를 해두었고, 최종적으로 시험 2주전부터 하루에 2문제 정도씩 시험 이틀 전까지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실전문제풀이 감각을 유지하면서, 시험전날 중요하다고 표시해 둔 부분만 눈으로 짧은 시간에 리마인드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② 회계학2부 ... 08년(52점)

세무회계는 1차 때와는 깊이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1차 준비기간에 법인세, 상증세를 포함한 전 분야에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2차 준비기간에 세무회계 2차용 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봄으로써 스피드와 답안작성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1차시험전에 세무회계에 대하여 1회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1차시험 끝나고 학원의 2차과정 들어가기전 2주 공백기간동안 스터디를 조직하여 세무회계 종합문제집을 매일 2회분량씩 모의고사를 보는 방식으로 사실상 끝내고, 2차 준비기간에는 학원수업에만 충실하게 따라가고 시험 이틀전에 그동안 중요하다고 표시해 둔 부분을 눈으로 리마인드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였다.

③ 세법학1,2부 ... 08년(1부 57.5점, 2부 76점)

1차 준비할 때부터 다소 막연한 과목이었다. 기출문제나 모범답안을 보면서 이런 정도까지 작성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나에게서는 가장 도전적인 과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첫째 1차시험 실패 후에 곧바로 세법학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2차 준비기간에도 대부분을 시간을 세법학에 투입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되었다. 학원 2차과정에서도 점수예상이 잘 안되고, 어찌보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이 없으면 제대로 답안작성이 어려운 테마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장 마음을 불안케 하는 과목이었다.

그래도 콩나물머리 따서 외우기, 모의고사 5회이상 치러보기, 자신에게 맞는 답안작성요령 수립하기 등이 학습방법의 핵심이 아닌가 싶다. 첫째, 일명 콩나물머리 따서 외우기는 단순서술형이나 만약을 대비하여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첫 1차시험 실패 이후부터 휴대폰 메모장에 넣어서(약 200개 정도) 틈나는 대로 보고 원래대로 복원해내는 연습을 많이 하였다. 둘째, 모의고사는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머리 속에 있는 것을 지면상에 풀어내는 과정에서 쓰는 속도나 내용 구성, 편집 등 답안작성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에 학원모의고사 뿐 아니라 스터디를 구성해서도 여러 번 치러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문제유형은 크게 사례형과 단순서술형으로 구분되는데 작성요령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이에 대한 요령을 터득해야 한다. 단순서술형은 규정을 약간 편집하여 거의 그대로 옮겨 적는 형태이므로 대부분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례형의 경우는 자신의 쓰는 속도, 당해 사례에 대해 자신이 아는 정도, 부수적으로 딸린 문제수, 제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내용구성이나 편집 등 요령을 터득해 내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의 다양한 모범답안을 많이 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모의고사 등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수정해 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V. 글을 마치며

물론 시험공부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다음사항은 꼭 강조하고 싶다.

- ㄱ) 자신에게 맞는 안전합격목표점수를 설정하고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라.
- ㄴ) 현실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라.
: 운곽을 먼저 살피고 서서히 세부적으로 공부하기, 우선순위를 정하여 ...
- ㄷ) 2회독이상을 위한 표시를 잘 해 두어라.
- ㄹ) 반드시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과 스터디를 조직하여 시너지를 얻어라.
- ㅁ) 완성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수시로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라.

나는 내 스타일과 합격후의 실무를 고려하여 깊이 있게 하느라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험생활 내내 머리로 무거웠던 것 같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시험은 단지 시험임을 명심하고, 개관을 빨리 깬 후 중요도가 큰 것에 비중을 많이 두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평소의 실력보다도 마지막 2주 동안의 관리여하에 따라 잘못하면 그르칠 수도 있는 시험이기에, 나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수험생활을 하는 것은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일단 수험생활을 시작한 입장이라면 나름의 환경에 맞게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Ⅵ. 내가 본 수험서

마지막으로 그 동안 내가 공부해 온 교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 법: 회사법전(회경사, 이상수著), 세무사회사법(웅지세무대학출판부, 이상수著)

재 정 학: 재정학연습(형설, 조정조著), 재정학기출모의고사문제집(마이티북스, 조정조著)

재무회계: (1차) 중급회계(대경, 김정호著), 객관식회계학(회경사, 김정호著)
(2차) 재무회계연습(회경사, 김정호著), 회계학1부(다임, 김영덕著)

원가회계: (1차) 원가관리회계, 객관식원가회계기출문제집(책사랑, 김영주/구태균共著)

(2차) 원가관리회계 (파란, 임세진著), 학원모의고사 문제(김영주著)

세법개론: 프라임 세법개론, 프라임 객관식세법(어울림, 김갑순/양성희共著)

세 법 학: 세법학1부, 세법학2부(영화조세통람, 장보원著)

세법학1부, 세법학2부(상경사, 정정운著)

세법학총정리(영화조세통람, 장보원著)

세무회계: 세무회계연습1, 세무회계연습2, Final 세무회계연습(비전, 주민규/최태규共著)

참고로, 다회독을 강조하면서 나의 회독수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상 법: 기본서 1회독이상, 상법전 3회독이상

재 정 학: 기본서 2회독이상, 문제풀이 1회독이상

재무회계: 기본서 3회독이상, 객관식회계학 4회독이상

원가회계: 기본서 2회독이상, 객관식원가회계2회독이상

세법개론: 기본서 5회독이상, 객관식세법 3회독이상

세 법 학: 기본서 3회독이상, 세법학총정리 2회독이상

세무회계: 2회독이상

세무사 합격수기

막상 합격수기라고 써 놓고 보니 공연한 이야기까지 어수선하게 늘어놓은 느낌이 있다. 이 글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작은 위안이라도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수험생활 내내 많은 도움을 준 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여러 선생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작으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히, 고문같은 내 질문전화를 거의 매일 기꺼이 받아주셨던 김정호회계사와 양성희회계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직장생활보다는 쉽고 편하다는 마음으로

장 일 환
제 45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1. 겁 없이 시작했던 수험생활

사실 합격수기라 하면 충분한 수험생활을 경험하고 적정 기간에 적절한 공부코스를 밟은 분들이 쓰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여 저의 경험을 써내려 가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보통 1년여의 1차 시험공부와 1년여의 2차 시험 공부를 최적의 수험코스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곤 하는데 저는 운이 많이 따라주어 남들보다 일찍 수험생활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2차 시험을 끝으로 마무리 된 저의 10여개월의 수험생활은 친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대출신인 저는 회계쪽과는 사실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회생활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회계를 저의 직업으로 염두에 둔 적도 없었고, 적성에 맞는지조차 생각해보지 않았던 저에게 1년 먼저 세무사 시험공부를 하고 있던 대학 동기가 '같이 세무사하자.' '세무사만한 전문자격증이 어디있냐'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이렇게 합격에 개입까지 오게되었네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세무사 수험공부의 양이나 방향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친구와 함께 수험생활을 하게 되었고, 먼저 시작한 친구의 조언과 저의 공부스타일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 주변 안돌아보고 묵묵히 공부한 결과로 짧은 기간안의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듯하여 합격수기를 씁니다.

2. 직장생활보다는 쉽고 편하다는 마음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2007년 9월 즈음 먼저 세무사를 공부하던 대학 동기가 세

무사를 적극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쪽에 대하여 별반 생각을 한 적이 없어서 가볍게 듣고 흘렸는데 ‘장기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사업을 할까, 아니면 전문자격사로 준비를 할까’ 생각해보니 세무사 만한 자격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10월 초에 마음을 먹고 겁도 없이 다음연도 1차 시험 준비반인 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세무사 1차 집중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회계, 세법을 공부해보니 낯설은 느낌이 강했지만 그래도 어떤 과목이든 공부하는데는 논리와 흐름이 있으니... 회계학과 세법도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단순한 논리가 있을 거라고 믿고 편한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논리를 제대로 습득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논리 중심의 학습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안에 합격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오래하다가 수험생활에 뛰어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학교를 졸업한지가 워낙 오래인지라 처음 공부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젊은 수험생에 비하여 암기력이 퇴화된 상태이기도 하고, 체력도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직장생활 중에도 이 분야는 아니었지만 책임은 것을 즐겼기 때문에 수험서를 접하는데는 별 부담이 없었던 점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직장생활이 개별 과목의 공부에는 직접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험생활이 직장생활보다는 쉽고 편하다고 스스로 견려하며 공부했던 점은 매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터라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기 때문에 저의 수험패턴은 하루 10시간, 9to7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10시간이 많다면 많은 시간이고 적다면 적은시간일 수 있는데... 저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10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중하며 공부했고 그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으로 일반 수험생에 비하여 부족한 체력을 안배했습니다. 공부장소는 아이파와 집주변 도서관 두 곳으로 정하고 학원강의가 있는 날에는 아이파에서 공부하고 쉬는 날에는 집주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파같은 경우는 시설이 좋아서 공부하기에는 더없이 좋았지만 학원 강의가 없는 날에는 멀리까지 이동하기 쉽지 않아서 집근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0월부터 페이스를 유지하며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공부하다보니 어느덧 1차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1차 시험이 다가오니 사실 긴장이 많이 되기 시작했지만, 무리하지 말고 평소 하던대로 하자라는 마인드컨트롤을 하며 마음을 다 잡고 평소의 공부패턴을 지켜가며 묵묵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올해연도 시험은 반신반의하기도 했는데 운이 좋게도 1차 시험을 보는 중에 붙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도 평소 무던한 성격대로 내 페이스를 잃지않고 정진한 것이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는 다소 무리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조금 페이스를 늦췄다면 당연히 올해에는 2차 최종합격은 물론 1차 시험 합격과도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수험생은 준비가 많이 되어있든 적게 되어있든 시험을 앞두고 누구나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누가 더 흔들리지 않고 정리를 잘 하느냐가 약간의 실력차이보다 결과를 좌우하는 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08년 1차 시험을 단기간에 합격하니 주변에서도 자신감을 많이 북돋아 주었고 내친김에 2차까지 갈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저에게 세무사를 권했던 친구도 충분한 실력으로 1차 시험을 같이 붙어서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우군으로 서로 믿고 끌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시험 공부는 자기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저는 심리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과 늘 같이 공부해서 크게 지루하거나 슬럼프를 겪지않고 수험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호회계사님, 김영주회계사님, 양성희회계사님 등 아이파의 선생님들이 강의도 강의거니와 강의 외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수험생활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1. 2차 시험 수험전략

수험전략이나 수험방법은 개인의 성격만큼이나 다양하고 자칫 본인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공부하면 오히려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만, 합격생의 공

부방법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게 전략을 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학교 다닐 때 보면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는 친구들을 흔히 볼 수 있었듯이 계획을 세웠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중요하겠지요. 저는 수험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아래의 3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1)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가.

공부할 범위를 정확히 잘 정해놓고 공부해나가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목별 시험의 출제수준과 현재 자신의 수준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자신이 아는 것이 어디까지이고 모르는 게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게 그렇게 쉬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인프라에 너무 신경쓰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교재를 보고 어느 학원을 다니느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중교재는 어느정도 다 평준화가 되어 있으니 꼭 본인 취향이 있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검증된 교재에 멀지않은 학원이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스터디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교재나 학원과 달리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터디는 잘하면 약이지만 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수험생들에게 검증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의 스터디를 꼭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비관과 낙관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당연히 비관적인 것이 더 위험합니다.

지금 실력이 다소 모자란다고 어느 한 과목이나 파트가 이해가 안간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90점이 100점 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30~40점이 70점으로 올라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테니까요.

저는 1년 먼저 공부한 친구의 추천으로 선택한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종합반을 수강하면서 많은 도움이 받았습니다. 아이파라는 곳이 직장인들 중심으로 공부하는

곳이라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 주어서 어디를 공부하고 어디를 제외할지를 강의 중 항상 강조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공부하기 힘든 회계학과 세법에서는 특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 시험 공부방법]

저는 1차 시험에서 전과목을 60점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량을 조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점수도 그렇게 나왔는데 좋은 전략인지는 확신이 서진 않습니다. 다만 공부량이 동일하다면 시험장에서 안정적이고 계획대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상황에서 그렇게 하는것이 쉬운일이 아니므로 모의고사나 개인적인 방법을 통한 연습으로 극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재무회계의 공부주안점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이해하려고 하되, 이해되는 것만 공부한다.
- 원가회계의 공부주안점
굳이 문제를 안풀더라도 문제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반복한다.
- 세법의 공부주안점
포기하는 부분없이 공부하되 내가 실제 풀 문제는 별도로 염두해두고 공부한다.
- 재정학의 공부주안점
모든 부분이 “효율성” 아니면 “형평성” 둘 중의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알고 나면 시간투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상법의 공부주안점
별다른 방법이 없이 외워야하는 것 같습니다.. 필자의 경우는 모의고사 진도에 맞추어 조금씩보다가 시험 한달 전쯤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재정학과 상법은 2차에 없는 과목이므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는 다소 건방진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생각이겠지요.

• 1차시험 준비 교재 및 강의

[준비교재]

- 회계학

중급회계(김정호저, 대경출판사), 객관식회계학(김정호저, 회경사)
 원가관리회계(김영주저, 책사랑),
 객관식원가회계기출문제집(김영주저, 책사랑)

- 세법

세법개론(김갑순 · 양성희 공저, 어울림),
 객관식세법(김갑순 · 양성희 공저, 어울림)

- 재정학

재정학연습(조정조저, 형설출판사),
 재정학기출모의고사집(조정조저, 마이티박스)

- 상법

세무사회사법(이상수저, 회경사), 세무사회사법전(이상수저, 응지)

[강의]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무사 1차 종합반

- 재무회계 : 김정호CPA - 원가관리회계 : 김영주CPA
 - 세법 : 양성희CPA - 재정학 : 조정조박사 - 상법 : 이상수박사

[2차 시험 공부방법]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부분을 공부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분이라면 강사의 말을 믿고 따르는게 정확하고 마음편한 방법인 듯하며, 특이나 동차로 공부하는 분이라면 “내가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면 떨어진다.”는 정도로 과감한 전략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에는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골고루 점수를 받는다는 전략으로 임했고 결과도 그러해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5점 이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좋은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력과목에서는 고득점해야한다

는 압박감과 일부과목에서는 과락을 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다소 완화되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 회계학 1부의 공부주안점

1차 시험공부의 연장이므로 특별히 새로운 전략은 필요없다고 보고 학원 수업에 전적으로 따라갔으며 수시로 이를 점검하는 정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1차시험 공부시에 빠짐없이 해놓는 것이 2차 공부를 조금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1차시험때의 기본기가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좀 힘든 과목이었고 실제 점수도 제일 낮았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수험생들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 회계학 2부의 공부주안점

대부분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한데 저는 빨리 푸는 방법으로 시간을 줄이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점과 맞출 확률을 염두해두고 나름대로 중요도를 두고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 소문제 중 세무조정 하나는 1~2점 정도의 배점으로 추정되는데 한도초과액의 계산같은 경우 풀어서 답을 맞출확률은 경험상 50%가 안되었습니다.. 즉, 0.5~1점짜리 문제라고 보고 투입시간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등 이었습니다.

• 세법학의 공부주안점

누구나 그렇듯이 서술식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가 처음에는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1차 시험 후 처음 1달 정도의 기간에 과년도 문제로 나름대로 답안을 작성해 보면서 2차례정도 방법을 수정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논리정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삼아 전체를 외워 나갔고, 소득세나 상속세의 경우는 중요한 테마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조특법을 공부를 해야하느냐로 많이 고민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결국 강사의 추천 테마와 시사성 및 개인취향등의 방법으로 테마를 줄여서 공부했는데 전체의 50% 정도를 섭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다른 문제가 나와서 쓰지 못했습

니다. 세법학의 경우 워낙 채점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상점수에 거의 일치했습니다.

• 1차시험 준비 교재 및 강의

[준비교재]

- 회계학
재무회계연습(김정호저, 회경사)
원가관리회계(김영주저, 책사랑), 학원모의고사 문제(김영주저)
- 세무회계
세무회계연습(최태규저, 비전)
- 세법학
세법학 논점서브(노희양저, 자체교재)

[강의]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무사 2차(동차) 종합반

- 회계학 1부 : 김정호CPA, 김영주CPA - 회계학 2부 : 이종하세무사
- 세법학 1,2부 : 노희양세무사

4.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험생활을 하며 회사생활을 생각해보니 공부에 못지 않게 쉽지 않은 회사생활에서 잠시 벗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다보니 큰 슬럼프를 겪지 않고 수험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곤 하지만 수험생활이 다소 힘들다고 주위분들에게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두 고마운 분들이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 의무들에서 잠시 유예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빠른 합격을 바랍니다.